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 박사 학위 논문

# 지역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서비스산업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2020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정 옥 균

정 책 학 박 사 학 위 논 문

# 지역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서비스산업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민 규

이 논문을 정책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과학기술정책학과

정 옥 균

정옥균의 정책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8월

위 원 장 공학박사 옥 영 석



위 원 경제학박사 정 성 문



위 원 통계학박사 황 욱 연



위 원 경제학박사 장 정 인



위 원 경제학박사 이 민 규



# 목 차

|                             |    |
|-----------------------------|----|
| I. 서 론 .....                | 1  |
|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 1  |
| 2. 연구 목적 .....              | 2  |
| 3. 연구의 구성 .....             | 3  |
| II. 서비스산업 고찰 .....          | 6  |
| 1. 이론적 고찰 .....             | 6  |
| 가. 서비스산업의 정의와 유형 .....      | 6  |
| 나. 서비스산업의 특성 .....          | 12 |
| 2. 글로벌 서비스산업 동향과 육성정책 ..... | 13 |
| 가. 글로벌 서비스산업 동향 .....       | 13 |
| 나. 주요 국가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 17 |
| 3. 국내 서비스산업 동향과 육성정책 .....  | 21 |
| 가. 국내 서비스산업 동향 .....        | 21 |
| 나. 국내 서비스산업 현황 .....        | 27 |
| 다. 중앙정부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 30 |
| 라. 주요 지자체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 33 |
| 마. 부산 서비스산업 현황 및 육성정책 ..... | 35 |
| 4. 선행연구 .....               | 44 |
| 가. 주요 연구 동향 .....           | 44 |
| 나. 선행연구 검토 .....            | 45 |

|                                       |           |
|---------------------------------------|-----------|
| <b>Ⅲ. 부산 서비스산업 실증분석</b> .....         | <b>52</b> |
| 1. 부산 서비스산업 특화도 분석(LQ분석) .....        | 52        |
| 가. 분석 방법 .....                        | 52        |
| 나. 분석 기초자료 .....                      | 56        |
| 다. 분석 결과 .....                        | 59        |
| 라. 소결 .....                           | 65        |
| 2. 부산 서비스산업 성장도 분석(변이할당분석) .....      | 67        |
| 가. 분석 방법 .....                        | 67        |
| 나. 분석 결과 .....                        | 70        |
| 다. 소결 .....                           | 76        |
| 3. 부산 서비스산업 경제적 효과 분석(지역산업연관분석) ..... | 78        |
| 가. 연구 방법 .....                        | 78        |
| 나. 분석 방법 .....                        | 84        |
| 다. 분석 결과 .....                        | 89        |
| 라. 소결 .....                           | 105       |
| 4. 부산 서비스산업 대내외 환경 분석(SWOT분석) .....   | 107       |
| 가. 강점(Strength) 요인 .....              | 108       |
| 나. 약점(Weakness) 요인 .....              | 111       |
| 다. 기회(Opportunity) 요인 .....           | 112       |
| 라. 약점(Threat) 요인 .....                | 114       |
| 마. SWOT 전략 .....                      | 116       |
| 5. 부산 서비스산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       | 118       |
| 가. 부산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                | 118       |
| 나. 정책적 시사점 .....                      | 121       |

|                                    |            |
|------------------------------------|------------|
| <b>IV. 부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b> .....     | <b>126</b> |
| 1. 정책적 측면 .....                    | 127        |
| 가. 서비스R&D정책 강화 .....               | 127        |
| 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                | 129        |
| 다. 유망 서비스산업 인력의 수급 예측 및 양성 .....   | 130        |
| 라. 지적재산(IP) 서비스산업 육성 .....         | 131        |
| 마. 서비스업체의 혁신 유인과 R&D 투자 강화 .....   | 132        |
| 2. 산업적 측면 .....                    | 133        |
|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구조로 변화 ..... | 133        |
| 나. 제조업-서비스업 융·복합 촉진 .....          | 135        |
| 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      | 137        |
| 라. 영세 서비스업체의 대형화 추진 .....          | 138        |
| 3. 기반구축 측면 .....                   | 139        |
| 가. 온라인 플랫폼 구축 .....                | 139        |
| 나. 지식서비스지원센터 설치·운영 .....           | 140        |
| 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 140        |
| 4. 제도개선 및 지역적 측면 .....             | 141        |
| 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               | 141        |
| 나. 금융중심지로서 금융서비스업 활성화 .....        | 141        |
| 다. 울산·경남과의 광역서비스산업권 구축 .....       | 142        |
| <br>                               |            |
| <b>V. 결 론</b> .....                | <b>144</b> |
| 1. 연구 요약 .....                     | 144        |
| 2. 연구의 시사점 .....                   | 146        |
|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             | 147        |

|                |     |
|----------------|-----|
| 참고문헌 .....     | 149 |
| 1. 국내 문헌 ..... | 149 |
| 2. 해외 문헌 ..... | 153 |



## 표 목 차

|   |    |
|---|----|
| <표 2-1> 서비스업의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 .....         | 8  |
| <표 2-2>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                   | 10 |
| <표 2-3> 서비스산업 유형 .....                      | 11 |
| <표 2-4>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특징 비교 .....              | 13 |
| <표 2-5> 주요 국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 17 |
| <표 2-6> 국내 서비스산업의 명목 GDP 규모 및 비중 .....      | 28 |
| <표 2-7> 서비스산업 유형별 사업체 수 .....               | 29 |
| <표 2-8> 서비스산업 유형별 종사자 수 .....               | 30 |
| <표 2-9> 중앙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 31 |
| <표 2-10> 주요 지자체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 33 |
| <표 2-11> 전국 서비스산업 GRDP·사업체 수·종사자 수 규모 ..... | 36 |
| <표 2-12> 부산 서비스산업 유형별 GRDP 규모 및 비중 .....    | 37 |
| <표 2-13> 부산 서비스산업 유형별 사업체 수 및 비중 .....      | 38 |
| <표 2-14> 부산 서비스산업 유형별 종사자 수 및 비중 .....      | 39 |
| <표 2-15> 부산 서비스산업 매출액 및 R&D 투자 등 .....      | 40 |
| <표 2-16> 서비스산업 구분에 따른 선행연구 구분 .....         | 45 |
| <표 2-17> 서비스산업 분류에 따른 선행연구 .....            | 45 |
| <표 2-18> 서비스산업 유형에 따른 선행연구 .....            | 47 |
| <표 2-19> 서비스산업 분석 방법에 따른 선행연구 .....         | 49 |
| <표 3-1> 특화도 분석을 위한 서비스산업 재분류 .....          | 55 |
| <표 3-2> 서비스업종별 GRDP 현황 .....                | 56 |
| <표 3-3> 서비스업종별 사업체 수 현황 .....               | 57 |

|   |     |
|---|-----|
| <표 3-4> 서비스업종별 종사자 수 현황 .....               | 58  |
| <표 3-5> 부산 서비스산업 LQ 및 증감률(2010-2018) .....  | 62  |
| <표 3-6> 입지계수 증감률에 의한 분류(2010-2018) .....    | 65  |
| <표 3-7> 변이할당분석의 장·단점 비교 .....               | 67  |
| <표 3-8> 부산 서비스산업 변이할당분석 결과(GRDP기준) .....    | 72  |
| <표 3-9> 산업구조와 경쟁요인에 의한 분류(GRDP기준) .....     | 72  |
| <표 3-10> 부산 서비스산업 변이할당분석 결과(사업체 수 기준) ..... | 73  |
| <표 3-11> 산업구조와 경쟁요인에 의한 분류(사업체 수 기준) .....  | 74  |
| <표 3-12> 부산 서비스산업 변이할당분석 결과(종사자 수 기준) ..... | 75  |
| <표 3-13> 산업구조와 경쟁요인에 의한 분류(종사자 수 기준) .....  | 76  |
| <표 3-14> 산업구조와 경쟁요인에 의한 분류(종합) .....        | 77  |
| <표 3-15> 지역내 산업연관표 기본구조 .....               | 79  |
| <표 3-16> 지역간 산업연관표 기본구조 .....               | 80  |
| <표 3-17>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산업연관표 분류 .....        | 90  |
| <표 3-18>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지역 구분 .....           | 89  |
| <표 3-19> 부산 서비스산업의 지역별 생산유발계수 .....         | 91  |
| <표 3-20> 부산 서비스산업별 생산유발계수 상위 5개 산업 .....    | 92  |
| <표 3-21> 부산 서비스산업의 지역별 부가가치유발계수 .....       | 94  |
| <표 3-22> 부산 서비스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상위 5개 산업 .....  | 95  |
| <표 3-23> 부산 서비스산업의 지역별 취업유발계수 .....         | 97  |
| <표 3-24> 부산 서비스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상위 5개 산업 .....    | 98  |
| <표 3-25> 부산지역 산업별 유발계수 .....                | 99  |
| <표 3-26> 부산지역 산업간 연쇄효과 .....                | 101 |
| <표 3-27> 지역 산업별 부가가치 순이입 .....              | 104 |
| <표 3-28> SWOT분석 틀 .....                     | 108 |

<표 3-29> 부산 서비스산업 SWOT 전략 ..... 117  
<표 4-1> 부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126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1> 연구 흐름도 .....                         | 5  |
| <그림 2-1> 서비스산업의 특성 .....                      | 12 |
| <그림 2-2> 세계 서비스교역 규모(GDP 비중) .....            | 14 |
| <그림 2-3> 주요 국가별 서비스산업 비중(2017년 기준) .....      | 16 |
| <그림 3-1> 지역별 서비스산업 LQ지수(GRDP 기준, 2018) .....  | 59 |
| <그림 3-2> 지역별 서비스산업 LQ지수(사업체 수 기준, 2018) ..... | 60 |
| <그림 3-3> 지역별 서비스산업 LQ지수(종사자 수 기준, 2018) ..... | 61 |
| <그림 3-4> 국가간 무역총액과 부가가치 흐름 .....              | 83 |



#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 of Regional Service Industry**

- Focu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ervice Industry in Busan -

**Jeong, Ok-Kyun**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Over the years, demand for new services is created and the service industr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national economy. Korea's central government is seeking various policies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order to increase the added value and job creation of the service industry, which is lower than that of advanced countr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also stepping up efforts to revitalize the service industry.

The same is true for Busan, even though its industrial structure has a very low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features specialized industrial structure for the service industry, the service industry is not leading the local economy's growth by securing growth engines, and the poor productivity of the service industry is the biggest obstacle in performing its function as a growth engine. Moreover, low productivity in the service sector is likely to und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at a time when the manufacturing sector is increasingly dependent on the service sector.

As a result, Busan needs to reorganize its regional economic structure into a virtuous cycle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while promoting convergence and integration with service industries that are highly related to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in order to enhance the structure of the service

industry and promote growth of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high contribution rates to economic growth.

In response, this study aims to present development plans for structural advancement of the service industry, focusing on the high value-added service industry, which is highly related to manufacturing production activities, through various empirical analysis, and focusing on fostering the service industry in a new paradigm that promotes high value-added services such as knowledge-based capital, ICT convergence, and manufacturing, and fostering the future growth engine of the service industry by applying new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is end, we first looked at the service industry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domestic and foreign trends and policies of the service industry, and the service industry status and development policies of Busan. Based on the annual survey of nationwide companies and statistics on regional accounts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location coefficient of Busan's service industry was analyzed for nine years from 2010 to 2018, and the growth rate of Busan's service industry was examined through a variable allocation analysis that identifies the location of Busan in its relations with the nation.

The Bank of Korea analyzed the economic ripple effect on the service industry in Busan by utilizing the Bank of Korea's regional industrial relations table, analyzed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through the economic inducement coefficient analysis, analyzed the sensitivity coefficient and influence coefficient through the inter-industry chain effect analysis, and analyzed the degree of interdependence between industries, and the economic ripple effect in terms of net transfer of value added.

Finally, after presenting policy implications suitable for Busan through

SWOT analysis of the Busan service industry, a total of 15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plans were presented, including four major policy aspects, industrial aspect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spects, system improvement, and regional aspects, as development plans for the Busan service industry.

There was no prior case of analyzing the impact on the local industrial economy by comprehensively utilizing various analysis frames, such as analysis of local industry associations, location coefficient analysis, and variable allocation analysis on the service industry in Busan.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value-added net inflow effects across the local service industry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of its kind in this study,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expand the spectrum of service-sector research by introducing value-added net inflow analysis into the service industry sector.

In addition, it is highly significant in terms of policy significance as it is expected to be used in various ways in establishing policies for the service industry of Busan City in the future as the measur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ervice industry in Busan.

Key Words: Location Quotient Analysis, Shift-Share Analysis, Regional Industry Association Analysis, Inter-Industry Linkage Effects, Analysis of Net Value Added Effect, SWOT Analysis

# I. 서론

##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 증대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 교통과 통신의 발달,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 개인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서비스경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왔던 제조업은 생산투자의 위축, 인건비·생산비용의 증가,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등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둔화되어 미래성장 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다. 한편, 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생산과 고용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등 경제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제조업 위주의 산업정책, 낮은 수준의 서비스분야 R&D 투자, 각종 규제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플랫폼과 디지털화로의 급속한 진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근간으로 서비스산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한편, 부산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아주 낮고 서비스업에 특화된 산업구조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 내에서는 고부가가치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산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

으며, 성장엔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특히 서비스산업의 저조한 생산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제조업의 서비스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은 제조업의 경쟁력마저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산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경제성장 기여율이 높은 제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제조·생산과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산업과의 융·복합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체질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선순환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동향과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산업연관분석과 특화도, 성장도 등 다양한 분석틀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 목적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또는 고용 비중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는 현상인 서비스경제화(transition to service economy)가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부각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 발굴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서비스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 등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산광역시에서 서비스산업 진흥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영향도(지역산업연관분석)와 특화도(LQ분석), 성장도(변이할당분석) 등 다양한 분석틀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 사례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변화추세, 다양한 실증 분석을 통해 제조업 생산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비스산업 구조고도화는 우선 부산지역 지식기반자본, ICT융합,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서비스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4차 산업혁명형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산업분야의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 등 부산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육성방안 제시가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부산 서비스산업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육성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부산시의 서비스산업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II장에서는 서비스산업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서비스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육성정책, 부산 서비스산업 현황과 육성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과 부산의 서비스산업 현황과 변화추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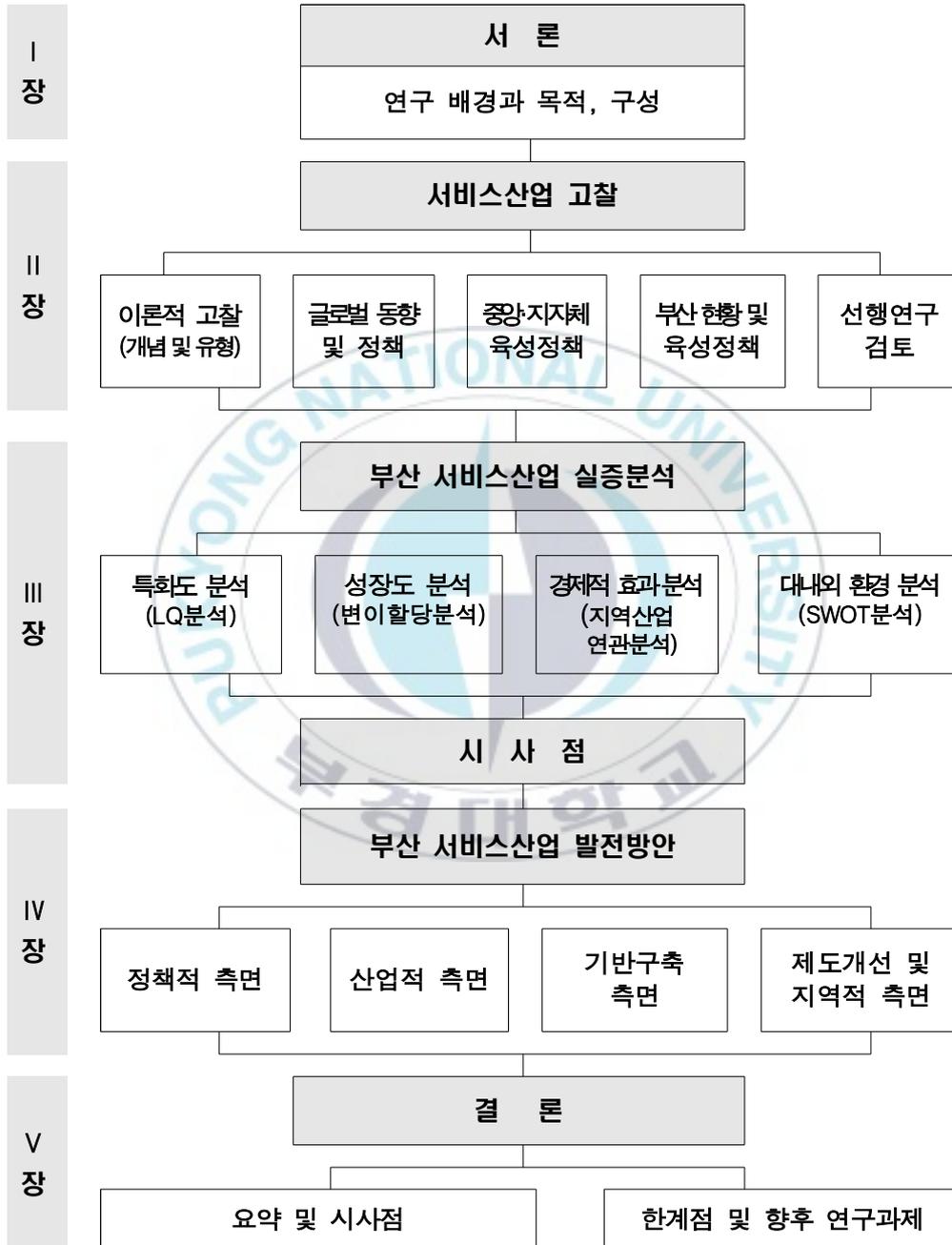
2018년까지의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생산한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접근한다.

Ⅲ장에서는 먼저 통계청에서 매년 공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와 지역계정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간 부산의 서비스산업 입지계수를 분석하여 부산 서비스산업의 지역 특화정도를 알아보고, 서비스산업 성장 및 변화를 전국과의 관계에서 부산의 위치를 파악하는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부산 서비스산업의 성장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지역산업연관표를 기초자료로 하여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경제적 유발계수분석으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고, 산업간 연쇄효과분석으로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분석하여 각 산업부문 간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하며, 부가가치 순이입 측면에서도 산업가치 경쟁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부산서비스산업의 SWOT 분석을 통해 부산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부산 서비스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Ⅴ장은 결론으로서 분석결과 요약과 연구의 시사점, 한계점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 Ⅱ. 서비스산업 고찰

### 1. 이론적 고찰

#### 가. 서비스산업의 정의와 유형

##### (1) 서비스산업의 정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법정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20년 5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은 서비스업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타 경제주체나 경제객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무형의 경제재에 대한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뒷부분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정의하고 있고, OECD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를 “지식을 창출·가공·활용·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 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서비스산업은 연구목적에 따라 국가별, 연구자별

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주 사용하게 되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OECD에서 처음 도입한 용어로서 “지식서비스산업 중 법무·회계·광고·컨설팅·시장조사·연구개발·통역 서비스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2) 서비스산업의 범위

서비스산업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UN에서 제시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를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을 분류하면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보관업, 정보통신,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서비스 및 국방, 기계 및 장비대여업, 오락·문화서비스업 등을 서비스산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통계청의 한국산업표준분류(KSCI)도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하여 <표 2-1>과 같이 작성하고 있지만, 각 국가 간 다소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서비스생산과 무역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서비스무역 통계에서는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서비스산업의 생산이나 고용에서는 건설업이 제외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서비스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제통계에서는 이를 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농업 및 임업,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과 광업,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을 제외한 3차 산업 전체를 포괄하여 전기, 가스, 보험 및 금융, 정보통신, 방송 등을 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하고, 협의적으로 해석할 경우의 서비스산업은 사인에 대한 의료, 복지, 교육 등의 공적인 관여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1> 서비스업의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

| 대분류                        |              | 세부내역 및 주요 업종  |
|----------------------------|--------------|---|
| A. 농업, 임업 및 어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 수렵, 직물재배, 축산 등</li> <li>• 임업 : 벌목, 묘목생산, 이생임산물 채취 등</li> <li>• 어업 : 양식, 원양·연근해·내수면 어업 등</li> </ul>  |
| B. 광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탄·원유·천연가스, 철·비철금속, 비금속(석회석·모래·자갈 등) 채굴·채취·추출 활동</li> </ul>  |
| C. 제조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화시키는 활동</li> </ul>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발전·송전, 가스제조·공급, 증기·냉온수 공급, 공기조절 공급 등</li> </ul>   |
| E. 수도,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 복원, 원료 재생 등</li> </ul>   |
| F. 건설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반공사, 건물 및 구축물 신축·증축·재축·개축·수리·보수·해체 등</li> </ul>   |
| 서비스업                       | G. 도매 및 소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물품에 대한 도·소매업,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 노점 등) 상품중개업 등</li> </ul>  |
|                            | H. 운수 및 창고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택배,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 운송, 화물취급업,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등 운송 관련 서비스업 수행</li> </ul>   |
|                            | I. 숙박 및 음식점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업 : 호텔, 여관, 콘도, 캠핑장 및 캠핑시설 등</li> <li>• 음식점업 :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li> </ul>  |
|                            | J. 정보통신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 : 일반서적·정기간행물 발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li> <li>• 영상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배급·상영 등</li> <li>• 방송 : 라디오, 텔레비전 송출</li> <li>• 통신 : 유무선 정보 송·수신 전달, 우편 등</li> <li>• 컴퓨터 : 컴퓨터 시스템의 통합관련 기획 및 설계서비스, 관리 관련 기술서비스 등</li> <li>• 정보 : 뉴스제공,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 등</li> </ul> |
|                            | K. 금융 및 보험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업 : 자금조성, 공급, 자금 재분배, 중개</li> <li>• 보험업 : 개인 및 단체 대상 보험·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li> </ul>  |

| 대분류                          | 세부내역 및 주요 업종  |
|------------------------------|---|
| L. 부동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업 :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등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li> <li>임대업 : 산업용·개인·가정용 기계장비, 용품, 무형재산권 임대</li> </ul>   |
|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 : 기초탐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등 연구개발활동</li> <li>전문서비스 : 법률, 회계·세무, 광고, 시장·여론조사, 컨설팅 등</li> <li>과학기술 :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검사·분석, 지질조사 등</li> <li>기타 : 수의, 전문디자인, 사진촬영, 매니저, 통·번역 등</li> </ul> |
|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설관리 : 청소, 소독·방제 서비스·조경관리·유지</li> <li>사업지원 : 여행사업, 인력공급·고용알선, 경비·경호·보안, 문서작성·복사 등</li> <li>임대서비스업(부동산 제외) : 기계·장비·자동차 등 임대서비스 등</li> </ul>                                     |
|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정부행정, 입법행정, 사회·산업정책행정, 외무·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경찰, 소방서 등)행정, 사회보장행정</li> </ul>   |
| P. 교육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중등·고등교육 정규교육기관</li> <li>특수·외국인·대안학교, 교습학원, 레크리에이션·직업훈련</li> </ul>   |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업 :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 기타 유사 의료(미술치료 등)</li> <li>사회복지서비스업 : 노인요양복지시설, 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li> </ul>   |
| R. 예술 및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작 및 예술 :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 기획·시설운영</li> <li>도서관·사적지 등 : 도서관·독서실, 식물원·동물원·박물관 등 운영</li> <li>스포츠 :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등 운영</li> <li>유원지 및 기타 오락 : 유원지, 테마파크, 오락, 복권발행 등</li> </ul>       |
| S. 협회 및 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회 및 단체 : 산업·전문가단체, 노동조합, 종교·정치단체, 시민운동</li> <li>수리업 : 기계·장비, 자동차·모터사이클, 가정용품 등</li> <li>개인서비스 : 미용업, 세탁, 장의업, 예식장업, 결혼상담업, 개인간병인 등</li> </ul>                                   |
|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 소비생산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내 고용 : 가정교사, 가정부,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li> <li>자가소비 : 사냥, 수확, 농장일 등 자가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li> </ul>   |
| U. 국제 및 외국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한 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등 근무</li> </ul>  |

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2017)

<표 2-2>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 해 당 업 종                           | 표준산업분류 | 비 고               |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     |                   |
| 전자상거래업                            | 47911  |                   |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1    |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
| 영화 및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1   |                   |
| 영화 및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2   |                   |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
| 전기통신업                             | 612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 62     | 비즈니스<br>서비스<br>산업 |
| 정보서비스업                            | 63     |                   |
| 연구개발업                             | 70     |                   |
|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1    |                   |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2    |                   |
| 광고업                               | 713    |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    |                   |
| 경영컨설팅업                            | 71531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     |                   |
| 전문디자인업                            | 732    |                   |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2  |                   |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3  |                   |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73904  |                   |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909  |                   |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00  |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75991  |                   |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2  |                   |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 수집·제공사업만 해당)   | 75993  |                   |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직업훈련교육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85504  |                   |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8565   |                   |
| 병원                                | 861    |                   |
| 의원                                | 862    |                   |
| 기타 보건업(IT를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  | 869    |                   |

주: 부산광역시 자료(2019) 재인용 및 연구자 재정리

### (3) 서비스산업의 유형

서비스산업은 연구자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통적인 서비스산업 분류에 자주 사용하는 Singelmann(1978)의 분류체계를 재정리(Schettkat and Yocarinnr, 2005)한 바에 따라 서비스산업을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등 4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OECD(1999)는 지식기반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중에서 지식집약도가 높은 일부 업종을 지칭하고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서비스산업 유형은 대략 지식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등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분류 기준으로 해당 서비스산업을 현재 통계정의 대분류산업으로 기술하게 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서비스산업 유형**

| 구분                                      | 유형          | 해당 서비스산업   |
|---|-------------|--|
| Schettkat<br>and<br>Yocarinnr<br>(2005) | 유통서비스       | 도매·소매, 운수 등  |
|   | 생산자서비스      |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사업서비스,<br>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등            |
|   | 사회서비스       | 공공 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br>보건·사회복지서비스 등                   |
|   | 개인서비스       | 숙박·음식, 문화·기타서비스 등                                      |
| OECD<br>(1999)                          | 지식기반<br>서비스 |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사업서비스, 교육,<br>보건·사회복지서비스, 문화·기타서비스 등 |

## 나. 서비스산업의 특성

서비스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무형성(intangibility), 동시성(simultaneity), 소멸성(perishability), 변동성(variability)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가장 대표적 특성인 무형성은 서비스가 일반 제품처럼 보고 만질 수 없으며, 물체나 장치 등과는 달리 서비스는 행위, 수행 등과 같이 형태가 없고, 금융, 통신 등과 같이 설명이 어렵다는 것으로 서비스를 재화와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동시성은 서비스의 비분리성에 따른 생산, 소비가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대량 생산 곤란, 생산과 소비가 혼합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소멸성은 무형성이나 동시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생산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바로 소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변동성은 서비스는 제품처럼 표준화가 어려우며 유통, 재판매,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활동이 불가능하여 서비스 단독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그림 2-1> 서비스산업의 특성



주: 부산연구원(2020.3)

한편,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이 다양한 측면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표 2-4>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특징 비교**

| 제조업               | 구분       | 서비스업               |
|-------------------|----------|--------------------|
| 유형적·내구적           | 산출물의 특성  | 무형적이고 보관 불가능       |
| 산출물에 대한 재고 축적이 가능 | 재고의 보유   | 산출물에 대한 재고 축적이 불가능 |
| 고객접촉이 적음          | 고객 접촉    | 고객접촉이 많음           |
| 반응시간이 김           | 최초 접촉 이후 | 반응시간이 짧음           |
| 지역, 국내, 국제 시장     | 시장 규모    | 국지적 시장             |
| 대규모 설비            | 생산 설비 규모 | 소규모 설비             |
| 자본 집약적            | 산업 특성    | 노동 집약적             |
| 품질 측정이 용이         | 품질       | 품질 측정이 곤란          |

주: Krajewski et al.(1999)

## 2. 글로벌 서비스산업 동향과 육성정책

### 가. 글로벌 서비스산업 동향

#### (1) 서비스 교역의 확대

서비스산업은 음반이나 DVD와 같이 제품이 교역으로 일어나는 부분과 교육, 컨설팅 등 무형으로 일어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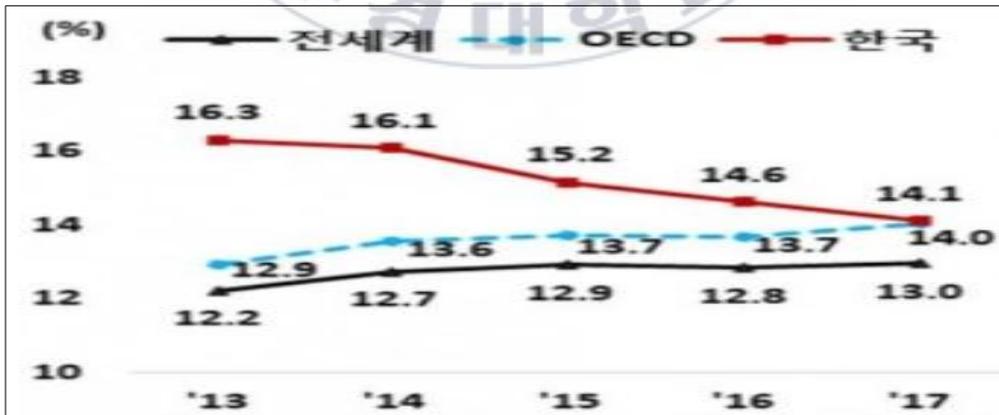
서비스산업의 국제교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 부간 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교역에서 서비스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서비스교역에 대한 국제규범이 없어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서비스교역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 협정이 체결되었다. 최근엔 세계 서비스 교역의 증가 추이가 주춤하지만 여전히 교역의 전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국제교역 협상에서 서비스 표준에 대한 논의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WTO는 서비스 교역의 이동 대상 기준으로 서비스 이동, 자본 이동, 소비자 이동, 노동 이동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해 서비스의 세분화, 상호 호환성, 품질관리, 적합성 평가의 표준화 등의 이슈에 대해 계속 논의할 계획에 있다.

전 세계 총생산(GDP)과 대비한 서비스교역 규모의 비중은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3년 12.2%에서 2017년에 13.0%로, OECD국가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2.9%에서 14.0%로 확대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6.3%에서 14.1%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림 2-2> 세계 서비스교역 규모(GDP 비중)



자료 : world bank(2018)

주 : 서비스교역 = 서비스수입 + 서비스지급액

## (2)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 가속화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업종간의 융복합화 추세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상호 의존성이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산과 소비에서 서비스산업과 다른 산업들 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대부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와 같은 콘텐츠의 대량생산과 보관, 대량 소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간적·공간적인 범위를 초월하고 금융, 통신, 유통 산업 등 서비스업의 높은 혁신성도가 다른 산업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 (3) 서비스경제화의 확대

서비스경제화의 개념은 경제 전체에서의 서비스산업 비중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융합화로 인해 제조업의 수익성·부가가치가 더불어 제고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탈제조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서비스경제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의 발달 등으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뿐 아니라,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 향상에 따른 서비스 소비의 증가, 생산·투자활동에 수반되는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가 촉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경제

화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1인당 GDP 기준으로 약 5,000달러에 달하는 시기를 전후로 하여 크게 진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융합화로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에 이어 제조업의 수익성도 동반 상승하며, 비교역재이던 서비스가 교역재로 변화됨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서비스경제화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그림 2-3> 주요 국가별 서비스산업 비중(2017년 기준)



주: 헤럴드경제(2019.6)

#### (4) 서비스R&D 투자 증가

글로벌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단순 서비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지식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따라 빅데이

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모든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신서비스의 개발과 전달체계 개선의 기회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새로운 가치 사슬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의 선점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서비스R&D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R&D는 서비스 경제화 정도가 높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서비스R&D 투자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국가별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 및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국가적인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 나. 주요국가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커지면서 서비스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비스산업 고도화와 서비스신산업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5>는 주요 국가들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표 2-5> 주요 국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국가 | 정책명        | 중점 추진과제   |
|----|------------|---|
| 미국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서비스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li> <li>-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려는 것이 주요 목적</li> </ul> |

|    |  |  |
|----|--|--|
|    | 과학기술 기반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세대를 위한 첨단지식과 기술적 교육, 첨단 정보 기술 습득과 관련 생태계 개발 등을 위해 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 지원계획</li> <li>- 고성장·혁신기반 기업가정신 장려,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적 개선 및 지역사회 혁신 등에 대해 지원방안 제시</li> </ul>  |
|    | 데이터 허브 구축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해 미국 4개 권역에 대한 빅데이터 지역허브 구축계획</li> <li>- 효율적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계획으로 전국 250개 이상의 대학, 재단, 민간기업 등이 참여</li> <li>- 프로젝트 발굴 및 관련 사업비의 지원방안 제시</li> </ul>   |
| 중국 | 국가 혁신주도 발전전략 강요 (서비스업발전 보고, 2016~20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발전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누어 2016~2050년까지의 서비스산업 발전방향을 제시</li> <li>① 기초단계(2016~2020년): 중국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로서 서비스산업의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증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20년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을 59.38%로 설정</li> <li>② 공략 및 견지단계(2021~2025년): 서비스산업의 취업 비중이 50%를 넘어 2025년에는 서비스산업 GDP 비중이 66.82%, 취업비중이 52.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설정, 국가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li> <li>③ 초기 실현단계(2026~2030년): 서비스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단계로서 2030년에는 GDP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72.84%를 차지하여 서비스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li> <li>④ 기본 완성단계(2031~2050년): 서비스업 규모와 품질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서비스업 발전과 개방의 주요 지표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li> </ul> |
| 독일 | 서비스 산업 표준화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기업들이 유럽 내부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넘나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판로 개척과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분야 지원정책</li> <li>- 국제거래에서의 기술적 장벽을 낮추고 시장 개방을 지원함으로써 거래 효율의 극대화에 기여코자 하는 정책</li> </ul>  |

|    |  |   |
|----|--|---|
|    | 서비스산업<br>규제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모바일 결제분야에서의 통합과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혁신적으로 추진한 정책</li> <li>* 종전 규정 제정 4년 만에 신규 완화정책을 본격 도입·시행한 것은 유럽의 정서상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는 금융이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독일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li> </ul>   |
|    | 하이테크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혁신에서 독일이 기존 제조업에서 달성한 것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품질 혁신을 각각의 서비스산업에서도 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 전략</li> <li>-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비즈니스, 헬스, 개인 서비스, 물류, 창조 서비스, 멀티미디어, R&amp;D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함을 제시</li> </ul>  |
| 일본 | 신성장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 전략(7개 전략분야, 21개 국가 프로젝트)으로 콘텐츠, 디자인, 패션, 음식 등 문화관련 창조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한 성장 전략</li> <li>- 규제개혁과 이노베이션을 강조한 성장정책으로서 일본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전자 산업의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전략</li> </ul>  |
|    | Cool Japan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 내수산업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li> <li>-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① 콘텐츠와 소비재를 연계하기 위한 컨소시엄 형성지원 ② 상업시설 등 소매유통업과의 연계를 위한 대규모 매칭 이벤트 개최 ③ 지역자원의 발굴과 해외수요 획득을 위한 해외홍보 강화 등이 포함</li> </ul>   |
| 영국 | 차세대 서비스사업(Next generation of servic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에 대한 혁신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li> <li>- 전체 서비스산업 중 회계, 보험, 법률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춘 다학제적인 접근 방법의 연구 프로그램</li> <li>- 행동과 사회의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의 접목을 도모</li> <li>- 지원기간은 소규모 최대 2년 이내, 대규모 최대 2년6개월, 2018년말 기준으로 서비스산업 중 법률, 보험, 회계 분야에서 3개 과제가 선정되어 3년 기간으로 진행 중</li> </ul> |

|      |                                 |   |
|------|---------------------------------|---|
|      | 산업 전략백서의 서비스 산업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가지 핵심주제(데이터 중심경제, 녹색성장, 새로운 교통 방식, 고령화 사회) 선정</li> <li>- 연구개발을 위한 대규모 과제를 정의하고 5개 기반(아이디어, 인재, 사회간접자본, 비즈니스 환경, 장소)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략</li> <li>- 2027년까지 총연구개발비를 GDP의 2.4%까지 증액, 연구개발비 세금면제비율을 12%까지 완화 추진</li> </ul>  |
|      | 서비스 R&D 강화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R&amp;D정책을 강화하고 47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내용의 ‘산업 전략 도전 연구사업’을 추진</li> <li>- 산업과 사회의 대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연구와 우수한 혁신 비즈니스에 투자</li> </ul>  |
|      | 미래 관객사업(Audience of the futur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의 강점 서비스산업인 창조서비스산업에서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같은 실감기술을 이용하여 엔터테인먼트와 공연예술 등에 접목한 서비스산업 지원 사업</li> <li>- 기업 컨소시엄 주도의 대규모 관객 대상인 실험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li> <li>- 고품격 콘텐츠를 싸고 신속하게 생산·개선할 수 있는 분야, 관객의 행동과 인식에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 새로운 것으로서 개인의 매력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li> </ul> |
| 싱가포르 | 선진 사이버 촉진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금융센터화와 주요 교역·물류센터화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li> </ul>  |
|      |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율을 32%에서 17%로 점차적으로 낮추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연성 제고에 초점</li> <li>- 세계 각국 인재들의 이주 장려를 통해 글로벌 인재풀 확보 강화 방안</li> <li>- 지속적 교육훈련체계를 감독하는 국가기구를 신설하고 재고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등 구조조정에도 적극 대응</li> </ul>   |

### 3. 국내 서비스산업 동향과 육성정책

#### 가. 국내 서비스산업 동향

##### (1)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최근 들어 정보통신(ICT) 발달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으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계가 갈수록 허물어지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스마트 자동차, 3D 프린팅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업의 소비에도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역영과 역할, 구조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제조의 융·복합 상품이 다양하게 출현되고 있고, 대부분의 IT기기는 상품의 제조·판매보다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는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단순 상품에 지나지 않았던 자동차, 항공, 선박, 대형 엔진, 주택 등에도 IT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제조업 수익모델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AS, 제품 유지·보수·관리 등을 포함한 제품과 결합된 서비스 분야로 확대·강화되면서 제품을 기반으로 하여 각종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업 가치사슬에 서비스의 역할이 새로 편입되거나 확대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상품의 제조·생산 과정보다는 기획 및 설계 단계, 판매, 사후 관리에서 부가가치가 더 많이 창출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어 이제는 서

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없이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조업 생산효율의 향상과 더불어 주요 서비스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제품의 출현,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기능과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서비스 시장규모의 확대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 시간의 증가 등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단순 소비가 아니라 ‘소비의 가치’에 비중을 둔 웰빙 관련 소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서비스 수요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스포츠·레저 관련 서비스와 고급관광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 추세에 있고, 여성의 고학력화가 진전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을 더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정에서 수행되던 가사의 일부를 아웃소싱으로 분담함에 따라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 경제성장의 역군에서 이제는 후선으로 퇴진한 베이비부머 세대나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문화와 레저, 교육, 헬스 등의 주요한 수요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계의 서비스부문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보건·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인구·사회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진전으로 서비스 수요가 다양화, 고도화 되면서 서비스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

부가가치형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 확보와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3) 서비스경제화

서비스경제화는 서비스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 등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 확대로 국가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산과 고용분야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서비스경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진행 정도가 미약한 상황이며, 2017년 기준으로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sup>1)</sup>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59.1%로 미국 79.5%, 영국 79.2%, 독일 68.1%, 일본 69.5%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 (4) 서비스산업 자체의 양극화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 등으로 서비스산업구조 자체가 커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나, 내부 업종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산성과 고용 비중 등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정보통신, 보험·금융, 사업서비스, 문화,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고용 비중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이와 반대로 음식·숙박업, 도소매, 운수·보관업 등으로 지칭되는 전통소비서비스산업은 낮은 생산성과 높은 고용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1)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관계부처 합동, 2019.6)

## (5) 서비스 교역 확대

교통, ICT기술 발전에 따른 네트워크의 확산, 양국 혹은 다자간 FTA 등 국제 무역협상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높은 내수의존도를 보였던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글로벌화 되고 있다. 앞으로도 선진국과의 FTA 뿐만 아니라 후발 개발도상국과의 FTA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FTA에는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회계, 법률 등 다양한 업종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포함되어 있어 서비스시장 개방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서비스경제화, 글로벌화 추세를 고려하면, 국가 간 서비스산업 교역량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글로벌 밸류체인에 따른 국제 분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조업 제품에 부가가치로 체화되어 복합무역을 통해 공급되면서 무수히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되어 감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지평은 더욱 넓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교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전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2012년 이후 서비스업의 해외투자규모가 제조업의 해외투자규모를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를 서비스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2017년 중 해외직접투자는 36.5조 원으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73.9%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물류업(보관·창고)에서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류의 확산에 따라 방송이나 영화·영상, 게임과 콘텐츠 분야 등의 해외시장 진출 또는 해외 투자도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비스 소비행태가 비대면(untact) 소비와 온라인 쇼핑 등으로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6) 서비스R&D 강화

일반적으로 서비스R&D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전달체계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반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재편됨에 따라, ICT를 비롯한 첨단기술 연계형 신서비스산업 창출과 고도화 촉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하나로 서비스R&D가 부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서비스R&D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맞춰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서비스R&D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부의 다양한 서비스산업 혁신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는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서비스R&D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R&D정책을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민간영역에서도 서비스R&D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이 저조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핵심기술을 토대로 하는 혁신적 신서비스 개발도 뒤처지는 양상에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미래성장동력으로 R&D기반의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서비스R&D의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미흡한 정부의 서비스R&D관련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시장 위주의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서비스R&D 혁신 사례 발굴을 위한 신서비스R&D 육성방안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 (7) 서비스 플랫폼화

스마트 플랫폼 전략(2012, 황병선)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이란 용어를 분류하면서 ICT 분야에서의 디지털 플랫폼에는 기술 플랫폼, 제품 플랫폼, 유통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결제 플랫폼 등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운영체제 하나 없는 페이스북이 다양한 서드파티를 이끌면서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사례를 만드는 ‘서비스 플랫폼’이 관심을 받고 있다. 광의적 의미의 서비스에는 인간이 주로 제공하는 유통, 컨설팅 등을 의미하지만, 서비스 플랫폼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디지털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 플랫폼의 시작은 먼저 소비자를 모으고 관심을 끄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핵심이고,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플랫폼화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플랫폼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을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숙박 중개서비스 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는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세계 최대 교통서비스 중개회사인 우버(Uber)의 경우도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에어비앤비와 우버처럼 숙박공간이나 운송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보유한 공급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중개하고 이를 토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적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중개역할을 하는 플랫폼 서비스모델은 확장성과 성장성이 아주 높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폭발성장이 가능했다. 위치기반 기술과 데이터 기술, 소셜 기능 등을 활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는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공한 기업은 시장을 선점하고 독점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8) 온디맨드 서비스 확산

최근 소비자의 요구나 주문에 따라 소비자가 희망하는 시점과 장소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 발전과 기술간 융·복합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주로 자동차, 숙박시설 등의 재화를 공유하는 공유경제서비스 모델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수요 맞춤형 서비스 공급을 추구하는 온디맨드 서비스형태로 발전하였다. 아울러, 모바일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으로 관리, 거래비용이 감소되면서 시장의 중심이 모바일 기반의 온디맨드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온디맨드 서비스의 정확한 경제규모는 산출되고 있지는 않으나 연구자의 산정방법에 따라 시장경제 규모가 수 조원에서 수 십 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 나. 국내 서비스산업 현황

#### (1) 서비스산업 GDP 규모

명목GDP를 기준(201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2-6>과 같이 국내 서비스산업 비중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반적으로 60% 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규모는 2010년 723조 4466억 원, 2018년은 1.5배가량 커진 1,049조 8,647억 원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연평균성장률은 4.22%이다. 반면, 제조업은 2010년 362조 9,082억 원(30.2%)에서 2018년은 약 1.4배 증가한 504조 6,070억 원(29.2%)으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은 서비스산업과 비슷하다.

<표 2-6> 국내 서비스산업의 명목GDP 규모 및 비중

(단위: 십억 원,%)

| 구분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
| 제조업   | 362,908<br>(30.2)    | 400,810<br>(30.5)    | 422,654<br>(29.5)    | 458,831<br>(28.8)    | 504,607<br>(29.2)    |
| 기 타   | 116,681<br>(9.7)     | 122,251<br>(9.3)     | 142,319<br>(9.9)     | 170,580<br>(10.7)    | 175,946<br>(10.2)    |
| 서비스산업 | 723,447<br>(60.1)    | 793,116<br>(60.3)    | 869,692<br>(60.6)    | 963,672<br>(60.5)    | 1,049,865<br>(60.7)  |
| 전체산업  | 1,203,036<br>(100.0) | 1,316,177<br>(100.0) | 1,434,665<br>(100.0) | 1,593,083<br>(100.0) | 1,730,418<br>(100.0) |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2)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국내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표 2-7>과 같이 2010년 2,915천 개사(86.9%)에서 2018년에는 3,515천 개사(85.6%)로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약 1.2배 증가했다. <표 2-3>의 Singelmann의 서비스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유형별 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는 대체로 개인서비스가 가장 많았으며,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순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2018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는 개인서비스가 1,497천 개사(36.5%)로 가장 많고, 유통서비스 1,427천 개사(34.8%), 생산자서비스 430천 개사(10.5%), 사회서비스 160천 개사(3.9%) 순이다.

2010년~2018년 사업체 수 기준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연평균성장률은 2.37%이며, 생산자서비스가 4.69%로 가장 높고 사회서비스 3.66%, 유통서비스 1.97%, 개인서비스 2.02%로 나타나고 있다.

<표 2-7> 서비스산업 유형별 사업체 수

(단위: 천개 사)

| 구 분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
| 유통서비스  | 1,221            | 1,304            | 1,373            | 1,403            | 1,427            |
| 생산자서비스 | 298              | 336              | 372              | 399              | 430              |
| 사회서비스  | 120              | 135              | 146              | 154              | 160              |
| 개인서비스  | 1,275            | 1,340            | 1,376            | 1,418            | 1,497            |
| 서비스산업  | 2,915<br>(86.9)  | 3,114<br>(86.4)  | 3,267<br>(85.7)  | 3,375<br>(85.4)  | 3,515<br>(85.6)  |
| 전체 산업  | 3,355<br>(100.0) | 3,602<br>(100.0) | 3,813<br>(100.0) | 3,950<br>(100.0) | 4,103<br>(100.0) |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3)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국내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2010년에 12,950천 명(73.4%)에서 2018년에는 약 1.3배 증가한 16,524천 명(74.3%)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6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유형별 서비스산업의 종사자 수는 사업체 수와 마찬가지로 개인서비스가 가장 많았고,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순을 보이고 있다.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2018년 기준, 개인서비스가 5,398천 명(24.3%), 유통서비스 4,396천 명(19.8%), 생산자서비스 4,092천 명(18.4%), 사회서비스 2,636천 명(11.9%) 순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2018년 종사자 수 기준, 국내 서비스산업의 연평균성장률은 3.09%

이며 사회서비스가 5.1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생산자서비스 3.14%, 개인서비스 2.63%, 유통서비스 2.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서비스산업 유형별 종사자 수**

(단위: 천 명)

| 구 분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
| 유통서비스  | 3,607             | 3,794             | 4,056             | 4,252             | 4,396             |
| 생산자서비스 | 3,195             | 3,342             | 3,635             | 3,950             | 4,092             |
| 사회서비스  | 1,760             | 1,899             | 2,115             | 2,365             | 2,636             |
| 개인서비스  | 4,386             | 4,657             | 4,899             | 5,084             | 5,398             |
| 서비스산업  | 12,950<br>(73.4)  | 13,694<br>(73.7)  | 14,706<br>(73.9)  | 15,653<br>(73.6)  | 16,524<br>(74.3)  |
| 전체 산업  | 17,646<br>(100.0) | 18,569<br>(100.0) | 19,899<br>(100.0) | 21,259<br>(100.0) | 22,234<br>(100.0) |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다. 중앙정부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서비스경제화 추세에 힘입어 서비스산업의 기능과 역할,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표 2-9>와 같이 서비스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수행해 오고 있다.

<표 2-9> 중앙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연도별  | 정책명              | 중점 추진과제  |
|------|------------------|--|
| 2006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범부처 종합 대책</li> <li>•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추진</li> <li>• 관광·레저·콘텐츠 등 21개 서비스업종의 육성</li> <li>• 서비스수지 적자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 제시</li> </ul>  |
| 2007 |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요소로서의 지식의 활용을 지식서비스산업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판단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을 수립</li> <li>• 지식서비스 및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념 도입</li> <li>• 11개 유망 지식서비스업종 선정 및 육성전략 제시</li> </ul>  |
| 2010 | 서비스R&D 활성화 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서비스R&amp;D 활성화 방안</li> <li>• 서비스R&amp;D 개념 정립과 서비스R&amp;D 지원체계 구축 방안 제시</li> <li>• 서비스 혁신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첫 번째 시도</li> </ul>  |
| 2012 |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계획</li> <li>• 중점 추진과제로 ① 기존의 추진 정책과제 마무리 ② 생산성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③ 일자리 창출효과가 강한 서비스산업의 육성 ④ 서비스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li> <li>•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제시</li> <li>• 경제적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영역별 정책 과제 제시</li> </ul> |
| 2012 | 서비스R&D 추진 종합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차원의 서비스R&amp;D 추진방향 제시</li> <li>• 서비스R&amp;D 비전과 정책목표, 4대 추진전략 마련</li> <li>• 서비스R&amp;D 분류 및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li> </ul>  |
| 2012 |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전략</li> <li>•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수요기</li> </ul>  |

|      |                     |  |
|------|---------------------|--|
|      | 전략                  | 반 강화와 공급역량 강화, 산업기반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
| 2013 |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방향 및 대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정책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설정</li> <li>•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산업현장 애로해소방안 제시</li> <li>•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을 위해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 확충, 현장애로 해결, 갈등과제 검토 등 4대원칙 제시</li> </ul>   |
| 2014 | 유망서비스 산업 투자 활성화대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및 정책과제 제시</li> <li>• 관광, 콘텐츠, 교육, 보건·의료,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선정</li> </ul>   |
| 2016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경제화의 급속한 진행추세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화 추구를 위해 수립한 전략</li> <li>• 서비스경제 수준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제조업의 융합화,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의 3대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제시</li> </ul>  |
| 2018 | 서비스R&D 추진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분야별 대책을 통해 가시적으로 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추진방향을 제시</li> <li>• 서비스분야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정책</li> <li>• 서비스R&amp;D 효과성 제고와 상용화·사업화를 촉진</li> <li>• 서비스산업 분야별 혁신전략 및 추진과제 제시</li> </ul>   |
| 2019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을 구성하는 하위 업종은 복잡·다양화되어 있고, 제조업과는 달리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li> <li>• 4대전략을 통해 서비스 산업전반의 지원체계를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li> <li>② 서비스산업의 기초인프라 구축</li> <li>③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복합 촉진</li> <li>④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화</li> </ul> </li> </ul> |

## 라. 주요 지자체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융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육성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표 2-10>은 주요 지자체들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표 2-10> 주요 지자체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국가   | 정책명                          | 중점 추진과제   |
|------|------------------------------|---|
| 경기도  |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2013) | - 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
|      | 경기도 서비스산업발전 위원회 운영(2014)     | - 경기도 서비스산업에 주요한 정책의 심의·의결기능을 수행<br>- 2017년 구성된 제2기는 SW·금융·지식서비스, 관광·콘텐츠·물류, 보건·의료·교육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   |
|      |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2014)    | -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수립한 중장기계획으로서 경기도 내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제시<br>- 광역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 및 보건서비스, 문화콘텐츠, 사회서비스업, 관광·레저, 비즈니스서비스업 등 5대 서비스산업의 특화 육성방향 제시                 |
| 전라북도 |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육성계획(2010)        |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br>-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설정<br>- 서비스산업 구조 고도화,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제조업과 연계강화, 선별적 지원 및 육성, 생계형 서비스 기반지원 및 강화, 규제완화 및 산업의 위축방지 등을 위한 전략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 육성분야로 사회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서비스를 선정하고, 단기적 육성과제로 14개의 세부추진과제 제시</li> </ul>   |
|       | 전라북도 특화형서비스 육성 계획(20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화형 서비스업을 지역자원으로 활용, 지역산업과의 연계, 미래지향적으로 육성 가능한 산업으로 정의</li> <li>- 전문가 대상으로 AHP 조사결과와 고용효과, 수요 창출, 비교우위, 산업연관효과 등의 정량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10개의 업종을 선정</li> </ul>   |
| 충청북도  | 충청북도 서비스R&D 투자 전략(2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격적인 서비스R&amp;D 추진을 위한 기반 확보 전략</li> <li>- 각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매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정부R&amp;D 투자방향, R&amp;D 예산 배분·조정 에 반영하기 위해 수립</li> <li>- 정책목표는 서비스R&amp;D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지속적 서비스R&amp;D 추진기반 구축, 국민의 삶·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설정</li> <li>- 주요 추진과제로 서비스R&amp;D 추진기반 확보, 서비스R&amp;D 정착·확산, 성과창출형 R&amp;D 추진을 제시</li> </ul> |
|       | 충북의 서비스산업 현황과 특화 발전 방향(20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서비스산업분야의 시계열 분석과 세부업종별 분석을 통한 지역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도출</li> <li>- 글로벌 서비스산업 동향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현황 등을 토대로 충북형 특화서비스업으로 2개 분야 4개 산업을 선정·제시</li> <li>- 서비스조례 제정을 통한 거버넌스와 통합육성방안 등의 체계화, 특화서비스업을 토대로 하는 시·군·구의 특화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제시</li> </ul>  |
| 대전광역시 | 대전 지식서비스산업 육성방향과 전략(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전략</li> <li>-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시장 확산, IT 융합 활성화를 통한 지식서비스 수요 창출과 지식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과학벨트 연계 활성화, 통계·정보·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전략으로 설정</li> </ul>  |
|       | 대전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의 서비스 산업을 교육·의료·법률·회계·경영컨설팅,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물류·유통서비스,</li> </ul>  |

|                |                                |   |
|----------------|--------------------------------|---|
|                | <p>력 제고 방안<br/>(2016)</p>      | <p>관광·MICE·영상산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제시<br/>- 정책방안은 ① 다양한 유망산업과 복합서비스산업클러스터를 육성 ② 세종·충남북지역의 주요 산업들과의 산업연계성과 상호 보완성을 강화 ③ 대규모 서비스기업을 유치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체와의 동반성장체계 강화를 제시</p> |
|                | <p>대전 서비스산업 구조고도화 방안(2018)</p> | <p>-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 육성방안<br/>- 제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제조업 생산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는 방안 제시</p>                                 |
| <p>세종특별자치시</p> | <p>세종시 서비스산업 종합발전 계획(2017)</p> | <p>- 세종시 서비스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br/>- 세종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전략별 세부실행계획을 도출하여 향후 세종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방향 제시</p>                              |

## 마. 부산의 서비스산업 현황 및 육성정책

### (1) 부산 서비스산업 현황

2018년 통계청 공시기준으로 볼 때,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의 서비스산업 지역내총생산(GRDP)은 61조 2천억 원으로 전국의 5.73%를 차지하고 있고, 2010년부터 서울, 경기 다음으로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018년 기준, 약 249천여 개로 전국 비중은 7.09%를 차지하면서 서울, 경기도에 이어 3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약 111만 7천여 명으로 전국의 6.77%를 차지하면서 이 또한 서울, 경기 다음으로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의 서비스산업은 GRDP 및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의 항목에서 모두 서울, 경기도에 이어서 3위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전국 서비스산업 GRDP·사업체수·종사자수 규모(2018년 기준)

| 구분 | GRDP                 |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
|    | 규모(십억 원)             | 순위 | 규모(천개 사)         | 순위 | 규모(천명)            | 순위 |
| 전국 | 1,067,480<br>(100.0) | -  | 3,515<br>(100.0) | -  | 16,524<br>(100.0) | -  |
| 서울 | 353,934<br>(33.16)   | 1  | 742<br>(21.12)   | 2  | 4,558<br>(27.59)  | 1  |
| 부산 | 61,201<br>(5.73)     | 3  | 249<br>(7.09)    | 3  | 1,117<br>(6.77)   | 3  |
| 대구 | 37,791<br>(3.54)     | 7  | 176<br>(5.03)    | 6  | 727<br>(4.40)     | 6  |
| 인천 | 49,869<br>(4.67)     | 5  | 170<br>(4.86)    | 7  | 763<br>(4.62)     | 5  |
| 광주 | 24,700<br>(2.31)     | 14 | 105<br>(2.98)    | 14 | 470<br>(2.85)     | 13 |
| 대전 | 30,111<br>(2.82)     | 10 | 106<br>(2.99)    | 13 | 513<br>(3.11)     | 11 |
| 울산 | 18,770<br>(1.76)     | 15 | 75<br>(2.13)     | 15 | 311<br>(1.89)     | 15 |
| 세종 | 6,010<br>(0.56)      | 17 | 14<br>(0.40)     | 17 | 88<br>(0.53)      | 17 |
| 경기 | 232,456<br>(21.78)   | 2  | 744<br>(21.20)   | 1  | 3,557<br>(21.53)  | 2  |
| 강원 | 31,189<br>(2.92)     | 9  | 127<br>(3.62)    | 11 | 511<br>(3.09)     | 12 |
| 충북 | 25,788<br>(2.42)     | 13 | 110<br>(3.14)    | 12 | 450<br>(2.73)     | 14 |
| 충남 | 33,732<br>(3.16)     | 8  | 146<br>(4.16)    | 8  | 568<br>(3.44)     | 8  |
| 전북 | 27,353<br>(2.56)     | 12 | 131<br>(3.74)    | 10 | 523<br>(3.17)     | 10 |
| 전남 | 30,025<br>(2.81)     | 11 | 133<br>(3.80)    | 9  | 526<br>(3.19)     | 9  |
| 경북 | 41,073<br>(3.85)     | 6  | 191<br>(5.46)    | 5  | 707<br>(4.28)     | 7  |
| 경남 | 49,966<br>(4.68)     | 4  | 233<br>(6.65)    | 4  | 887<br>(5.37)     | 4  |
| 제주 | 13,506<br>(1.27)     | 16 | 57<br>(1.63)     | 16 | 239<br>(1.46)     | 16 |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가) 부산 서비스산업 GRDP 비중

부산 서비스산업의 명목 GRDP(2015년 국민계정 기준)는 2010년 44.9조 원에서 2018년 61.2조 원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부산 서비스산업의 GRDP 비중을 Singelmann의 분류체계에 따른 서비스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2018년 기준, 생산자서비스가 23.9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산업 중 부산 서비스산업의 GRDP 비중은 2010년 72.9%에서 2018년에는 1.0%p 증가한 73.9%이며, 2018년 기준으로 유형별 서비스산업의 전체산업 대비 비중은 생산자서비스 28.9%, 유통서비스 16.6%, 사회서비스 14.6%, 개인서비스 13.7% 순으로서 2010년에 비해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유통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감소했다.

<표 2-12> 부산 서비스산업 유형별 GRDP 규모 및 비중

(단위 : 십억 원, %)

| 구 분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
| 유통서비스  | 12,869<br>(20.9) | 12,753<br>(19.4) | 13,186<br>(18.4) | 13,654<br>(17.3) | 13,766<br>(16.6) |
| 생산자서비스 | 16,516<br>(26.8) | 17,728<br>(26.9) | 19,919<br>(27.7) | 21,886<br>(27.7) | 23,932<br>(28.9) |
| 사회서비스  | 6,754<br>(11.0)  | 7,917<br>(12.0)  | 9,023<br>(12.6)  | 10,407<br>(13.2) | 12,138<br>(14.6) |
| 개인서비스  | 8,800<br>(14.3)  | 9,507<br>(14.5)  | 10,112<br>(14.1) | 10,775<br>(13.6) | 11,365<br>(13.7) |
| 서비스산업  | 44,939<br>(72.9) | 47,905<br>(72.8) | 52,240<br>(72.8) | 56,723<br>(71.7) | 61,201<br>(73.9) |
| 전체산업   | 61,677<br>(100)  | 65,784<br>(100)  | 71,799<br>(100)  | 79,118<br>(100)  | 82,859<br>(100)  |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나)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부산 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2010년 226,623개사(87.2%)에서 2018년 249,040개사(86.2%)로 약 1.1배 증가하였다. 유형별 서비스산업 사업체수는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순으로 규모가 컸다. 2018년 기준, 사업체수는 유통서비스가 107,461개사(37.2%)로 가장 많았고, 개인서비스 102,036개사(35.3%), 생산자서비스 29,589개사(10.2%), 사회서비스 9,954개사(3.4%) 순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 연평균성장률은 1.19%이며, 각 유형별로는 생산자서비스 4.58%, 사회서비스 3.35%, 개인서비스 0.81%, 유통서비스 0.57% 순이다.

<표 2-13> 부산 서비스산업 유형별 사업체 수 및 비중

(단위 : 개사, %)

| 구 분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
| 유통서비스  | 102,661<br>(39.5) | 105,630<br>(39.1) | 107,663<br>(38.8) | 108,121<br>(38.1) | 107,461<br>(37.2) |
| 생산자서비스 | 20,675<br>(8.0)   | 23,081<br>(8.5)   | 25,364<br>(9.1)   | 27,586<br>(9.7)   | 29,589<br>(10.2)  |
| 사회서비스  | 7,650<br>(2.9)    | 8,243<br>(3.1)    | 8,876<br>(3.2)    | 9,469<br>(3.3)    | 9,954<br>(3.4)    |
| 개인서비스  | 95,637<br>(36.8)  | 97,020<br>(35.9)  | 97,343<br>(35.1)  | 98,276<br>(34.7)  | 102,036<br>(35.3) |
| 서비스산업  | 226,623<br>(87.2) | 233,974<br>(86.6) | 239,246<br>(86.1) | 243,452<br>(85.9) | 249,040<br>(86.2) |
| 전체산업   | 259,972<br>(100)  | 270,058<br>(100)  | 277,713<br>(100)  | 283,554<br>(100)  | 288,860<br>(100)  |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다)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부산 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2010년 932천 명(77.3%)이었고, 2018년에는 약 1.2배 증가한 1,118천 명(77.5%)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서비스산업의 종사자 수는 개인서비스와 유통서비스가 전체 서비스산업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유형별 종사자 수는 개인서비스가 358천 명(24.9%)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유통서비스 343천 명(23.8%), 생산자서비스 233천 명(16.2%), 사회서비스 182천 명(12.6%) 순으로 많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서비스산업의 종사자 수 연평균성장률은 2.3%이며, 사회서비스 4.96%, 생산자서비스 2.60%, 개인서비스 1.88%, 유통서비스 1.34%이다.

<표 2-14> 부산 서비스산업 유형별 종사자 수 및 비중

(단위 : 천명, %)

| 구 분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
| 유통서비스  | 309<br>(25.6)  | 320<br>(25.1)  | 331<br>(25.0)   | 339<br>(24.1)   | 343<br>(23.8)   |
| 생산자서비스 | 190<br>(15.8)  | 206<br>(16.2)  | 213<br>(16.1)   | 230<br>(16.3)   | 233<br>(16.2)   |
| 사회서비스  | 124<br>(10.3)  | 132<br>(10.4)  | 145<br>(11.0)   | 165<br>(11.8)   | 182<br>(12.6)   |
| 개인서비스  | 309<br>(25.7)  | 325<br>(25.5)  | 336<br>(25.4)   | 346<br>(24.6)   | 358<br>(24.9)   |
| 서비스산업  | 932<br>(77.3)  | 984<br>(77.1)  | 1,026<br>(77.4) | 1,081<br>(76.8) | 1,118<br>(77.5) |
| 전체산업   | 1,205<br>(100) | 1,275<br>(100) | 1,325<br>(100)  | 1,408<br>(100)  | 1,442<br>(100)  |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라) 서비스산업 규모 및 생산성 등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총조사(2015)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2-15>와 같이 부산 서비스산업의 업체당 매출액은 7.6억 원으로 전국 평균 9.4억 원의 81% 수준에 불과하고, 업체당 종사자수는 4.4명으로 전국평균 4.6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산 서비스산업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1.74억 원으로 전국 평균 2.02억 원의 86% 수준이고,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은 12.3억 원으로 전국 12.5억 원에 못 미치는 등 부산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국평균에 비해 다소 저조한 편이다.

부산 서비스산업 업체당 급여총액은 0.97억 원으로 전국 평균 1.11억 원의 88% 수준이고, 업체당 경상연구개발비는 2.0백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백만 원의 47%에 그치는 등 임금수준이 다소 저조하고 R&D투자는 지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표 2-15> 부산 서비스산업 매출액 및 R&D투자 등

| 구 분            | 업체당<br>매출액<br>(억 원) | 업체당<br>종사자수<br>(명) | 종사자<br>1인당<br>매출액<br>(억 원) | 종사자<br>1인당<br>영업이익<br>(억 원) | 업체당<br>급여총액<br>(억 원) | 업체당<br>경상연구<br>개발비<br>(백만 원) |
|----------------|---------------------|--------------------|----------------------------|-----------------------------|----------------------|------------------------------|
| 전 국<br>평 균     | 9.4                 | 4.6                | 2.02                       | 12.5                        | 1.11                 | 4.2                          |
| 부 산<br>평 균     | 7.6                 | 4.4                | 1.74                       | 12.3                        | 0.97                 | 2.0                          |
| 전국 평균<br>대비 비율 | 81%                 | 94%                | 86%                        | 99%                         | 88%                  | 47%                          |

주: 통계청 경제총조사(2015)

## (2) 부산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가) 부산지역 서비스사업의 신성장동력화 방안(2009)

이 방안의 주요 특징은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을 17개로 구분하고 시계열 분석과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지역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을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발굴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방안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방안의 목표는 부산을 동남권 서비스산업 중심도시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설정하고,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① 동남권 시장 기반 확충으로 동남권 서비스 중심기능 확보 ② 융·복합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③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고급인력 양성, 창업지원 강화 ④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수출 동력화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제시했다.

### (나) 2020 부산 서비스산업 육성계획(2015)

부산의 서비스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경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동 육성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지역의 서비스산업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업 부가가치를 2016년 31%에서 2022년 35%로 높이고,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서비스기업을 2018년 18개에서 2022년 25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서비스산업 중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8대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8대 전략산업은 의료, 영상콘텐츠, ICT, 금융, 관광MICE, 물류, 디자인, 비즈니스서비스로 선정하고, 4대 추진전략으로는 발전기반 구축, 동남권 중추기능 강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신 서비스산업 발굴 등이다.

#### (다) 부산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방향과 과제(2016)

민선 6기를 맞아 부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차원에서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인 서비스금융과를 신설하고,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자 동 방향과 과제를 수립하였다. 60여개 이상의 국내외 선행연구와 중앙정부, 지자체 정책 자료와 전문가에 대한 현장 인터뷰 등을 토대로 비즈니스서비스사업의 후보사업 127개를 발굴한 후 IPA 분석과 AHP분석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20개 사업을 확정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장기적으로 부산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7대 구축 사업도 함께 설정하였다.

#### (라)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제정(2018)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를 2018년 1월 제정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조례에서는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과 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추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크게 3가지 사항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산·학·연·관·민의 총 15명으로 서비

스산업발전위원회의를 구성(2020.1)하였고, 제1차 부산 서비스산업 육성 5  
개년 기본계획을 수립(2020.6) 하였다.

#### (마) 부산 서비스산업 활성화방안(2018)

부산시는 2018년 11월, 부산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서비스산업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부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  
다. 주요 내용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서비스R&D의 도입 및  
확대·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바) 부산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 구성·운영(2020)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주요 서비스산업 분야별로 전문가  
를 추천받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정책과제 도출과 다양한 전략을  
심의할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상정안건을 의결하는 부산시 서  
비스산업분야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 (사) 제1차 부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2020)

이 기본계획은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 발굴,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한 특화업종을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  
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월 제정된 「부산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를 두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산업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사례분석, 정책과제 개발 등을 포함한 로드맵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에 따라 부산만의 특화된 중·장기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시책 발굴 등을 통해 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4. 선행연구

### 가. 주요 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왔다고 볼 수 있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0년 이후로서, 산업구조 고도화 필요성 대두와 함께 제조업 성장의 정체화로 고용이 위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이 추진되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 2-16>과 같이 크게 3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 서비스산업 분류에 따른 연구, 둘째, 서비스산업 유형에 따른 연구, 셋째, 서비스산업 분석 방법에 따른 연구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산업 분류에 따른 연구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전통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하고, 서비스산업 유형에 따른 연구는 Singelmann(1978)이 분류한 것처럼 유통서비스산업, 생산자서비스산업, 사회서비스산업, 개인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하며,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분석방법에 따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 특화도분석, 변이할당분석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다.

<표 2-16> 서비스산업 구분에 따른 선행연구 구분

| 구분                   | 서비스산업의 구분                              |
|----------------------|--|
| 서비스산업<br>분류에 따른 연구   | 지식서비스산업, 비즈니스서비스산업,<br>전통서비스산업         |
| 서비스산업<br>유형에 따른 연구   | 유통서비스산업, 생산자서비스산업,<br>사회서비스산업, 개인서비스산업 |
| 서비스산업<br>분석방법에 따른 연구 | 산업연관분석, 특화도분석, 변이할당분석                  |

나. 선행연구 검토

(1) 서비스산업 분류에 따른 연구

<표 2-17> 서비스산업 분류에 따른 선행연구

| 분류                | 연구자                                       | 주요 내용  |
|-------------------|---|--|
| 지식<br>서비스<br>산업   | 장병열 외<br>(2009)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R&D 특징 정립과 정책<br>방향, 서비스 R&D 전략 제시 |
|                   | 이동희 외<br>(2013)                           | 지식집약서비스업의 입지패턴과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br>적 시사점 제시            |
|                   | Mas-Verdu,<br>Ribeiro and<br>Dobón (2010) | 지식기반 경제상황에서 지식집약적 생산시스템 구축과 서비스<br>분야의 강도 높은 혁신 필요성 제시 |
| 비즈니스<br>서비스<br>산업 | 김종욱 외<br>(2013)                           | 부산지역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을 위한 정책 방향<br>성 제시                 |
|                   | 김종욱 외<br>(2016)                           |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부산시 서비스산업 육<br>성정책 방향과 과제 제시         |
| 전통<br>소비자<br>서비스업 | 박정수 외(2014)                               | 서비스산업 고용변동 요인 분석과 일자리 창출전략 제시                          |
|                   | 강봉준 외(2014)                               | 충남지역 서비스산업 정책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장병열 외(2009)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R&D 전략 도출을 위해 전국 10인 이상의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FGI를 통해 업종별 서비스R&D 특징 정립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동희(2013)는 국내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 수준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국가적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 등 높은 생산성·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큰 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이 분야의 경제 내 비중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Mas-Verdu et al.(2010)은 지식기반 경제상황에서 선진국경제로 갈수록 기존 경제 성장에 절대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조업(생산적 부분)과 서비스업의 긴밀성이 높아지게 되고 생산시스템이 많은 부분 수정해야 하므로 보다 지식 집약적 생산시스템이 선택되어야 하고 재화와 서비스에서의 강도 높은 혁신이 요구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부산발전연구원 김종욱 외(2013)는 부산지역의 비즈니스서비스업 실태와 경쟁력을 분석하여 부산시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육성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종욱 외(2016)는 부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비즈니스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자 60여개 이상의 국내외 선행연구와 중앙정부, 지자체 정책자료 및 전문가에 대한 현장 인터뷰 등을 토대로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후보사업 127개를 발굴한 후 IPA분석과 AHP 분석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20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박정수 외(2013)는 산업연관표와 고용변동요인 분해모형을 이용하여 서비스산업의 고용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했다. 강봉준 외(2014)는 충청권 지역의 서비스산업의 문제점과 고도화가 필요함에도 충청권 주력산업 육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비스업 육성과 활성화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2) 서비스산업 유형에 따른 연구

<표 2-18> 서비스산업 유형에 따른 선행연구

| 분류     | 연구자        | 주요 내용   |
|--------|------------|---|
| 유통서비스  | 지귀정 (2012) | 유통업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직무성과와의 관계분석 및 고객서비스 제공 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제시 |
|        | 정경선 (2013) | 물류기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 체계와 기업 전반 성과의 비교·분석                 |
|        | 정운석 (2012) | 유통산업분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 필요성 제시                |
| 생산자서비스 | 금성근 (2008) | 생산자서비스업의 권역별 입지요인과 기업 활동의 관계 분석                     |
|        | 홍성수 (2011) | 금융서비스 품질이 마케팅 및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 김수은 (2012) | 생산자서비스분야 서비스무역이 총요소 생산성과 실질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사회서비스  | 강혜규 (2007) | 사회서비스산업의 고용 잠재력 분석 및 서비스 확충 방향성 제시                  |
|        | 강형욱 (2011) |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 변화양상과 개선 방안, 발전전략 제시                |
|        | 박경아 (2013) | 의료서비스의 감성만족요소와 고객접점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 개인서비스  | 김건수 (2012) | MICE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        | 박현숙 (2012) |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호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상품개발 필요성 제시         |
|        | 김명희 (2014) |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활성화정책 필요성 제시                    |

지귀정(2012)은 유통서비스 종사원들의 감정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영향의 요인을 분석하고 감정노동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직무성과관리와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정경선(2013)은 국내·외 물류기업의 사업 종류와 형태, 성과의 비교,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의 새로운 서비스사업 현황 분석과

신서비스 개발과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정윤석(2012)은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유통업체들에게 상호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되,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을 일부 제한하는 것 보다는 대형 유통업체의 경영방식과 유통 경험, 상품 판매 및 마케팅 전략 등을 중소 상공인들에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성근(2008)은 생산자서비스는 기업이나 조직 활동에서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입지요인이 기업과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분석하였다. 홍성수(2011)는 우리나라의 은행권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일반적 서비스 품질에 사회적 책임품질이라는 새로운 품질 개념을 추가하여, 마케팅과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제시했고, 김수은(2012)은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서비스산업이나 전 산업 평균 및 제조업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분석했다.

강혜규(2007)는 고용 없는 성장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현상으로 대두되자 사회서비스는 고용 잠재력이 높은 중요한 산업으로서 고용정책의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강형욱(2011)은 의료서비스 산업 효율성의 국가적 비교를 위한 계량적 지표를 마련하고 국가들 간의 효율성을 비교·조사하여 우리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강점, 약점을 확인하고 의료서비스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박경아(2013)는 의료서비스의 감성만족요소와 고객접점 분석 결과를 의료서비스 디자인의 영역과 의료서비스 환경에 적용하여 감성디자인을 통해 고객 접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김건수(2012)는 컨벤션산업 활성화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기본 연구를 수행하여 현행 우리나라 MICE산업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MICE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주장하고, 법률 제정 기초자료, 「회

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박현숙(2012)은 관광분야 근무 종사자들의 의료관광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증가추세에 있는 “메디텔”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분야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호텔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으로써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명희(2014)는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인 의료관광 산업은 개인의 소득증대와 기업의 이익창출을 유발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가에 지대한 도움이 되어 의료관광 산업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임을 확인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3) 서비스산업 분석방법에 따른 연구

<표 2-19> 서비스산업 분석방법에 따른 선행연구

| 분류     | 연구자          | 주요 내용   |
|--------|--------------|---|
| 산업연관분석 | 박정일 외 (2011) | 산업연관분석을 활용, 생산유발효과·기업 활동 현황·취업구조를 고려한 시사점 제시      |
|        | 김방룡 외 (2014) |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영향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        | 현민철 외 (2016) |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지식집약비즈니스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산업연관효과에 대해 분석    |
|        | 설명훈 (2017)   | 충북지역의 ICT산업 현황과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ICT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   |
| 특화도분석  | 이상민 외 (2014) | 관광산업의 지역특화와 성장 특성 비교분석을 통해 지자체 관광정책 방향성 제시        |

|        |                 |   |
|--------|-----------------|---|
|        | 양인선 외<br>(2015) | 경남 18개 시·군의 서비스산업의 구조와 특성 분석을 통한 발전대책 수립 필요성 제시 |
|        | 임상수 외<br>(2019) | 광주·전남지역의 지방재정 투입 서비스업종과 발전방안 제시                 |
| 변이할당분석 | 김성록 외<br>(2014) |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한 충남 금강권지역의 산업구조 특성 분석·제시             |
|        | 모수원 외<br>(2016) | 부산과 경남의 서비스산업의 상호보완관계 입증 및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
|        | 이영우<br>(2019)   | 대전지역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성장효과 분석을 통해 산업구조적 의미 제시 |

박정일 외(2011)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를 고려한 서비스업, 기업 활동 현황을 고려한 서비스업, 취업구조분석을 통한 서비스업으로 서비스업을 분류하고 각각의 서비스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고, 김방룡 외(2014)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현민철 외(2016)는 산업연관분석을 토대로 지식집약비즈니스서비스에 대한 각 지역별로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였고, 설명훈(2017)은 ICT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충청북도에 대한 ICT산업 현황 정리와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ICT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민 외(2014)는 입지계수분석과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하여 16개 광역지자체의 관광산업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출액과 종사자수를 변수로 사용하여 관광산업의 지역특성을 분석하였다. 양인선 외(2015)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경남 18개 시·군에 대한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와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입지계수, 성장률 시차분석을 통해 경남지

역 서비스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산업 발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임상수 외(2019)는 서비스 업종 중 광주, 전남지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요하는 업종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이 업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광주와 전남지역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성록 외(2014)는 충청남도 금강권 산업구조 특성을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금강권이 국가성장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임을 제시하였다. 모수원 외(2016)는 입지계수기법과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하여 부산산업의 정체 원인을 분석하여 부산과 경남의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밝혔고, 이영우(2019)는 대전의 성장효과분석을 수행하여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총변화효과, 전국성장효과, 지역할당효과, 산업구조효과, 순상대변화효과를 분석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이 안고 있는 산업구조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 라. 소결

이상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지식서비스 또는 비즈니스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일부분을 주로 수행하였고, 관광, 의료, 물류, 정보통신 등 서비스의 특정 분야를 주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특정 지역의 전체 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지역산업연관표 활용한 지역 전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순이입효과를 분석한 연구사례는 없었다.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의 지역산업연관분석, 특화도(LQ분석), 성장도(변이할당분석), SWOT분석 등 다양한 분석틀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 Ⅲ. 부산 서비스산업 실증분석

#### 1. 부산 서비스산업 특화도 분석(LQ분석)

본 절에서는 특정지역의 활성화된 산업에 대한 특화도를 측정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는 입지계수 분석을 통해 부산 서비스산업의 전국 대비 특화도(집중도)를 분석한다. 이 입지계수분석은 부산지역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도 여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할 수 있다.

##### 가. 분석방법

###### (1) 분석방법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는 어느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산업 대비 상대적인 집중도나 특화도를 측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이를 통해 특정산업이 지역에서 기반산업(basic industry)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모수원 외, 2016). 입지계수는 지역산업 투입구조와 전국산업의 투입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정지역 특정산업의 상대적 과급효과를 측정한다(정은성 외, 2013).

이 입지계수는 계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값을 기준으로 해당 산업의 특화의 정도를 해석하게 되는데, 산출된 값이 1보다 클 경우 해당 산업의 특화 정도는 높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산출된 값이 1보다 작으면 해당 산업은

전국에 비해 특화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입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이 타 지역에 대비하여 특화도가 낮아 비(非)기반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입지계수가 1보다 클 경우,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을 기반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급자족 비율”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Miller et al, 1991; 모수원 외, 2016).

입지계수를 구하는 산식은 아래의 (1)과 같다.

$$LQ_{ij} = \frac{Q_{ij}/Q_j}{Q_{in}/Q_n} \quad (1)$$

$LQ_{ij}$  :  $j$ 지역에서  $i$ 산업의 입지계수  
 $Q_{ij}$  :  $j$ 지역에서  $i$ 산업의  $GRDP$ , 종사자수, 사업체수  
 $Q_j$  :  $j$ 지역 전체산업의  $GRDP$ , 종사자수, 사업체수  
 $Q_{in}$  : 전국  $i$ 산업의  $GRDP$ , 종사자수, 사업체수  
 $Q_n$  : 전국 전체산업의  $GRDP$ , 종사자수, 사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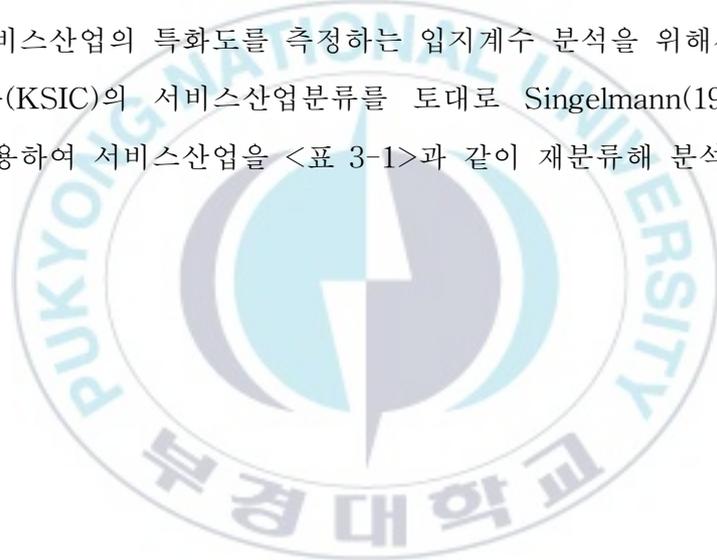
## (2) 서비스산업 재분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사업체 단위나 기업체 단위 등 각각의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질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이는 통계법을 근거로 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UN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이다. 분류구조는 대분류(숫자 1자리, 영문대문자), 중분류(숫자 2자리), 소분류(숫자 3자리), 세분류(숫자 4자리), 세세분류(숫자 5자리) 등 5단계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산업을 대분류 21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분<sup>2)</sup>하고 있다.

2) 통계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KISC-10)을 2017.1.13. 고시, 2017.7.1. 시행함.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준으로 전국 및 지역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매년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대분류부터 세세분류까지 조사하고 있으나, 매출액을 조사하는 경제총조사는 5년에 한번 씩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와 지역계정을 통해 최근 몇 년간의 연도별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사업체 수, 종사자 수에 대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서비스산업별 GRDP,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에 대한 통계적 변화 즉, 입지계수 변화, 다음 절의 변이할당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산 서비스산업의 특화도를 측정하는 입지계수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서비스산업분류를 토대로 Singelmann(1978)에 의한 분류를 활용하여 서비스산업을 <표 3-1>과 같이 재분류해 분석하였다.



<표 3-1> 특화도 분석을 위한 서비스산업 재분류

| 분 류                                |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제10차 개정)                               |   |
|------------------------------------|-----------|--|---|
| 대분류                                | 본 연구      | 대분류  | 중분류   |
| 유 통 서비스                            | 운수        | H. 운수 및 창고업(49-52)                                 |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br>50. 수상 운송업<br>51. 항공 운송업<br>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도소매       | G. 도매 및 소매업(45-47)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br>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br>47. 소매업(자동차 제외)                                |
| 생산자 서비스                            | IT 서비스    | J. 정보통신업(61~63)                                    | 61. 우편 및 통신업<br>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br>63. 정보서비스업                             |
|                                    | 금융/보험     | K. 금융 및 보험업(64~66)                                 | 64. 금융업<br>65. 보험 및 연금업<br>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 부동산       | L. 부동산업(68)  | 68. 부동산업  |
|                                    | 전문/과학기술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70. 연구개발업<br>71. 전문 서비스업<br>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br>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사업지원/임대   |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74~76)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br>75. 사업지원 서비스업<br>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사 회 서비스                            | 공공행정      |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 8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보건 및 사회복지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86. 보건업<br>87. 사회복지 서비스업  |
| 개 인 서비스                            | 숙박/음식점    |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55. 숙박업<br>56. 음식점 및 주점업  |
|                                    | 오락문화      | J. 정보통신업(58~60)                                    | 58. 출판업<br>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br>60. 방송업   |
|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b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교육        | P. 교육 서비스업(85)                                     | 85. 교육 서비스업   |
|                                    | 기타 개인 서비스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 36. 수도업.<br>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br>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br>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           | 94. 협회 및 단체<br>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br>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나. 분석 기초자료

부산 서비스산업의 특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산의 서비스산업 업종별 지역내총생산(GRDP)과 사업체 수, 종사자 수에 대한 통계청의 조사자료(2010년 ~ 2018년)를 활용하고자 한다.

### (1) GRDP 기초자료

<표 3-2> 서비스업종별 GRDP 현황

(단위: 십억 원)

| 구분        | 업종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
| 전국        | 운수        | 44,339    | 42,742    | 49,472    | 57,028    | 55,026    |
|           | 도소매       | 105,937   | 119,543   | 120,665   | 130,152   | 139,334   |
|           | IT서비스     | 57,026    | 61,874    | 68,311    | 76,364    | 81,504    |
|           | 금융/보험     | 77,916    | 81,591    | 84,181    | 89,539    | 104,414   |
|           | 부동산       | 94,004    | 103,098   | 115,952   | 128,569   | 135,907   |
|           | 사업지원/임대   | 100,930   | 115,582   | 133,302   | 149,264   | 166,128   |
|           | 공공행정      | 72,894    | 82,359    | 91,335    | 101,338   | 116,536   |
|           | 보건 및 사회복지 | 45,603    | 51,727    | 59,232    | 69,318    | 81,960    |
|           | 숙박/음식점    | 28,753    | 30,589    | 33,518    | 40,424    | 42,910    |
|           | 오락문화      | 37,853    | 42,065    | 45,394    | 49,663    | 53,210    |
|           | 교육        | 68,515    | 73,568    | 79,160    | 84,488    | 90,546    |
|           | 서비스업 전체   | 733,775   | 804,743   | 880,527   | 976,151   | 1,067,480 |
|           | 전체 산업     | 1,207,715 | 1,321,287 | 1,437,632 | 1,595,748 | 1,736,589 |
|           | 부산        | 운수        | 4,986     | 4,332     | 5,286     | 5,599     |
| 도소매       |           | 7,882     | 8,420     | 7,898     | 8,054     | 8,322     |
| IT서비스     |           | 1,809     | 1,692     | 1,721     | 1,884     | 1,893     |
| 금융/보험     |           | 4,707     | 4,949     | 5,134     | 5,241     | 6,127     |
| 부동산       |           | 5,543     | 6,247     | 7,246     | 8,036     | 8,509     |
| 사업지원/임대   |           | 4,454     | 4,838     | 5,816     | 6,724     | 7,402     |
| 공공행정      |           | 3,326     | 3,921     | 4,434     | 4,965     | 5,558     |
| 보건 및 사회복지 |           | 3,427     | 3,995     | 4,588     | 5,442     | 6,579     |
| 숙박/음식점    |           | 1,958     | 2,117     | 2,365     | 2,705     | 2,812     |
| 오락문화      |           | 2,302     | 2,512     | 2,596     | 2,795     | 2,969     |
| 교육        |           | 4,539     | 4,876     | 5,150     | 5,273     | 5,583     |
| 서비스업 전체   |           | 44,938    | 47,904    | 52,239    | 56,723    | 61,200    |
| 전체 산업     |           | 61,677    | 65,783    | 71,799    | 79,117    | 82,859    |

주: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통계청 지역내총생산조사는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조사하지 않아 미반영.

(2) 사업체 수 기초자료

<표 3-3> 서비스 업종별 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 업종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
| 전국    | 운수        | 347,289   | 364,349   | 379,044   | 385,968   | 400,282   |
|       | 도소매       | 873,632   | 939,357   | 993,971   | 1,017,340 | 1,027,110 |
|       | IT서비스     | 26,299    | 33,779    | 40,304    | 42,539    | 43,888    |
|       | 금융/보험     | 39,485    | 41,799    | 41,969    | 42,809    | 43,568    |
|       | 부동산       | 114,006   | 119,049   | 127,228   | 143,461   | 160,151   |
|       | 전문/과학기술   | 70,372    | 84,260    | 96,865    | 103,222   | 112,301   |
|       | 사업지원/임대   | 48,268    | 56,639    | 65,603    | 67,237    | 70,542    |
|       | 공공행정      | 11,869    | 11,939    | 12,057    | 12,454    | 12,521    |
|       | 보건 및 사회복지 | 108,081   | 122,764   | 134,208   | 141,372   | 147,452   |
|       | 숙박/음식점    | 636,278   | 673,064   | 702,596   | 729,175   | 766,315   |
|       | 오락문화      | 101,745   | 104,597   | 103,977   | 110,230   | 121,639   |
|       | 교육        | 166,527   | 172,289   | 175,606   | 180,595   | 189,800   |
|       | 기타 개인서비스  | 364,889   | 383,109   | 385,644   | 389,854   | 410,246   |
|       | 서비스업 전체   | 2,908,740 | 3,106,994 | 3,259,072 | 3,366,256 | 3,505,815 |
| 전체 산업 | 3,355,459 | 3,602,461 | 3,812,800 | 3,950,169 | 4,103,172 |           |
| 부산    | 운수        | 28,280    | 28,018    | 27,966    | 27,880    | 26,904    |
|       | 도소매       | 74,381    | 77,612    | 79,697    | 80,241    | 80,557    |
|       | IT서비스     | 1,180     | 1,435     | 1,658     | 1,780     | 1,892     |
|       | 금융/보험     | 3,198     | 3,338     | 3,215     | 3,270     | 3,302     |
|       | 부동산       | 7,346     | 8,201     | 9,172     | 10,599    | 11,751    |
|       | 전문/과학기술   | 4,646     | 5,460     | 6,215     | 6,729     | 7,319     |
|       | 사업지원/임대   | 4,305     | 4,647     | 5,104     | 5,208     | 5,325     |
|       | 공공행정      | 656       | 663       | 672       | 704       | 708       |
|       | 보건 및 사회복지 | 6,994     | 7,580     | 8,204     | 8,765     | 9,246     |
|       | 숙박/음식점    | 48,194    | 49,193    | 49,768    | 50,578    | 52,240    |
|       | 오락문화      | 6,953     | 6,848     | 6,599     | 6,819     | 7,261     |
|       | 교육        | 11,587    | 11,802    | 11,817    | 12,077    | 12,549    |
|       | 기타 개인서비스  | 28,542    | 28,775    | 28,715    | 28,359    | 29,539    |
|       | 서비스업 전체   | 226,262   | 233,572   | 238,802   | 243,009   | 248,593   |
| 전체 산업 | 259,972   | 270,058   | 277,713   | 283,554   | 288,860   |           |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종사자 수 기초자료

<표 3-4> 서비스 업종별 종사자 수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 업종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
| 전국 | 운수        | 990    | 1,013  | 1,049  | 1,111  | 1,146  |
|    | 도소매       | 2,618  | 2,782  | 3,008  | 3,142  | 3,251  |
|    | IT서비스     | 464    | 493    | 528    | 567    | 599    |
|    | 금융/보험     | 715    | 724    | 706    | 731    | 711    |
|    | 부동산       | 417    | 412    | 445    | 502    | 521    |
|    | 전문/과학기술   | 769    | 815    | 930    | 1,001  | 1,074  |
|    | 사업지원/임대   | 830    | 897    | 1,025  | 1,149  | 1,188  |
|    | 공공행정      | 664    | 638    | 649    | 691    | 735    |
|    | 보건 및 사회복지 | 1,098  | 1,262  | 1,466  | 1,675  | 1,902  |
|    | 숙박/음식점    | 1,761  | 1,909  | 2,067  | 2,163  | 2,327  |
|    | 오락문화      | 320    | 344    | 363    | 395    | 442    |
|    | 교육        | 1,431  | 1,476  | 1,514  | 1,560  | 1,630  |
|    | 기타 개인서비스  | 790    | 840    | 857    | 865    | 890    |
|    | 서비스업 전체   | 12,867 | 13,605 | 14,608 | 15,551 | 16,415 |
|    | 전체 산업     | 17,647 | 18,569 | 19,900 | 21,259 | 22,235 |
| 부산 | 운수        | 105    | 107    | 108    | 110    | 111    |
|    | 도소매       | 204    | 213    | 223    | 230    | 233    |
|    | IT서비스     | 14     | 15     | 15     | 16     | 17     |
|    | 금융/보험     | 52     | 53     | 51     | 51     | 51     |
|    | 부동산       | 28     | 31     | 31     | 36     | 36     |
|    | 전문/과학기술   | 33     | 36     | 40     | 44     | 46     |
|    | 사업지원/임대   | 63     | 71     | 76     | 83     | 83     |
|    | 공공행정      | 42     | 41     | 40     | 43     | 45     |
|    | 보건 및 사회복지 | 81     | 91     | 105    | 123    | 136    |
|    | 숙박/음식점    | 131    | 141    | 148    | 155    | 163    |
|    | 오락문화      | 19     | 21     | 21     | 23     | 25     |
|    | 교육        | 95     | 97     | 99     | 101    | 102    |
|    | 기타 개인서비스  | 58     | 61     | 61     | 60     | 63     |
|    | 서비스업 전체   | 926    | 978    | 1,020  | 1,075  | 1,111  |
|    | 전체 산업     | 1,205  | 1,276  | 1,326  | 1,409  | 1,4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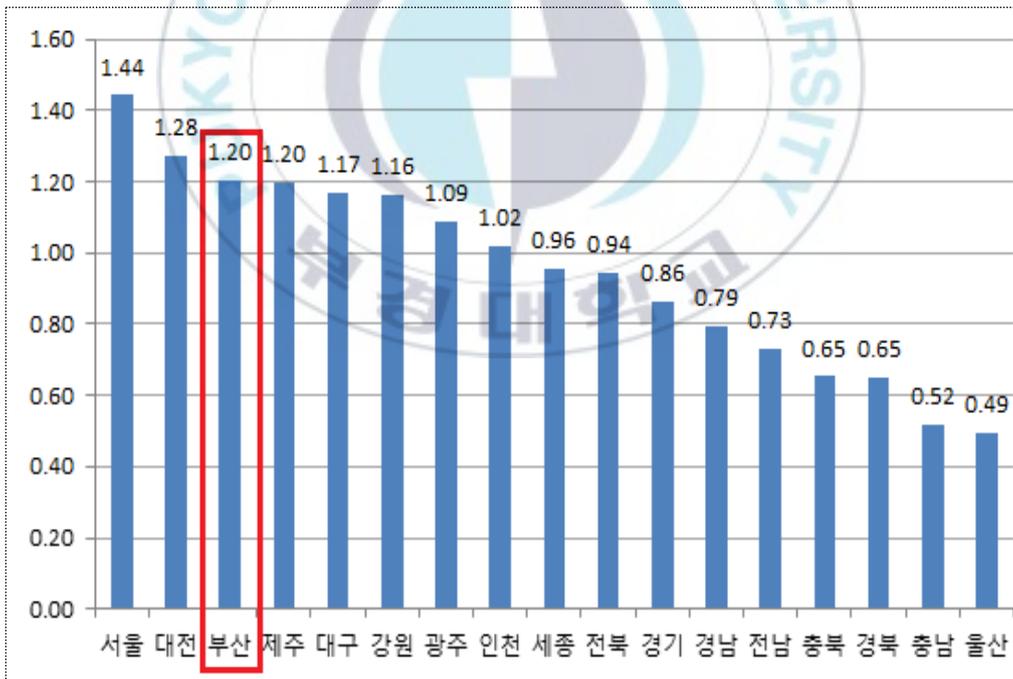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다. 분석 결과

### (1) GRDP LQ지수

통계청에서 제시한 2018년 GRDP를 토대로 전국 시·도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LQ지수를 분석한 결과,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의 서비스산업은 1.20으로 전국 평균대비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1.44), 대전(1.28)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전국 상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 지역별 서비스산업 LQ지수(GRDP 기준,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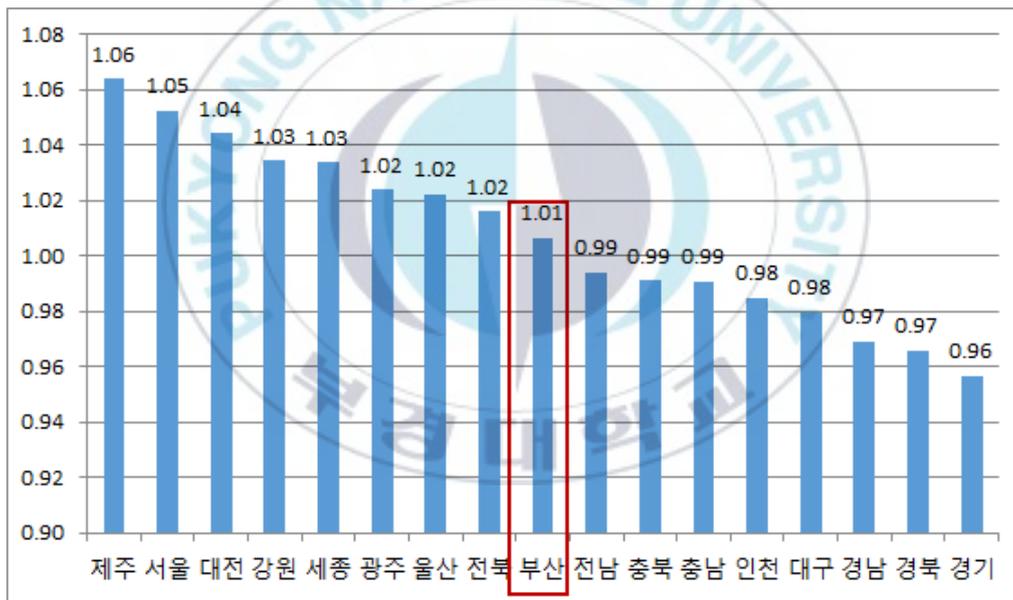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2) 사업체 수 LQ지수

2018년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의 LQ지수를 전국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의 서비스산업은 1.01로 전국대비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주(1.06), 서울(1.05), 대전(1.05), 강원(1.03) 등에 이어 전국에서 9번째로 전국 상위 도시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 지역별 서비스산업 LQ지수(사업체 수 기준,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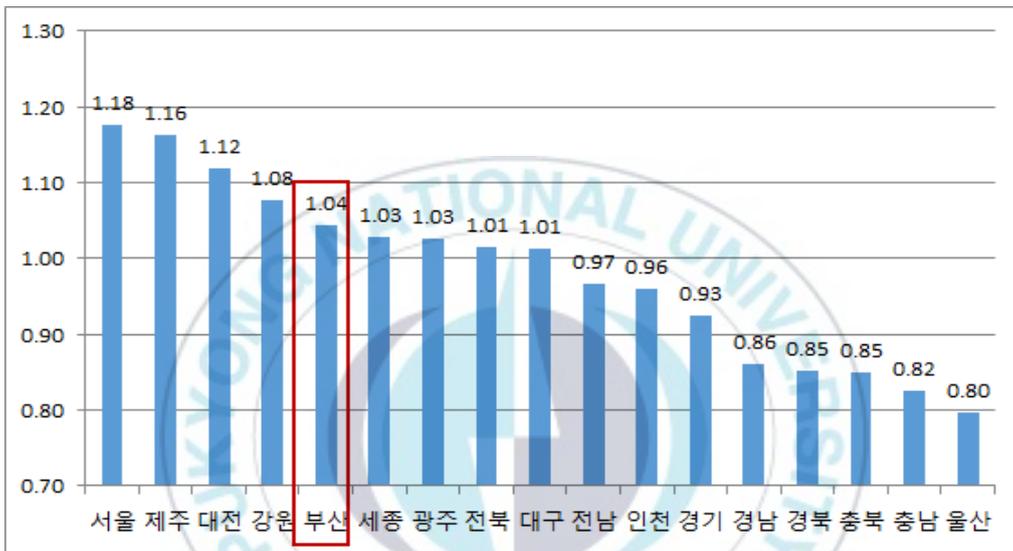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3) 종사자 수 LQ지수

2018년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전국 지역별 및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의 LQ지수를 분석한 결과, <그림 3-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산의 서비스산

업은 1.04로 전국대비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1.18), 제주(1.16), 대전(1.12), 강원(1.08)에 이은 전국 5위로 전국 평균에 비해 특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지역별 서비스산업 LQ지수(종사자 수 기준, 2018)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4) LQ지수 변화 분석

지금까지는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 LQ지수를 분석하여 부산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10년 ~ 2018년 중 기준연도인 2010년과 비교연도인 2018년에 대해 부산의 서비스산업 업종별 정태적 입지계수를 분석하고, 2010년과 2018년의 변화를 분석해 본다.

2010년과 2018년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LQ지수 분석 결과, <표 3-5>와 같이 GRDP 기준 서비스산업은 0.2% 증가했고, 사업체 수 기준은 0.32% 증가, 종사자 수 기준 서비스산업은 0.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GRDP 기준으로 증감폭이 큰 업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4.3% 증가)와 IT서비스(21.7% 감소)로 분석되었고,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부동산서비스(25.3% 증가)와 운수서비스(9.16% 감소)가 증감 폭이 컸으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 증감 폭이 큰 업종은 부동산서비스(7.2% 증가)와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3.83% 감소)로 나타나 GRDP와 사업체 수 기준보다는 변동 폭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5> 부산 서비스산업 LQ 및 증감률<sup>3)</sup>(2010-2018)

| 구 분      | GRDP  |       |       | 사업체 수 |       |       | 종사자 수 |       |       |
|----------|-------|-------|-------|-------|-------|-------|-------|-------|-------|
|          | 2010  | 2018  | 증감률   | 2010  | 2018  | 증감률   | 2010  | 2018  | 증감률   |
| 운수       | 2.202 | 2.073 | -5.9  | 1.051 | 0.955 | -9.16 | 1.548 | 1.490 | -3.75 |
| 도소매      | 1.457 | 1.252 | -14.1 | 1.099 | 1.114 | 1.38  | 1.142 | 1.104 | -3.35 |
| IT서비스    | 0.621 | 0.487 | -21.7 | 0.579 | 0.612 | 5.74  | 0.439 | 0.441 | 0.38  |
| 금융/보험    | 1.183 | 1.230 | 3.9   | 1.045 | 1.077 | 2.98  | 1.059 | 1.112 | 4.99  |
| 부동산      | 1.155 | 1.312 | 13.6  | 0.832 | 1.042 | 25.32 | 0.996 | 1.068 | 7.20  |
| 전문/과학기술  | -     | -     | -     | 0.852 | 0.926 | 8.64  | 0.629 | 0.667 | 6.07  |
| 사업지원/임대  | 0.864 | 0.934 | 8.1   | 1.151 | 1.072 | -6.85 | 1.117 | 1.074 | -3.83 |
| 공공행정     | 0.893 | 1.000 | 11.9  | 0.713 | 0.803 | 12.59 | 0.938 | 0.955 | 1.79  |
| 보건및사회복지  | 1.472 | 1.682 | 14.3  | 0.835 | 0.891 | 6.64  | 1.083 | 1.107 | 2.22  |
| 숙박/음식업   | 1.334 | 1.374 | 3.0   | 0.978 | 0.968 | -0.95 | 1.090 | 1.079 | -0.97 |
| 오락문화     | 1.191 | 1.169 | -1.8  | 0.882 | 0.848 | -3.87 | 0.867 | 0.862 | -0.61 |
| 교육       | 1.297 | 1.292 | -0.4  | 0.898 | 0.939 | 4.58  | 0.977 | 0.966 | -1.16 |
| 기타 개인서비스 | -     | -     | -     | 1.010 | 1.023 | 1.31  | 1.075 | 1.084 | 0.86  |
| 서비스산업전체  | 1.199 | 1.202 | 0.2   | 1.004 | 1.007 | 0.32  | 1.054 | 1.044 | -0.98 |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기준연도 2010년 대비 비교연도 2018년의 입지계수 변화율을 의미

기본적으로 입지계수 분석은 현재의 활성화된 산업에 대한 특화정도를 측정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최근 연도인 2018년 기준으로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GRDP LQ분석결과는 운수, 도소매, 금융·보험, 부동산,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 숙박·음식점, 오락문화, 교육서비스 산업의 입지계수가 1보다 커서 이들 산업은 전국 대비 특화산업으로서 부산의 기반산업임을 알 수 있다. 사업체 수 LQ분석에서는 도소매,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지원·임대,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기반산업으로 조사되었고, 종사자 수 LQ분석결과는 운수, 도소매,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지원·임대, 보건 및 사회복지, 숙박·음식점,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전국 대비 특화도가 높고 기반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그 서비스산업이 부산지역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절대치가 클수록 특화정도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입지계수 변화량(증감률)이 0보다 클 경우 전체 분석기간 중 비교우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서 비교우위가 있더라도 전체 분석기간에서 평균적으로 비교우위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과 2018년의 입지계수가 1 이상이면서 동시에 증감률이 0보다 큰 업종은 GRDP 기준에서는 금융·보험서비스, 부동산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숙박·음식점서비스 등이고, 사업체 수 기준에서는 도소매서비스, 금융·보험서비스, 기타 개인서비스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금융·보험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개인서비스로 조사되었다. 이들 산업은 전국 대비 특화산업이면서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비교우위가 있음을 의미하고, 지난 9년간 부산시는 주로 이들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 활동의 집적지로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입지계수가 1 이하였지만 2018년에는 1 이상이고 증감률이 0 이상인 산업은 공공행정서비스, 부동산서비스 등 2개 업종으로 이는 최근 부산지역에서 그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산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0년과 2018년의 입지계수는 1 이하지만 증감률이 0 이상을 기록한 업종을 살펴보면, GRDP 기준에서는 사업지원·임대서비스이고, 사업체 수 기준에서는 IT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로 나타났고,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IT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로 조사되었다. 부산지역에서 이들 산업은 타 지역에 비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010년과 2018년의 입지계수는 1 이상이나 입지계수 증감률이 0 이하로 나타난 업종은 GRDP 기준에서는 운수서비스, 도소매서비스, 오락문화서비스, 교육서비스로 나타났고, 사업체 수 기준에서는 사업지원·임대서비스 1개 업종이었고,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운수서비스, 도소매서비스, 사업지원·임대서비스, 숙박·음식점서비스로 조사 되었다. 이들은 기반산업으로 형성은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산의 서비스산업 중에서 높은 특화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준연도(2010년)와 비교연도(2018년), 2개년 모두  $LQ > 1.2$ 로 나타난 업종을 살펴보면, 운수, 도소매, 부동산, 보건 및 사회복지, 숙박·음식점, 교육서비스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GRDP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3개 기준 모두 입지계수가 1 이상이면서 동시에 증감률이 0보다 큰 수치를 충족한 업종은 금융·보험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이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금융기업이 부산으로 많이 진입했고, 금융 종사자도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금융영업 매출이 증가하는 등 부산이 금융중심도시로 많은 성장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 라. 소결

이 절에서는 부산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입지계수를 분석하여 각 서비스업종이 특화산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2010년과 2018년의 입지계수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GRDP와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모두 0 이상인 업종은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보험서비스, 부동산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이고, 모두 0 이하인 업종은 운수서비스, 오락문화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표 3-6> 입지계수 증감률에 의한 분류(2010-2018)

| 구분                   | GRDP > 0                     | GRDP < 0 |
|----------------------|------------------------------|----------|
| 사업체수 > 0<br>종사자수 > 0 | 금융·보험, 부동산, 공공행정,<br>보건및사회복지 | IT서비스    |
| 사업체수 > 0<br>종사자수 < 0 | -                            | 도소매, 교육  |
| 사업체수 < 0<br>종사자수 > 0 | -                            | -        |
| 사업체수 < 0<br>종사자수 < 0 | 사업지원·임대, 숙박·음식점              | 운수, 오락문화 |

먼저 3개 기준의 LQ지수 증감율이 0 이상인 금융·보험서비스, 부동산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표 3-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LQ지수가 대부분 1 이상으로서 특화산업에 해당되고, 증가율도 0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산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들 산업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 금융·보험서비스업은 부산이 2009년 중앙정부로부터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문현지구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조성하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본부가 입주해 있고 한국거래소, 기술보증기금 등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공공기관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점이 부산 금융업의 특화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부산시의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진흥공사 설립, 금융전문대학원 설치·운영, 핀테크 허브센터 운영 등 다양한 금융진흥정책을 추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산업은 모든 실물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므로 부산시는 금융산업 진흥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복지시설 등 노인·장애인지원시설, 아동보육을 위한 서비스업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기 이외에 사회의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타적 동기가 필요한 업종이다. 따라서 저비용 대비 고수익을 추구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만 조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앞으로의 인구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령층 위주의 돌봄서비스가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돌봄서비스는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추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볼 수 있겠다. 또한 이 업종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미래 유망산업으로 기대되는 업종이고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실버산업과 연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특화산업이면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서비스와 공공행정서비스업도 부산시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꾸준히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GRDP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3개 기준의 LQ지수 증감률이 0 이하로 나타난 업종은 운수서비스, 오락문화서비스로 나타났다. 운수서비스업의 경우, <표 3-18>에서 2010년, 2018년 모두 LQ지수가 1 이상으로 부산의 특화산업에 해당된다. 다만, 증감률이 0 이하로 그 산업규모가 점점 축소된다

고 볼 수 있는데, 운수서비스는 물류와 유통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제1의 수출입 전진기지인 부산항을 안고 있고 동북아 물류 허브기지로서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는 부산시는 운수서비스업을 정책적 지원과 진흥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오락문화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10년, 2018년의 LQ지수가 모두 1 이하로 비기반산업으로 분류되지만, 게임콘텐츠산업의 중장기 육성전략 마련과 다양한 축제나 행사 등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부산 서비스산업 성장도 분석(변이할당분석)

### 가. 분석 방법

변이할당분석은 지역산업 성장의 주요 원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순수 지역경제의 실증분석모형으로 1942년 미국의 국립자원기획위원회에서 개발되었다.

<표 3-7> 변이할당분석의 장·단점 비교

| 장 점  | 단 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성장의 횡적인 차원과 종적인 차원을 동시에 관찰 가능</li> <li>· 자료 불충분으로 시계열분석이 어려운 경우나 시간, 자원이 제한이 있을 경우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는 분석모형</li> <li>· 정책적인 의미를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석방법</li> <li>· 각 지역 산업정책 분석 및 수립에 활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요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함</li> <li>· 지역내 산업들 간의 연관성 고려가 어렵고, 예측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부족</li> <li>· 자료획득의 용이성 때문에 고용자수를 측정지표로 사용할 경우,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실업자의 증감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함</li> </ul> |

주: 김동현(2009) 재인용 및 연구자 정리

변이할당분석은 특정 지역에 대한 일정기간의 산업성장 및 변화를 전국 또는 다른 지역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지역간·시점간·산업간 비교를 용이토록 하여 장래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설정에 유용한 준거 틀(framework)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지역산업의 성장도는 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에 의한 지역내부요인과 지역 밖에서 지역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지역외부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지역내부요인은 산업구조효과(industrial mix effect)와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are effect)이고, 지역외부요인은 국가성장효과(national growth effect)이다.

변이할당분석은 지역 및 지역산업의 성장효과를 전국의 경제성장효과(국가성장효과), 지역의 산업구조효과(산업구조효과), 지역의 입지경쟁력에 의한 효과(지역할당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먼저 국가성장효과는 일정기간 동안 j지역 i산업의 총 성장 중에서 국가 전체 산업의 평균성장으로 유발된 GRDP,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의 증가분을 통해 구한다.

산업구조효과는 전국 i산업의 총성장률에서 전국의 모든 산업의 평균성장률을 뺀 전국 i산업의 순성장률이 j지역 i산업에 대하여 유발한 GRDP,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증감을 통해 구한다.

지역할당효과는 해당 지역과 전국의 다른 지역과의 산업적 위치상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j지역 i산업의 총성장률에서 전국 i산업의 평균성장률을 감하여 도출이 가능하다.

국가성장효과와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를 합하면 지역총성장이 되고, 이를 산출하는 산식은 (2)와 같다.

$$\text{총성장 } V_{ij}(t) - V_{ij}(o) = Ng + Im + Rs \quad (2)$$

$V_{ij}(t)$  = 대비연도(t)의 j지역 i산업의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V_{ij}(o)$  = 기준연도(o)의 j지역 i산업의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Ng = 국가성장효과  
 Im = 산업구조효과  
 Rs = 지역할당효과

국가성장효과는 전체의 성장률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한 성장효과를 통해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식과 같다.

$$Ng = V_{ij}(o) \times \left[ \frac{V(t) - V(o)}{V(o)} \right] \quad (3)$$

$V(t)$  = 대비연도(t)의 전국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V(o)$  = 기준연도(o)의 전국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산업구조효과는 특정지역의 특정산업을 전국의 산업과 대비할 때 고성장이거나 저성장 산업에 특화되어 나타나는 성장의 증가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정산업의 전국 성장률에서 전체산업의 전국성장률을 감한 후 그 값이 해당지역 특정산업에 미치는 성장의 증가로 해석하며, 지역의 산업구조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Im &= V_{ij}(o) \times \left[ \frac{V_i(t) - V_i(o)}{V_i(o)} - \frac{V(t) - V(o)}{V(o)} \right] \\
 &= V_{ij}(o) \times \left[ \left( \frac{V_i(t)}{V_i(o)} - 1 \right) - \left( \frac{V(t)}{V(o)} - 1 \right) \right] \\
 &= V_{ij}(o) \times \left[ \frac{V_i(t)}{V_i(o)} - \frac{V(t)}{V(o)} \right]
 \end{aligned} \quad (4)$$

$V_i(t)$  = 대비연도(t)에 있어 전국 i산업의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V_i(o)$  = 기준연도(o)에 있어 전국 i산업의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지역할당효과는 특정지역의 특정산업이 전국의 특정산업과 대비할 때 산업입지, 수송편의, 시장입지 등으로 갖게 되는 비교우위에 의한 상대적 경

쟁력을 의미하는 등 특정지역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경쟁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수행능력에 따라 나타내어지는 것이고, 산출은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begin{aligned}
 Rs &= V_{ij}(o) \times \left[ \frac{V_{ij}(t) - V_{ij}(o)}{V_{ij}(o)} - \frac{V_i(t) - V_i(o)}{V_i(o)} \right] \\
 &= V_{ij}(o) \times \left[ \left( \frac{V_{ij}(t)}{V_{ij}(o)} - 1 \right) - \left( \frac{V_i(t)}{V_i(o)} - 1 \right) \right] \\
 &= V_{ij}(o) \times \left[ \frac{V_{ij}(t)}{V_{ij}(o)} - \frac{V_i(t)}{V_i(o)} \right]
 \end{aligned} \tag{5}$$

$V_{ij}(t)$  = 대비연도(t)에 있어 j지역 i산업의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변이할당분석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분류와 기초자료는 앞 절(LQ분석)의 서비스산업 재분류와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활용하였다.

## 나.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지역산업에 대한 변이할당분석 결과는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양의 수치(+)인 산업부문,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음의 수치(-)인 산업부문, 산업구조효과는 양의 수치(+)이나 지역할당효과는 음의 수치(-)인 산업부문, 산업구조효과는 음의 수치(-)이나 지역할당효과가 양의 수치(+)인 산업부문으로 구분한다. 이는 지역할당효과분석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의 상대적인 성장력(지역할당효과) 뿐 만 아니라 전국기준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산업구조효과)이 강해야 실질적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분석결과를 해

석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2가지 모두 (+)인 산업 부문으로 당해 지역의 서비스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유발시키는 산업부문(A유형, 성장유망산업)이고, 둘째,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2가지 모두 (-)인 산업유형으로 지역 산업구조 및 경쟁력 차원에서 부정적 효과를 유발시키는 산업 부문(D유형, 열위산업)으로 해석한다. 셋째, 산업구조효과는 (+)이나 지역할당효과는 (-)인 산업유형으로 타 지역의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할 때 산업입지나 교통편의 등에 의한 상대적 경쟁력은 떨어지나 전국의 산업과 비교하여 고성장 산업에 특화되어 당해 지역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산업(B유형, 산업구조 우위산업)이고, 넷째, 산업구조효과는 (-)이지만 지역할당효과는 (+)인 산업유형으로 산업의 전문화 수준은 낮지만 당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입지나 교통편의 등에 기인한 상대적 경쟁력이 있는 산업(C유형, 경쟁력 우위산업)으로 해석한다.

### (1) GRDP 성장도

GRDP 기준으로 부산 서비스산업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변이할당분석 결과, <표 3-8>처럼 국가 전체 산업성장으로 유발되는 GRDP는 약 19.7조 원이 증가하였고, 전국이 급성장하는 산업의 특화도가 전국평균 이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요인에 따른 성장은 약 7,579억 원이 증가하였고, 입지적인 경쟁요인이 취약하여 약 4조 1,751억 원이 줄어들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약 16조 2,620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성장효과가 모든 서비스산업에서 (+)값으로 나타나 국가적인 성장이 부산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산의 산업구조도 성장하였으나 전국 대비 부산시 입지가 갖는 상대적 산업경쟁력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부산 서비스산업 변이할당분석 결과(GRDP기준, 2010~2018)

(단위: 백만 원)

| 분류      | 총성장        | 국가성장       | 산업구조      | 지역할당       |
|---------|------------|------------|-----------|------------|
| 운수      | 456,785    | 2,183,570  | -981,712  | -745,074   |
| 도소매     | 439,822    | 3,451,893  | -966,863  | -2,045,207 |
| IT서비스   | 83,677     | 792,575    | -15,688   | -693,210   |
| 금융/보험   | 1,419,306  | 2,061,574  | -460,549  | -181,719   |
| 부동산     | 2,965,608  | 2,427,746  | 43,465    | 494,397    |
| 사업지원/임대 | 2,947,984  | 1,950,549  | 926,752   | 70,683     |
| 공공행정    | 2,232,169  | 1,456,582  | 534,804   | 240,782    |
| 보건및사회복지 | 3,151,630  | 1,501,138  | 1,231,783 | 418,709    |
| 숙박/음식점  | 853,996    | 857,630    | 106,588   | -110,222   |
| 오락문화    | 666,886    | 1,006,158  | -74,172   | -267,100   |
| 교육      | 1,044,136  | 1,987,712  | -528,228  | -415,349   |
| 서비스업 전체 | 16,261,999 | 19,679,128 | 757,930   | -4,175,060 |

2010~2018년 GRDP 기준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 효과에 의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표 3-9>와 같이 부동산서비스, 사업지원·임대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A유형(성장유망산업), 숙박 및 음식점서비스가 B유형(산업구조 우위산업), 운수서비스와 도소매서비스, IT서비스, 금융·보험서비스, 오락문화서비스, 교육서비스가 D유형(열위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3-9> 산업구조와 경쟁요인에 의한 분류(GRDP 기준, 2010~2018)

| 구분      | 경쟁요인(+)                         | 경쟁요인(-)                            |
|---------|---------------------------------|------------------------------------|
| 산업구조(+) | A유형(성장유망산업)                     | B유형(산업구조 우위산업)                     |
|         | 부동산, 사업지원·임대<br>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 | 숙박·음식점                             |
| 산업구조(-) | C유형(경쟁력 우위산업)                   | D유형(열위산업)                          |
|         | -                               | 운수, 도소매, IT서비스,<br>금융·보험, 오락문화, 교육 |

## (2) 사업체 수 성장도

사업체 수 기준, 부산 서비스산업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변이할당분석 결과, <표 3-10>과 같이 국가전체 산업성장으로 유발되는 사업체수는 약 50,419개사가 증가하였고, 전국이 급성장하는 산업의 특화도가 전국평균 이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요인에 따른 성장은 3,974개사가 감소하였다.

입지적인 경쟁요인인 지역할당측면에서는 24,414개사가 줄어들었으나 국가성장, 산업구조측면 등을 포함한 전체적으로는 22,331개사가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성장효과는 모든 산업에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인 성장이 부산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부산시 자체 산업구조 성장효과와 전국 대비 부산시 입지가 갖는 상대적 산업경쟁력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0> 부산 서비스산업 변이할당분석 결과(사업체수 기준, 2010~2018)

(단위: 개사)

| 분류      | 총성장    | 국가성장   | 산업구조   | 지역할당    |
|---------|--------|--------|--------|---------|
| 운수      | -1,376 | 6,302  | -1,987 | -5,691  |
| 도소매     | 6,176  | 16,575 | -3,508 | -6,891  |
| IT서비스   | 712    | 263    | 526    | -77     |
| 금융/보험   | 104    | 713    | -382   | -227    |
| 부동산     | 4,405  | 1,637  | 1,336  | 1,432   |
| 전문/과학기술 | 2,673  | 1,035  | 1,733  | -95     |
| 사업지원/임대 | 1,020  | 959    | 1,027  | -967    |
| 공공행정    | 52     | 146    | -110   | 16      |
| 보건및사회복지 | 2,252  | 1,559  | 989    | -296    |
| 숙박/음식점  | 4,046  | 10,739 | -890   | -5,803  |
| 오락문화    | 308    | 1,549  | -190   | -1,052  |
| 교육      | 962    | 2,582  | -963   | -657    |
| 기타개인서비스 | 997    | 6,360  | -2,812 | -2,551  |
| 서비스업 전체 | 22,331 | 50,419 | -3,974 | -24,414 |

2010~2018년 사업체수 기준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에 의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표 3-11>과 같다. 부동산서비스가 A유형(성장유망산업), IT서비스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B유형(산업구조 우위산업), 공공행정서비스가 C유형(경쟁력 우위산업), 운수서비스와 도소매서비스, 금융·보험서비스, 숙박·음식점서비스, 오락문화서비스, 교육서비스, 기타개인서비스가 D유형(열위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3-11> 산업구조와 경쟁요인에 의한 분류(사업체 수 기준, 2010~2018)**

| 구분      | 경쟁요인(+)               | 경쟁요인(-)  |
|---------|-----------------------|--|
| 산업구조(+) | A유형(성장유망산업)<br>부동산    | B유형(산업구조 우위산업)<br>IT서비스, 전문과학기술,<br>사업지원·임대, 보건및사회복지         |
|         | C유형(경쟁력 우위산업)<br>공공행정 | D유형(열위산업)<br>운수, 도소매, 금융·보험,<br>숙박·음식점, 오락문화,<br>교육, 기타개인서비스 |

### (3) 종사자 수 성장도

종사자 수 기준으로 한 부산 서비스산업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변이할당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3-12>처럼 국가전체 산업성장으로 유발되는 종사자 수는 240,752명이 증가하였고 전국이 급성장하는 산업의 특화도가 전국평균 이상으로 인한 산업구조요인에 따른 성장도 14,676명 늘어났다.

입지적인 경쟁요인이 취약하여 지역할당에서는 70,011명이 감소하였으나 국가성장, 산업구조측면에서는 모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85,417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가성장효과는 모든 산업에서 양(+)의 값으로 나타나 국가적인 성장이 부산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산시 자체 산업구조도 성장하였으나 전국 대비 부산시 입지가 갖는 상대적 산업경쟁력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2> 부산 서비스산업 변이할당분석 결과(종사자 수 기준, 2010~2018)

(단위: 명)

| 분류      | 총성장     | 국가성장    | 산업구조    | 지역할당    |
|---------|---------|---------|---------|---------|
| 운수      | 6,115   | 27,191  | -10,709 | -10,367 |
| 도소매     | 28,597  | 53,085  | -3,742  | -20,746 |
| IT서비스   | 3,210   | 3,617   | 425     | -832    |
| 금융/보험   | -370    | 13,432  | -13,668 | -133    |
| 부동산     | 7,663   | 7,379   | -367    | 651     |
| 전문/과학기술 | 13,447  | 8,589   | 4,502   | 356     |
| 사업지원/임대 | 19,436  | 16,458  | 10,798  | -7,820  |
| 공공행정    | 3,040   | 11,035  | -6,446  | -1,549  |
| 보건및사회복지 | 55,383  | 21,095  | 38,344  | -4,056  |
| 숙박/음식점  | 31,853  | 34,066  | 8,037   | -10,250 |
| 오락문화    | 5,766   | 4,922   | 2,303   | -1,459  |
| 교육      | 6,664   | 24,812  | -11,511 | -6,637  |
| 기타개인서비스 | 4,613   | 15,071  | -7,729  | -2,729  |
| 서비스업 전체 | 185,417 | 240,752 | 14,676  | -70,011 |

2010~2018년 종사자수 기준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에 의해 산업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표 3-13>과 같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는 A유형(성장유망산업), IT서비스, 사업지원·임대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숙박·음식점서비스, 오락문화서비스는 B유형(산업구조 우위산업), 부동산은 C유형(경쟁력 우위산업), 운수서비스, 도소매서비스, 금융·보험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기타개인서비스는 D유형(열위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3-13> 산업구조와 경쟁요인에 의한 분류(종사자 수 기준, 2010~2018)

| 구분      | 경쟁요인(+)       | 경쟁요인(-)                               |
|---------|---------------|---------------------------------------|
| 산업구조(+) | A유형(성장유망산업)   | B유형(산업구조 우위산업)                        |
|         | 전문·과학기술       | IT서비스, 사업지원·임대, 보건및사회복지, 숙박·음식점, 오락문화 |
| 산업구조(-) | C유형(경쟁력 우위산업) | D유형(열위산업)                             |
|         | 부동산           | 운수, 도소매, 금융·보험, 공공행정, 교육, 기타개인서비스     |

#### 다. 소결

2010~2018년 기간 동안에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에 대하여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3개 기준으로 분석한 변이할당분석을 종합하여 4개 유형으로 정리하면 <표 3-14>와 같이 나타난다.

<표 3-14> 산업구조와 경쟁요인에 의한 분류(종합, 2010~2018)

| 구분   | A유형<br>(성장유망<br>산업)         | B유형<br>(산업구조<br>우위산업)                 | C유형<br>(경쟁력<br>우위산업) | D유형<br>(열위산업)                             |
|------|-----------------------------|---------------------------------------|----------------------|---|
| GRDP | 부동산, 사업지원·임대, 공공행정, 보건및사회복지 | 숙박·음식점                                | -                    | 운수, 도소매, IT서비스, 금융·보험, 오락문화, 교육           |
| 사업체수 | 부동산                         | IT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임대, 보건및사회복지       | 공공행정                 | 운수, 도소매, 금융·보험, 숙박·음식점, 오락문화, 교육, 기타개인서비스 |
| 종사자수 | 전문·과학기술                     | IT서비스, 사업지원·임대, 보건및사회복지, 숙박·음식점, 오락문화 | 부동산                  | 운수, 도소매, 금융·보험, 공공행정, 교육, 기타개인서비스         |

3개 기준 중 2개 기준에서 증가(+)<sup>1)</sup>한 것으로 나타난 업종으로 A유형(성장 유망산업)은 부동산서비스업으로서 이는 부산의 서비스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유발시키는 산업으로 볼 수 있고, B유형(산업구조 우위산업)으로는 IT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지원·임대서비스, 숙박·음식업서비스 산업으로서 전국 산업과 비교할 때 산업입지, 시장입지, 교통편의 등에 기인한 상대적 경쟁력은 떨어지나 전국의 산업과 비교하여 고성장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종이다. 예를 들어, 숙박·음식업의 경우, 부산의 강점인 관광, MICE산업과 연계한 상품개발, 부산 맛집거리 조성, 싱싱한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개발과 브랜드화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부산시는 이러한 유형의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또는 지역선도 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산업구조효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인 사업유형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3개 기준 모두 D유형(열위산업)으로 나타난 운수서비스, 도소매서비스, 금융·보험업서비스, 교육서비스는 주로 전통서비스산업이면서 유통서비스 및 생산자서비스로 분류되는 업종으로서 2010년에 비해 2018년의 산업구조와 경쟁력이 지역의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 장의 <표 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의 서비스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업체당 매출액, 종사자 수, 급여총액, R&D 투자비 등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부산 서비스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영세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중심에 운수서비스와 도소매서비스업이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해석되어 진다. 아울러, 금융·보험업의 경우는 특화도분석에서 LQ지수가 1 이상으로 특화도가 높은 부산지역의 기반산업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이할당분석에서 산업구조효

과와 지역할당효과 모두 (-)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부산지역 금융보험업이 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기준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도 여전히 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의 육성 등 정책적 지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성장효과는 3개 기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구조효과는 2개 기준에서 증가(+)했으며, 지역할당효과는 3개 기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은 국가성장효과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구조임을 알 수 있고, 지역할당효과가 3개 기준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된 성장효과 중 다른 산업 부문이나 다른 지역의 성장에 의해 유발되지 않고 부산지역 서비스산업 자체의 경쟁요인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서비스산업을 지역거점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부산 서비스산업 경제적효과 분석(지역산업연관분석)

#### 가. 연구 방법

##### (1) 지역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분석은 한 국가의 국민 경제 내에서 일정 기간(통상 1년) 동안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처분내역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행렬 형태의 종합적인 통계표이기 때문에 한 국가 경제의 구체적인 구조를 다양하게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한국은행, 2014).

산업연관모형의 가로(행)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의 배분구조, 즉 판매구조를 나타내며, 세로(열)는 각 산업부문의 투입구조, 즉 비용구성을 나타내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산업 간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산업연관분석이라 한다. 이는 통상 상호연계와 의존관계를 감안하여 소비 및 투자, 수출 등의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한다(한국은행, 2015).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거래관계와 생산구조를 반영하여 지역 및 산업 간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 지역산업연관표다. 지역산업연관표는 한 지역 내의 경제구조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내 산업연관표와 여러 지역간의 상호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지역간 산업연관표로 구분된다(한국은행, 2015).

<표 3-15> 지역내 산업연관표 기본구조

| 구 분              | 내 생 부문  |          |                       |           | 외 생 부문 |        |        |        |               | 수입<br>(공제) | 이입<br>(공제) | 지역내<br>산출액 |       |  |
|------------------|---------|----------|-----------------------|-----------|--------|--------|--------|--------|---------------|------------|------------|------------|-------|--|
|                  | 산업<br>1 | ...      | 산업<br>n               | 중간<br>수요계 | 소<br>비 | 투<br>자 | 수<br>출 | 이<br>출 | 최종<br>수요<br>계 |            |            |            |       |  |
| 내<br>생<br>부<br>문 | 산업 1    | $X_{11}$ | 투<br>입<br>구<br>조<br>↓ | $X_{1n}$  | $W_1$  | $C_1$  | $I_1$  | $E_1$  | $O_1$         | $Y_1$      | $M_1$      | $N_1$      | $X_1$ |  |
|                  | :       |          |                       | 배 분 구 조 → |        |        |        |        |               |            |            |            |       |  |
|                  | 산업 n    | $X_{n1}$ |                       | $X_{nn}$  | $W_n$  | $C_n$  | $I_n$  | $E_n$  | $O_n$         | $Y_n$      | $M_n$      | $N_n$      | $X_n$ |  |
|                  | 중간투입계   | $U_1$    |                       | $U_n$     |        |        |        |        |               |            |            |            |       |  |
| 외<br>생<br>변<br>수 | 피용자보수   | $R_1$    | $R_n$                 |           |        |        |        |        |               |            |            |            |       |  |
|                  | 영업잉여    | $S_1$    | $S_n$                 |           |        |        |        |        |               |            |            |            |       |  |
|                  | 고정자본소모  | $D_1$    | $D_n$                 |           |        |        |        |        |               |            |            |            |       |  |
|                  | 기타생산세   | $T_1$    | $T_n$                 |           |        |        |        |        |               |            |            |            |       |  |
|                  | 부가가치계   | $V_1$    | $V_n$                 |           |        |        |        |        |               |            |            |            |       |  |
| 지역내 산출액          | $X_1$   | $X_n$    |                       |           |        |        |        |        |               |            |            |            |       |  |

자료: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15

지역내 산업연관표에서는 해당 지역 안의 산업간 거래관계는 <표 3-15>와 같이 상세히 표시되지만 타 지역과의 거래관계는 이출 또는 이입으로 일괄 계상하게 되므로 어느 지역의 어떤 산업과의 거래관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반면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지역 간의 생산 활동에 대한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 간의 이입 또는 이출을 매개로 산업간 및 지역 간의 거래관계를 구분하고 기록한 산업연관표이다(현민철 외, 2016).

<표 3-16> 지역간 산업연관표 기본구조

| 구 분              |                                |                 | 중 간 수 요               |                 |                              | 최 종 수 요        |                              |                | 지역내 산출액 |
|------------------|--------------------------------|-----------------|-----------------------|-----------------|------------------------------|----------------|------------------------------|----------------|---------|
|                  |                                |                 | 지역 1                  | ...             | 산업n                          | 지역 1           | ...                          | 지역 r           |         |
|                  |                                |                 | 산업1 ...<br>산업n        | 산업1 ...<br>산업n  | 산업1 ...<br>산업n               | 소 투 수<br>비 자 출 | 소 투 수<br>비 자 출               | 소 투 수<br>비 자 출 |         |
| 국<br>산<br>투<br>입 | 지역 1<br>:<br>산업 1<br>:<br>산업 n | Z <sub>11</sub> | 투<br>입<br>구<br>조<br>↓ | Z <sub>1r</sub> | Y <sub>11</sub> <sup>d</sup> | ...            | Y <sub>1r</sub> <sup>d</sup> | X <sub>1</sub> |         |
|                  | :                              |                 |                       | 배 분 구 조 →       |                              |                |                              |                |         |
|                  | 지역 r<br>:<br>산업 1<br>:<br>산업 n | Z <sub>r1</sub> |                       | Z <sub>rr</sub> | Y <sub>r1</sub> <sup>d</sup> | ...            | Y <sub>rr</sub> <sup>d</sup> | X <sub>n</sub> |         |
| 수입 투입            | 산업 1<br>:<br>산업 n              | M <sub>1</sub>  |                       | M <sub>1</sub>  | Y <sub>1</sub> <sup>m</sup>  | ...            | Y <sub>r</sub> <sup>m</sup>  |                |         |
| 부가가치             |                                | V <sub>1</sub>  |                       | V <sub>1</sub>  |                              |                |                              |                |         |
| 지역내산출액           |                                | X <sub>1</sub>  |                       | X <sub>1</sub>  |                              |                |                              |                |         |

자료: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15

<표 3-16>처럼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분석하면 특정지역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 지역의 각각의 산업에 미치는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 지역경제성 분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2) 산업간 연쇄효과

산업연관분석 모형에서 특정 산업의 생산은 경제 내에서 다른 산업에 대해 전방 및 후방연쇄효과라는 두 가지 종류의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다(곽승준 외, 2002).

산업간 연쇄효과는 산업부문 간 상호의존관계를 전체 산업 평균 수치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방연쇄효과(감응도계수) 및 후방연쇄효과(영향력계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방 연쇄효과와 후방 연쇄효과는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산업을 가려내는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가) 전방연쇄효과(감응도계수)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는 감응도계수라고도 하며, 이는 당해 산업 생산유발계수의 행(가로방향) 총합을 전체 산업부문의 생산유발계수 평균으로 나누어 도출한다. 전체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 한 단위씩 증가했을 경우, 특정산업이 받게 된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에 비하여 전체 산업의 생산 활동에 주는 공급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응도계수는 전체 산업의 최종수요를 모두 한 단위씩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산업이 생산해야 할 단위의 전 산업 평균치에 대한 비율로서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한다(곽승준 외, 2002).

### (나) 후방연쇄효과(영향력계수)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는 영향력계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이는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체 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되는 것으로 당해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열(세로방향) 합계를 전체 산업 부문의 생산유발계수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즉, 영향력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생산물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그 결과로 전체 산업부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며,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동일 금액과 대비하여 모든 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정옥균 외, 2020).

1보다 큰 값을 갖게 될 경우, 그 부문의 영향력이 모든 산업 평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의 산출물이 각 산업부문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전방연쇄효과가 커지며, 산업의 산출물 생산에 다양한 부문의 중간재가 사용될수록 후방연쇄효과는 커진다(곽승준 외, 2002).

### (3) 부가가치 순이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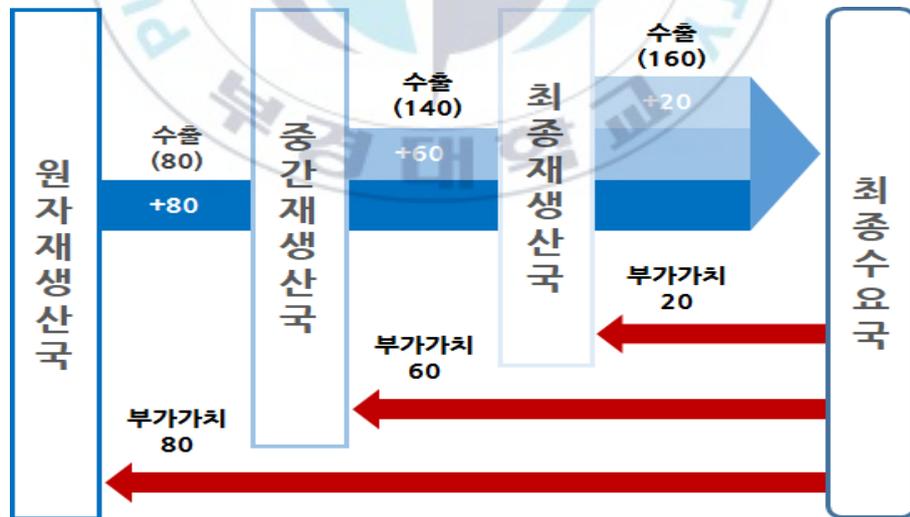
국가 간 부가가치기준의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은 특정국가의 최종수요를 위해 국가 간 생산과 수출입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크기를 말하고, 국가 간 총액(gross value) 기준으로 측정되는 기존 수출입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기존 수출입 총액을 측정하는 무역통계에서 중복으로 계상되는 중간재 가격을 제외한다(이민규 외, 2017).

부가가치기준 무역의 개념과 같이 부가가치 순이입은 생산단계별로 지역 간 재화와 서비스의 이입·이출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업의 부가가치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할 수 있다. 즉, 권역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순이입은 타

권역의 최종수요로 인해 자기권역에서 창출되는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이입과 자기권역의 최종수요가 타권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 이출의 차이로 계산한다(이민규, 2017).

<그림 3-4>와 같이 원자재 생산국가 - 중간재 생산국가 - 최종재 생산국가 - 최종수요국가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에서 발생하는 수출입액의 총합은 380이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취득하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면 모든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가치는 160이다. 이렇듯 글로벌 교역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 간 교역이 각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글로벌 부가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기준으로 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이 제안되었다(박선율, 2019).

<그림 3-4> 국가간 무역총액과 부가가치 흐름



주: 박선율(2019)

## 나. 분석 방법

### (1) 생산유발계수

산업부문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 무한히 계속 발생하는 생산과급효과를 하나하나 모두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산유발계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행렬을 활용해 생산과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계수이다. 두 개의 지역으로 조합된 지역간 산업연관표에서 두 개 지역의 각 산업에서 생산된 산출액( $X$ ), 잔폐물발생액( $ZA$ ), 중간수요( $Z$ ), 최종수요( $Y$ )로 배분되는 수급방정식은 (6)과 (7)의 산식과 같다.

$$Z_{11} + Z_{12} + Y_{11}^d + Y_{12}^d = X_1 + ZA_1 \quad (6)$$

$$Z_{21} + Z_{22} + Y_{21}^d + Y_{22}^d = X_2 + ZA_2 \quad (7)$$

(6)과 (7)의 수급방정식에 투입계수( $A_{ij} = Z_{ij}/X_j$ )를 대입한 후에 잔폐물 발생액을 좌측으로 옮기면 (8)과 (9)와 같은 산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A_{11}^d X_1 + A_{12} X_2 + Y_{11}^d + Y_{12}^d - ZA_1 = X_1 \quad (8)$$

$$A_{21}^d X_1 + A_{22} X_2 + Y_{21}^d + Y_{22}^d - ZA_2 = X_2 \quad (9)$$

위의 수급방정식을 행렬 형식을 통해 일련의 부등식으로 표기하게 되면 아래와 같다.

$$A^d X + Y^d - ZA = X \quad (10)$$

(10)의 수급방정식을 산출액과 최종수요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begin{aligned}
 A^d X + Y^d - ZA &= X & A^d &: \text{국산투입계수행렬} \\
 (I - A^d)X &= Y^d - ZA & X &: \text{총산출액벡터} \\
 X &= (I - A^d)^{-1}(Y^d - ZA) & Y &: \text{국산품에 대한} \\
 & & & \text{최종수요벡터} \\
 & & I &: \text{단위행렬}
 \end{aligned} \tag{11}$$

(11)의 마지막 식에 나타난  $(I - A^d)^{-1}$ 는 생산유발계수로서 산출액과 최종수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각각의 산업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크기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는 레온티에프 역행렬(Leontief inverse matrix)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정옥균 외, 2020). 두 개의 지역으로 조합된 지역간 산업연관표에서 생산유발계수  $(I - A^d)^{-1}$ 는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I - A^d)^{-1} &= \left\{ \begin{bmatrix} I & 0 \\ 0 & I \end{bmatrix} - \begin{bmatrix} A_{11}^d & A_{12}^d \\ A_{21}^d & A_{22}^d \end{bmatrix} \right\}^{-1} \\
 &= \begin{bmatrix} I - A_{11}^d & -A_{12}^d \\ -A_{21}^d & I - A_{22}^d \end{bmatrix}^{-1}
 \end{aligned} \tag{12}$$

## (2) 부가가치유발계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이는 국내생산을 유발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여러 단계의 생산과정을 거쳐 부가가치와 고용, 수입을 유발하게 된다. 부가가치유발계수를 통해 최종수요에 의한 부가

가치 측정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부가가치계수  $v(=V_j/X_j)$ 의 대각행렬과 생산유발계수 행렬의 곱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도출할 수 있는 산식은  $\hat{A}^v(I-A^d)^{-1}$ 로 나타낼 수 있으며,  $C=(I-A^d)^{-1}$ 일 때 부가가치유발계수 산출식을 행렬 형태로 표기하게 되면 식 (13)과 같다.

$$\hat{A}^v(I-A^d) = \begin{bmatrix} \hat{A}_1^v & 0 \\ 0 & \hat{A}_2^v \end{bmatrix} \begin{bmatrix} C_{11} & C_{12} \\ C_{21} & C_{22} \end{bmatrix} \quad (13)$$

### (3) 취업유발계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가는 부가가치를 유발할 뿐 만 아니라 고용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최종수요와 노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되는 취업유발계수는 취업계수  $l(=L_j/X_j)$ 의 대각행렬인  $\hat{l}$ 와 생산유발계수의 곱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취업계수에서 표기되고 있는  $L_i$ 는  $i$ 산업에 투입된 노동량을 의미하고,  $X_i$ 는 산출액을 의미한다. 최종수요 발생이 각 지역의 노동과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이 취업유발계수를 통해 산출가능하다. 취업유발계수를 도출하는 산식은  $\hat{l}(I-A^d)^{-1}$ 이며,  $C=(I-A^d)^{-1}$ 일 때 행렬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산식 (14)와 같다.

$$\hat{l}(I-A^d) = \begin{bmatrix} \hat{l}_1 & 0 \\ 0 & \hat{l}_2 \end{bmatrix} \begin{bmatrix} C_{11} & C_{12} \\ C_{21} & C_{22} \end{bmatrix} \quad (14)$$

#### (4) 전방연쇄효과

$i$ 산업의 감응도계수( $FL_i$ )는  $i$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a_{ij}$ ) 행의 합계를 전체 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산업의 재화 및 서비스가 중간재로 많이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높고, 산출하는 산식은 (15)와 같다.

$$FL_i = \frac{\sum_{j=1}^n a_{ij}}{\frac{1}{n} \sum_{j=1}^n \sum_{i=1}^n a_{ij}} \quad (15)$$

#### (5) 후방연쇄효과

$i$ 산업의 영향력계수( $BL_i$ )는  $i$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 $a_{ij}$ ) 열의 합계를 모든 산업의 평균값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특정 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하여 여러 산업의 재화와 서비스가 많이 투입될 경우에 영향력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 영향력계수 산출식은 (16)과 같다.

$$BL_i = \frac{\sum_{i=1}^n a_{ij}}{\frac{1}{n} \sum_{i=1}^n \sum_{j=1}^n a_{ij}} \quad (16)$$

#### (6) 부가가치 순이입

다른 국가에 의한 부가가치 이입(VA-in)에서 자국의 최종수요에 의해 다른 국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이출(VA-out)을 차감하여 구하는 부가가치 기준무역(TiVA)과 같이 최종수요를 반영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자기지

역의 최종수요에 의한 효과와 타지역의 최종수요에 의한 효과로 구분하고, 부가가치기준무역의 개념과 산출 방식을 지역산업연관표에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정옥균 외, 2020).

지역 1, 지역 2가 존재하는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지역 1에 대한 부가가치의 이입( $VA_1^{in}$ )과 이출( $VA_1^{out}$ )은 아래와 같이 각각 산출할 수 있다.

$$VA_1^{in} = \begin{bmatrix} \hat{A}_1^v & 0 \\ 0 & 0 \end{bmatrix} \begin{bmatrix} C_{11} & C_{12} \\ C_{21} & C_{22} \end{bmatrix} \begin{bmatrix} Y_{12}^d \\ Y_{22}^d \end{bmatrix} \quad (17)$$

$$VA_1^{out} = \begin{bmatrix} 0 & 0 \\ 0 & \hat{A}_2^v \end{bmatrix} \begin{bmatrix} C_{11} & C_{12} \\ C_{21} & C_{22} \end{bmatrix} \begin{bmatrix} Y_{11}^d \\ Y_{21}^d \end{bmatrix} \quad (18)$$

지역 1의 부가가치 순이입( $VA_1^{net}$ )은 부가가치 이출( $VA_1^{out}$ )에서 부가가치 이입( $VA_1^{in}$ )을 공제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는 식 (19)로 표현할 수 있다.

$$VA_1^{net} = VA_1^{in} - VA_1^{out} \quad (19)$$

예를 들어, 부산지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순이입은 다른 지역의 최종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산업의 부가가치 이입과 부산지역 최종수요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 이출의 차이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 순이입 분석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지역별 부가가치 이전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특정지역의 최종수요가 어느 지역의 부가가치에 배분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지역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정옥균 외, 2020)

## 다. 분석 결과

2015년에 한국은행은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발표하면서 전체 산업을 통합소분류 161개 부문, 통합중분류 82개 부문, 통합대분류 30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3-17>처럼 통합대분류 30개 부문을 기본 산업으로 하여 도소매서비스업부터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까지 12개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설정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17>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산업연관표 분류

| 구분 | 부 문             | 비 고   | 구분 | 부 문              | 비 고      |
|----|-----------------|-------|----|------------------|----------|
| 1  | 농림품             | 농림수산업 | 16 | 전력, 가스 및 증기      | 전력 및 수도업 |
| 2  | 광산품             | 광산업   | 17 |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          |
| 3  | 음식료품            | 제조업   | 18 | 건설               | 서비스업     |
| 4  | 섬유 및 가죽제품       |       | 19 | 도소매서비스           |          |
| 5  | 목재 및 종이, 인쇄     |       | 20 | 운송서비스            |          |
| 6  | 석탄 및 석유제품       |       | 21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          |
| 7  | 화학제품            |       | 22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          |
| 8  | 비금속광물제품         |       | 23 | 금융 및 보험서비스       |          |
| 9  | 1차 금속제품         |       | 24 | 부동산 및 임대         |          |
| 10 | 금속제품            |       | 25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
| 11 | 기계 및 장비         |       | 26 | 사업지원서비스          |          |
| 12 | 전기 및 전자기기       |       | 27 | 공공행정 및 국방        |          |
| 13 | 정밀기기            |       | 28 | 교육서비스            |          |
| 14 | 운송장비            |       | 29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
| 15 |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입가공 |       | 30 | 문화 및 기타서비스       |          |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는 16개 광역지자체의 각 지역 간, 각 산업간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지자체를 <표 3-18> 같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울산·경남권, 강원·제주권, 부산권 등 7개 지역으로 통합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3-18>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지역 구분

| 구분    | 대상 지역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충청권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 호남권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
| 대구경북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울산경남권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강원제주권 | 강원도, 제주도          |
| 부산권   | 부산광역시             |

(1) 경제적 유발효과 분석

(가)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는 서비스산업의 최종수요 한 단위가 증가되었을 때 지역과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생산을 유발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산업연관분석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등 부산 서비스산업이 유발한 각 지역별 생산유발계수는 12개 서비스산업 모두 다른 지역보다 부산지역에서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의 생산유발계수가 2.0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이 1.9023,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은 1.8445로 나타났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은 부산자체가 1.2089로 12개 서비스산업 중에서 중간 순위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생산유발계수가 0.8633으로 월등하게 높아 전체 생산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자체적으로 높은 생산유발계수는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1.3500으로 가장 높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 1.2930, 도소매서비스업 1.2877로 이어진다.

<표 3-19> 부산 서비스산업의 지역별 생산유발계수

| 구분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 구<br>경북권 | 울 산<br>경남권 | 강 원<br>제주권 | 타지역<br>소 계 | 부산권    | 합 계    | 순위 |
|-------------------|--------|--------|--------|------------|------------|------------|------------|--------|--------|----|
| 도소매<br>서비스        | 0.1791 | 0.0386 | 0.0315 | 0.0343     | 0.0887     | 0.0078     | 0.3800     | 1.2877 | 1.6676 | 5  |
| 운송서비스             | 0.1366 | 0.0502 | 0.0672 | 0.0333     | 0.1654     | 0.0069     | 0.4597     | 1.1764 | 1.6361 | 7  |
| 음식점 및<br>숙박서비스    | 0.2901 | 0.1299 | 0.1188 | 0.0857     | 0.2013     | 0.0374     | 0.8633     | 1.2089 | 2.0722 | 1  |
| 정보통신 및<br>방송서비스   | 0.3151 | 0.0569 | 0.0357 | 0.0472     | 0.0864     | 0.0109     | 0.5522     | 1.3500 | 1.9023 | 2  |
| 금융 및<br>보험서비스     | 0.2123 | 0.0298 | 0.0214 | 0.0243     | 0.0590     | 0.0064     | 0.3532     | 1.2930 | 1.6462 | 6  |
| 부동산 및<br>임대       | 0.1315 | 0.0206 | 0.0199 | 0.0178     | 0.0614     | 0.0045     | 0.2557     | 1.2097 | 1.4654 | 10 |
| 전문, 과학 및<br>기술서비스 | 0.1646 | 0.0450 | 0.0321 | 0.0307     | 0.0829     | 0.0080     | 0.3634     | 1.2186 | 1.5819 | 8  |
| 사업지원<br>서비스       | 0.1412 | 0.0475 | 0.0316 | 0.0306     | 0.0810     | 0.0077     | 0.3397     | 1.1972 | 1.5369 | 9  |
| 공공행정<br>및 국방      | 0.0806 | 0.0203 | 0.0180 | 0.0164     | 0.0470     | 0.0041     | 0.1864     | 1.1022 | 1.2885 | 12 |
| 교육서비스             | 0.1073 | 0.0324 | 0.0261 | 0.0245     | 0.0904     | 0.0066     | 0.2874     | 1.1352 | 1.4226 | 11 |
| 보건 및 사회<br>복지서비스  | 0.2466 | 0.0935 | 0.0606 | 0.0342     | 0.0972     | 0.0139     | 0.5460     | 1.1912 | 1.7373 | 4  |
| 문화 및<br>기타서비스     | 0.2160 | 0.0987 | 0.0639 | 0.0655     | 0.1746     | 0.0138     | 0.6326     | 1.2118 | 1.8445 | 3  |

한편, 부산 서비스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부산의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서비스산업의 상대적인 지역경제기여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석을 통해 부산 전체 산업 중에서 당해 서비스산업에 의해 생산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난 상위 5개의 산업을 살펴보았다. 다만, 이 분석에서 자기 산업을 포함하여 상위 5개 산업을 도출할 경우, 자기 산업이 가장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위 5개 산업분석은 자기 산업을 제외하고 산출하였다.

<표 3-20> 부산 서비스산업별 생산유발계수 상위 5개 산업

| 구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 도소매 서비스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533) | 부동산 및 임대 (0.0507)     | 운송서비스 (0.0366)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330)    | 사업지원 서비스 (0.0210)      |
| 운송서비스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187)   | 사업지원 서비스 (0.0149)     | 문화 및 기타서비스 (0.0148)   | 부동산 및 임대 (0.0138)      | 운송장비 (0.0108)          |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 부동산 및 임대 (0.0461)     | 도소매서비스 (0.0296)       | 음식료품 (0.0294)         | 농림품 (0.0200)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171)    |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 도소매서비스 (0.0409)       | 사업지원 서비스 (0.0389)     | 공공행정 및 국방 (0.0236)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0.0219) | 부동산 및 임대 (0.0198)      |
| 금융 및 보험서비스    | 사업지원 서비스 (0.0379)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378) | 부동산 및 임대 (0.0289)     | 문화 및 기타서비스 (0.0202)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0.0177) |
| 부동산 및 임대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982)   | 전력,가스 및 증기 (0.0268)   | 건설 (0.0140)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077)  | 사업지원 서비스 (0.0072)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390) | 부동산 및 임대 (0.0266)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245)   | 운송서비스 (0.0183)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153)   |
| 사업지원 서비스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287)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281)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205)  | 부동산 및 임대 (0.0202)      | 운송서비스 (0.0171)         |
| 공공행정 및 국방     | 문화 및 기타서비스 (0.0139)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109)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097) | 운송서비스 (0.0086)         | 사업지원 서비스 (0.0076)      |
| 교육서비스         | 전력,가스 및 증기 (0.0215)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199)  | 부동산 및 임대 (0.0118)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109)  | 문화 및 기타서비스 (0.0101)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부동산 및 임대 (0.0319)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268)   | 도소매서비스 (0.0205)       | 문화 및 기타서비스 (0.0170)    | 전력,가스 및 증기 (0.0144)    |
| 문화 및 기타 서비스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253)   | 부동산 및 임대 (0.0209)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195)  | 전력,가스 및 증기 (0.0180)    | 도소매서비스 (0.0134)        |

<표 3-20>에서와 같이, 도소매서비스업으로 인해 부산의 30개 산업 중 자기 산업을 제외하게 되면,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이 0.0533으로 가장 높은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소매서비스업의 생산 활동과정에 홈쇼핑, 광고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거나 광고와 방송서비

스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의 각 서비스산업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으로 운송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각각 1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산시가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금융중심지로서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해양중심도시로서 선박, 해운 등을 통한 해양금융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이전정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형 금융공공기관이 부산에 위치하면서 금융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한 몫을 발휘한 것으로 생각된다.

#### (나) 부가가치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산업의 최종수요 한 단위의 증감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정도를 의미한다. 산업연관표는 기본적으로 공급능력과 노동력 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 최종수요의 변동이 생산 활동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생산 활동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간주한다. 부가가치는 일정기간 동안(통상 1년)에 생산 활동으로 새로 창출한 가치를 의미하고, 총산출액(총투입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투입된 본원적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사용대가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보조금 차감)를 말한다(한국은행, 2014).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을 경우, 이는 국가, 기업, 노동자의 소득 증가가 높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각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표 3-21> 부산 서비스산업의 지역별 부가가치유발계수

| 구분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 구<br>경북권 | 울 산<br>경남권 | 강 원<br>제주권 | 타지역<br>소 계 | 부산권    | 합 계    | 순위 |
|----------------|--------|--------|--------|------------|------------|------------|------------|--------|--------|----|
| 도소매 서비스        | 0.0737 | 0.0110 | 0.0075 | 0.0113     | 0.0216     | 0.0033     | 0.1284     | 0.7299 | 0.8583 | 5  |
| 운송서비스          | 0.0526 | 0.0120 | 0.0107 | 0.0105     | 0.0264     | 0.0028     | 0.1150     | 0.4097 | 0.5247 | 12 |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 0.1068 | 0.0378 | 0.0347 | 0.0309     | 0.0509     | 0.0157     | 0.2768     | 0.4745 | 0.7513 | 11 |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 0.1360 | 0.0186 | 0.0109 | 0.0168     | 0.0254     | 0.0054     | 0.2130     | 0.5870 | 0.8000 | 8  |
| 금융 및 보험서비스     | 0.0953 | 0.0091 | 0.0059 | 0.0084     | 0.0167     | 0.0028     | 0.1382     | 0.7124 | 0.8506 | 6  |
| 부동산 및 임대       | 0.0597 | 0.0062 | 0.0049 | 0.0060     | 0.0141     | 0.0018     | 0.0927     | 0.8241 | 0.9167 | 2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0.0681 | 0.0130 | 0.0077 | 0.0100     | 0.0216     | 0.0035     | 0.1239     | 0.7198 | 0.8437 | 7  |
| 사업지원 서비스       | 0.0564 | 0.0130 | 0.0075 | 0.0100     | 0.0208     | 0.0033     | 0.1110     | 0.7661 | 0.8771 | 4  |
| 공공행정 및 국방      | 0.0334 | 0.0059 | 0.0041 | 0.0053     | 0.0111     | 0.0018     | 0.0616     | 0.8598 | 0.9214 | 1  |
| 교육서비스          | 0.0426 | 0.0093 | 0.0061 | 0.0083     | 0.0220     | 0.0029     | 0.0912     | 0.7952 | 0.8864 | 3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0.0915 | 0.0245 | 0.0141 | 0.0118     | 0.0230     | 0.0058     | 0.1707     | 0.6224 | 0.7932 | 9  |
| 문화 및 기타서비스     | 0.0826 | 0.0259 | 0.0144 | 0.0197     | 0.0413     | 0.0054     | 0.1892     | 0.6030 | 0.7922 | 10 |

<표 3-21>과 같이, 서비스산업 중에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으로서 0.9214이다. 그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 0.9167, 교육서비스업 0.8864 순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높게 나타난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지역 부가가치유발계수 합이 0.0616으로 서비스산업 중에서 가장 낮게 나왔으나, 부산 자체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가장 높게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부산 서비스산업 중에서 부가

가치유발계수가 가장 낮은 것은 운송서비스업으로서 0.4097로 분석되었다. 부산이 국내 최대의 항만도시로서 물류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낮은 이유는 부산이 수출입 항만기지로서 국내운송보다는 주로 해외 해상운송 위주로 운송이 이루어지고, 대형선박의 용선료 지불 등 운송서비스가 수출로 계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표 3-22> 부산 서비스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상위 5개 산업**

| 구 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 도소매 서비스       | 부동산 및 임대 (0.0365)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217)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184)   | 사업지원 서비스 (0.0140)      | 운송서비스 (0.0121)           |
| 운송서비스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104) | 사업지원 서비스 (0.0100)     | 부동산 및 임대 (0.0099)     | 문화 및 기타서비스 (0.0075)    | 도소매서비스 (0.0051)          |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 부동산 및 임대 (0.0332)   | 도소매서비스 (0.0174)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095)   | 농림품 (0.0092)           | 음식료품 (0.0046)            |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 사업지원 서비스 (0.0261)   | 도소매서비스 (0.0240)       | 공공행정 및 국방 (0.0192)    | 부동산 및 임대 (0.0143)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0.0134)   |
| 금융 및 보험서비스    | 사업지원서비스 (0.0405)    | 부동산 및 임대 (0.0208)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154)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0.0109) | 문화 및 기타서비스 (0.0103)      |
| 부동산 및 임대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548) | 전력,가스 및 증기 (0.0060)   | 사업지원 서비스 (0.0048)     | 건설 (0.0045)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031)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 부동산 및 임대 (0.0192)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159)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137)   | 사업지원 서비스 (0.0071)      | 운송서비스 (0.0060)           |
| 사업지원서비스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160) | 부동산 및 임대 (0.0145)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114)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076)   | 운송서비스 (0.0056)           |
| 공공행정 및 국방     | 문화 및 기타서비스 (0.0071)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060)   | 부동산 및 임대 (0.0051)     | 사업지원 서비스 (0.0051)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039)    |
| 교육서비스         | 부동산 및 임대 (0.0085)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074)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056)   | 문화및기타 서비스 (0.0051)     | 전력,가스 및증기 (0.0048)       |
| 보건 및 사회 복지서비스 | 부동산 및 임대 (0.0229)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149)   | 도소매서비스 (0.0120)       | 문화및기타 서비스 (0.0087)     | 수도,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0064) |
| 문화 및 기타 서비스   | 부동산 및 임대 (0.0151)   |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141)   | 사업지원 서비스 (0.0087)     | 도소매서비스 (0.0079)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073)     |

<표 3-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산 서비스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상위 5개 산업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인하여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이 0.0548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산시가 수출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산항을 안고 있는 도시로서 물류·유통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물류·유통창고, 화물 운송, 보세구역, 컨테이너 장치장, 컨테이너 야적장, 기계·장비의 임대 등 부동산 및 임대업이 금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산의 서비스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인 산업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전체 서비스산업 12개 업종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6개 산업에서 1위로 조사 되었는데, 이는 부산의 서비스산업 활동에 있어 부동산 및 임대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다) 취업유발계수

각각의 해당 산업에 10억 원의 최종수요가 증가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를 분석해 보았다.

<표 3-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산업 중에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가 36.65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어서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28.1981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산권 자체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산권 내에서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낮은 서비스업종은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조사되었고, 이 업종은 부산권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가장 낮은 업종 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부산 서비스산업의 지역별 취업유발계수

(단위 명/10억 원)

| 산업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구<br>경북권 | 울산<br>경남권 | 강원<br>제주권 | 타지역<br>소계 | 부산권     | 합계      | 순위 |
|------------------|--------|--------|--------|-----------|-----------|-----------|-----------|---------|---------|----|
| 도소매<br>서비스       | 1.335  | 0.204  | 0.184  | 0.255     | 0.451     | 0.108     | 2546      | 186691  | 21.2137 | 4  |
| 운송서비스            | 0.9082 | 0.1838 | 0.1748 | 0.2159    | 0.3718    | 0.0798    | 1.9338    | 127371  | 146709  | 8  |
| 음식점 및<br>숙박서비스   | 2.1484 | 1.0572 | 1.2332 | 1.0316    | 1.2022    | 0.5330    | 7.2576    | 185446  | 258022  | 3  |
| 정보통신 및<br>방송서비스  | 2.4157 | 0.3535 | 0.2951 | 0.3779    | 0.5335    | 0.1738    | 4.1465    | 9.1796  | 13.3291 | 9  |
| 금융 및<br>보험서비스    | 1.5502 | 0.1795 | 0.1600 | 0.2023    | 0.3788    | 0.0919    | 2.5627    | 9.9089  | 12.4716 | 10 |
| 부동산 및<br>임대      | 0.8473 | 0.0989 | 0.0985 | 0.1169    | 0.1714    | 0.0439    | 1.3779    | 6.1162  | 7.4941  | 12 |
| 전문 과학 및<br>기술서비스 | 1.1438 | 0.2218 | 0.1774 | 0.2239    | 0.4351    | 0.1049    | 2.3109    | 15.4426 | 17.7535 | 7  |
| 사업지원<br>서비스      | 1.0050 | 0.2233 | 0.1857 | 0.2408    | 0.4360    | 0.1106    | 2.2573    | 34.4011 | 36.6584 | 1  |
| 공공행정<br>및 국방     | 0.5506 | 0.0985 | 0.0904 | 0.1114    | 0.1990    | 0.0497    | 1.0996    | 9.0736  | 10.1732 | 11 |
| 교육서비스            | 0.7602 | 0.1764 | 0.1563 | 0.1976    | 0.4310    | 0.0920    | 1.8135    | 17.0446 | 18.8581 | 5  |
| 보건 및 사회<br>복지서비스 | 1.5091 | 0.3666 | 0.3305 | 0.2873    | 0.3773    | 0.1663    | 3.0671    | 15.5969 | 18.6340 | 6  |
| 문화 및<br>기타서비스    | 1.4235 | 0.3987 | 0.3058 | 0.4084    | 0.6369    | 0.1613    | 3.3305    | 24.8376 | 28.1981 | 2  |

부산 서비스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상위 5개 산업을 분석한 결과, <표 3-2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2개 서비스산업 중에서 6개 산업에서 1위로 도출되었다.

이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주로 사업시설의 방제와 청소 등을 포함한 시설 유지·관리, 사무지원 서비스,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취업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도 6개 업종에서 1위 또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이 매년 글로벌 행사인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와 국제적인

게임전시회인 G-STAR 개최 등에 따른 영상·영화·게임콘텐츠산업이 발달된 도시이고 대규모 해수욕장과 부산 불꽃축제, 원아시아 페스티벌, 의료관광 등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도시라는 점이 주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3-24> 부산 서비스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상위 5개 산업

(단위: 명/10억 원)

| 구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 도소매서비스         | 사업지원 서비스<br>(0.6761)    | 운송서비스<br>(0.3937)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br>(0.2786)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br>(0.2635)    | 문화 및 기타서비스<br>(0.2477)   |
| 운송서비스          | 사업지원 서비스<br>(0.4818)    | 문화 및 기타서비스<br>(0.3377)  | 도소매서비스<br>(0.1396)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br>(0.1223)    | 금융 및 보험서비스<br>(0.1210)   |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 도소매서비스<br>(0.4695)      | 부동산 및 임대<br>(0.2094)    | 운송서비스<br>(0.1376)          | 음식료품<br>(0.1264)           | 농림품<br>(0.1174)          |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 사업지원 서비스<br>(1.2518)    | 도소매서비스<br>(0.6484)      | 문화 및 기타서비스<br>(0.3025)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br>(0.2918)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br>(0.1862) |
| 금융 및 보험서비스     | 사업지원 서비스<br>(1.2184)    | 문화 및 기타서비스<br>(0.4608)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br>(0.2366)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br>(0.2222)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br>(0.1976) |
| 부동산 및 임대       | 금융 및 보험서비스<br>(0.6328)  | 사업지원 서비스<br>(0.2335)    | 건설<br>(0.1136)             | 문화 및 기타서비스<br>(0.1134)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br>(0.0605)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사업지원 서비스<br>(0.3423)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br>(0.2594) | 문화 및 기타서비스<br>(0.2276)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br>(0.2042)   | 운송서비스<br>(0.1967)        |
| 사업지원 서비스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br>(0.3466) | 문화 및 기타서비스<br>(0.2394)  | 금융 및 보험서비스<br>(0.1853)     | 운송서비스<br>(0.1839)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br>(0.1470) |
| 공공행정 및 국방      | 문화 및 기타서비스<br>(0.3186)  | 사업지원 서비스<br>(0.2450)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br>(0.1135)    | 운송서비스<br>(0.0931)          | 금융 및 보험서비스<br>(0.0702)   |
| 교육서비스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br>(0.3375) | 문화 및 기타서비스<br>(0.2314)  | 사업지원 서비스<br>(0.1913)       | 도소매서비스<br>(0.0992)         | 금융 및 보험서비스<br>(0.0648)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문화 및 기타서비스<br>(0.3893)  | 도소매서비스<br>(0.3257)      | 사업지원 서비스<br>(0.1827)       | 금융 및 보험서비스<br>(0.1728)     | 부동산 및 임대<br>(0.1448)     |
| 문화 및 기타서비스     | 사업지원 서비스<br>(0.4211)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br>(0.3297) | 도소매서비스<br>(0.2132)         | 금융 및 보험서비스<br>(0.1635)     | 운송서비스<br>(0.1027)        |

(라) 산업별 유발계수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부산 전체산업에 대한 각 산업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를 산출하여 <표 3-25>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3-25> 부산지역 산업별 유발계수

| 산업               | 생산유발계수 |    | 부가가치유발계수 |    | 취업유발계수  |    |
|------------------|--------|----|----------|----|---------|----|
|                  | 계수     | 순위 | 계수       | 순위 | 인원명/십억원 | 순위 |
| 농림업              | 1.7262 | 22 | 0.6592   | 19 | 9.6738  | 20 |
| 광산업              | 1.9573 | 15 | 0.7355   | 14 | 9.0252  | 22 |
| 음식료품             | 2.3098 | 5  | 0.6320   | 22 | 16.0518 | 10 |
| 섬유 및 가죽제품        | 1.9982 | 12 | 0.5681   | 26 | 13.6854 | 13 |
| 목재 및 종이, 인쇄      | 2.0155 | 11 | 0.6203   | 24 | 18.3385 | 8  |
| 석탄 및 석유제품        | 1.9268 | 16 | 0.3506   | 30 | 5.4991  | 29 |
| 화학제품             | 2.1291 | 8  | 0.5693   | 25 | 8.4889  | 24 |
| 비금속광물제품          | 2.3350 | 4  | 0.6730   | 16 | 10.3026 | 16 |
| 1차 금속제품          | 2.5599 | 1  | 0.5258   | 27 | 6.3087  | 28 |
| 금속제품             | 2.3456 | 3  | 0.6547   | 20 | 8.3690  | 25 |
| 기계 및 장비          | 2.1940 | 7  | 0.6604   | 18 | 9.8665  | 19 |
| 전기 및 전자기기        | 1.9664 | 14 | 0.6240   | 23 | 8.3032  | 26 |
| 정밀기기             | 1.8430 | 20 | 0.6696   | 17 | 10.0024 | 18 |
| 운송장비             | 2.4414 | 2  | 0.6393   | 21 | 8.5547  | 23 |
|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 2.0342 | 10 | 0.7614   | 12 | 18.4044 | 7  |
| 전력, 가스 및 증기      | 1.9726 | 13 | 0.4824   | 29 | 4.8537  | 30 |
|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 1.8897 | 18 | 0.7714   | 11 | 9.6493  | 21 |
| 건설               | 2.2758 | 6  | 0.7170   | 15 | 14.3557 | 12 |
| 도소매서비스           | 1.6676 | 23 | 0.8583   | 5  | 21.2137 | 4  |
| 운송서비스            | 1.6361 | 25 | 0.5247   | 28 | 14.6709 | 11 |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 2.0722 | 9  | 0.7513   | 13 | 25.8022 | 3  |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 1.9023 | 17 | 0.8000   | 8  | 13.3291 | 14 |
| 금융 및 보험서비스       | 1.6462 | 24 | 0.8506   | 6  | 12.4716 | 15 |
| 부동산 및 임대         | 1.4654 | 28 | 0.9167   | 2  | 7.4941  | 27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1.5819 | 26 | 0.8437   | 7  | 17.7535 | 9  |
| 사업지원서비스          | 1.5369 | 27 | 0.8771   | 4  | 36.6584 | 1  |
| 공공행정 및 국방        | 1.2885 | 30 | 0.9214   | 1  | 10.1732 | 17 |
| 교육서비스            | 1.4226 | 29 | 0.8864   | 3  | 18.8581 | 5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1.7373 | 21 | 0.7932   | 9  | 18.6340 | 6  |
| 문화 및 기타서비스       | 1.8445 | 19 | 0.7922   | 10 | 28.1981 | 2  |
| 평균               | 1.9241 |    | 0.7043   |    | 13.8330 |    |

부산의 산업은 <표 3-2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산유발효과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분야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서비스업분야가 농수산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이 전체 30개 산업 중 0.9214로 1위, 0.9167로 2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서비스산업군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차지하였고, 취업유발효과에서도 사업지원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이 36.6584로 1위, 28.1981로 2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1위부터 6위까지 서비스산업군에서 차지하였다. 반면에 생산유발효과는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이 1.2885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이 하위그룹에 속하고 있다.

한편, 부산은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가 산업간에 서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생산유발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1차 금속산업은 2.5599로서 가장 낮은 산업인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의 1.2885에 비해 약 2배의 차이가 있었고, 부가가치유발계수에서는 약 3배로 산출되었고, 취업유발계수는 약 8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 (2) 산업간 연쇄효과 분석

### (가) 감응도계수(전방연쇄효과)

감응도(sensitivity) 계수는 전체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했을 때, 특정 산업이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받은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며, <표 3-26>과 같이 감응도계수를 도출하였다.

<표 3-26> 부산지역 산업간 연쇄효과

| 산업               | 감응도계수  |    | 영향력계수  |    |
|------------------|--------|----|--------|----|
|                  | 계수     | 순위 | 계수     | 순위 |
| 농림품              | 0.9576 | 17 | 0.9348 | 27 |
| 광산품              | 0.8216 | 30 | 1.0861 | 3  |
| 음식료품             | 0.8887 | 21 | 1.0953 | 2  |
| 섬유 및 가죽제품        | 0.9402 | 18 | 0.9987 | 13 |
| 목재 및 종이, 인쇄      | 0.8973 | 20 | 0.9828 | 19 |
| 석탄 및 석유제품        | 0.8362 | 28 | 0.9647 | 22 |
| 화학제품             | 1.0063 | 11 | 0.9645 | 23 |
| 비금속광물제품          | 0.8683 | 24 | 1.0374 | 9  |
| 1차 금속제품          | 1.0894 | 7  | 1.0138 | 12 |
| 금속제품             | 1.0544 | 9  | 1.0394 | 8  |
| 기계 및 장비          | 0.9236 | 19 | 1.0308 | 11 |
| 전기 및 전자기기        | 0.8864 | 22 | 0.9437 | 25 |
| 정밀기기             | 0.8566 | 26 | 0.9374 | 26 |
| 운송장비             | 0.9684 | 16 | 1.0404 | 7  |
|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 0.9700 | 15 | 0.9981 | 14 |
| 전력, 가스 및 증기      | 1.1424 | 6  | 0.9096 | 29 |
|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 1.0018 | 13 | 1.0718 | 4  |
| 건설               | 0.8532 | 27 | 1.0321 | 10 |
| 도소매서비스           | 1.2385 | 3  | 1.0525 | 6  |
| 운송서비스            | 1.4487 | 1  | 0.9615 | 24 |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 1.0045 | 12 | 0.9881 | 18 |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 1.1690 | 4  | 1.1034 | 1  |
| 금융 및 보험서비스       | 1.3626 | 2  | 1.0568 | 5  |
| 부동산 및 임대         | 1.1630 | 5  | 0.9888 | 17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1.0397 | 10 | 0.9960 | 15 |
| 사업지원서비스          | 1.0603 | 8  | 0.9785 | 20 |
| 공공행정 및 국방        | 0.8658 | 25 | 0.9009 | 30 |
| 교육서비스            | 0.8237 | 29 | 0.9278 | 28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0.8695 | 23 | 0.9737 | 21 |
| 문화 및 기타서비스       | 0.9923 | 14 | 0.9905 | 16 |

감응도계수가 1보다 높은 업종은 타 산업의 생산활동에 중간재로 활용되

는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민감한 산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 서비스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산 서비스산업은 감응도계수가 대부분 1보다 높게 산출되어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산업의 감응도계수 순위를 살펴보게 되면, 서비스산업군에서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응도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운송서비스업이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 도소매서비스업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나) 영향력계수(후방연쇄효과)

영향력(power of dispersion) 계수는 특정 산업의 최종수요 한 단위가 발생할 경우, 전체 산업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며, <표 3-26>과 같이 영향력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일수록 영향력계수가 높고, 영향력계수가 높은 산업일수록 그 산업의 생산 활동이 타 산업의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산의 12개 서비스산업 중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등 3개 산업을 제외한 9개의 서비스산업은 영향력계수가 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부산은 재화의 최종수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산지역 12개 서비스산업 중에서 9개 산업에서 후방연쇄효과에 비해 전방연쇄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부산의 서비스산업은 주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다른 산업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큰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부가가치 순이입효과 분석

부산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순이입 산출은 권역별 최종수요에 따른 부산 지역의 각 산업별 부가가치유발액을 산출한 후, 수출물량을 반영한 산업별 부가가치 이입액에서 부가가치 이출액 차감을 통해 순이입을 분석하였다.

<표 3-27>은 7개 권역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순이입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산의 부가가치 순이입은 서비스산업에서 약 8조 4,779억 원, 전체 산업에서 약 12조 7,30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특정 지역의 산업에서 부가가치 순이입이 발생한 것은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산의 12개 서비스산업인 서비스산업군의 부가가치 순이입 8조 4,779억 원은 타지역의 최종수요로 인해 유발된 부산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에서 부산의 최종수요로 인해 유발된 타지역 부가가치를 차감한 것이 8조 4,779억 원이라는 의미다.

부산의 전체 30개 산업 중 부가가치 순이입이 발생하는 것은 19개 산업이나, 서비스분야 12개 산업 중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을 제외한 9개 산업에서 부가가치 순이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분석을 통해 부산의 서비스산업은 농림수산업,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부산 전체 산업 중에서 부가가치 순이입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서비스업종인 도소매서비스산업과 운송서비스산업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부산이 우리나라 수출입 전진기지로서 수출입화물 운송과 물류서비스가 활성화된 물류도시면서, 조선해양업과 수산물 임가공산업 등이 발달한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한편, 부산의 전체 산업 부가가치 순이입 효과 중 서비스산업군에서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부산은 서비스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서비스산업 도시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3-27> 지역 산업별 부가가치 순이입

(단위 : 십억 원)

| 산업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구<br>경북권 | 울산<br>경남권 | 강원<br>제주권 | 부산권    |    |
|---------------|---------|--------|---------|-----------|-----------|-----------|--------|----|
|               |         |        |         |           |           |           | 규모     | 순위 |
| 농림품           | -9,154  | 2,937  | 4,787   | 2,482     | 1,491     | 2,586     | -996   | 30 |
| 광산품           | -237    | 223    | 147     | -6        | 118       | 698       | -84    | 21 |
| 음식료품          | -1,574  | 2,467  | 823     | 69        | 961       | 377       | -318   | 26 |
| 섬유 및 가죽제품     | 8,257   | 234    | -254    | 2,048     | 352       | -249      | 732    | 9  |
| 목재 및 종이, 인쇄   | 2,580   | 811    | 182     | 303       | 439       | -174      | -176   | 22 |
| 석탄 및 석유제품     | -1,256  | 1,149  | 2,670   | 456       | 4,281     | -158      | -181   | 23 |
| 화학제품          | 5,928   | 10,025 | 8,306   | 2,377     | 7,839     | -457      | -59    | 20 |
| 비금속광물제품       | -550    | 2,239  | 347     | 976       | 86        | 306       | -243   | 24 |
| 1차 금속제품       | -191    | 3,207  | 5,462   | 6,395     | 2,842     | -457      | 1,150  | 5  |
| 금속제품          | 3,038   | 1,414  | 249     | 2,939     | 6,209     | -622      | 1,141  | 6  |
| 기계 및 장비       | 7,116   | 2,064  | 402     | 1,963     | 7,927     | -248      | 1,276  | 4  |
| 전기 및 전자기기     | 37,457  | 23,058 | 995     | 15,776    | 3,382     | -606      | 497    | 11 |
| 정밀기기          | 3,065   | 789    | -269    | 369       | 433       | 180       | 97     | 16 |
| 운송장비          | 4,792   | 4,256  | 6,026   | 2,333     | 22,330    | -268      | 1,312  | 3  |
| 기타제조업제품및안광    | 4,883   | 1,644  | 735     | 2,339     | 4,343     | -273      | 251    | 13 |
| 전력, 가스 및 증기   | 1,201   | 1,471  | 850     | -156      | 3,141     | 238       | -252   | 25 |
| 수도, 폐물및재활용서비스 | 817     | 675    | 444     | 330       | 456       | 110       | 106    | 15 |
| 건설            | 128     | 130    | 240     | 123       | 82        | 57        | 0.03   | 19 |
| 도소매서비스        | 37,742  | -298   | -448    | 707       | 319       | 362       | 3,544  | 1  |
| 운송서비스         | 16,344  | 1,000  | 893     | 717       | 1,090     | 259       | 3,421  | 2  |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 4,153   | 404    | -71     | 292       | 597       | 1,224     | 689    | 10 |
|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 18,446  | -2,089 | -1,850  | -1,503    | -1,573    | -584      | -784   | 29 |
| 금융 및 보험서비스    | 17,109  | -1,603 | -939    | -778      | -923      | -499      | 423    | 12 |
| 부동산 및 임대      | 35,710  | -5,145 | -6,487  | -5,907    | -4,560    | -2,013    | -360   | 28 |
| 전문 과학및기술 서비스  | 18,297  | -2,033 | -854    | -444      | 355       | -394      | 832    | 7  |
| 사업지원서비스       | 8,891   | 505    | 184     | 422       | 515       | -36       | 769    | 8  |
| 공공행정 및 국방     | 695     | 13     | -10     | 8         | 50        | -0.8      | 33     | 18 |
| 교육서비스         | 1,437   | 166    | -122    | -32       | -573      | -95       | -323   | 27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1,485   | -211   | -192    | -97       | -179      | -89       | 182    | 14 |
| 문화 및 기타서비스    | 4,107   | 365    | -582    | -632      | -336      | 551       | 49     | 17 |
| 서비스산업 소계      | 164,422 | -8,926 | -10,483 | -7,249    | -5,218    | -1,316    | 8,477  |    |
| 합 계           | 230,725 | 49,875 | 21,662  | 33,874    | 61,504    | -275      | 12,730 |    |

## 라. 소결

이 절에서는 한국은행이 제공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하여 부산의 서비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기여도를 분석했다. 즉,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고, 산업간 연쇄효과분석과 부가가치 순이입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서비스산업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기여의 정도를 분석해 보았고,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서비스산업 유발계수 산출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에는 서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먼저 생산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1차 금속산업)은 가장 낮은 산업(공공행정 및 국방산업)에 비해 약 2배의 차이가 있었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가장 높은 산업과 가장 낮은 산업이 약 3배, 취업유발계수는 약 8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서비스산업의 경우, 생산유발계수분석에서는 대부분의 하위그룹으로 조사되었으나, 부가가치유발계수분석에서는 1위부터 10위까지 차지하였고, 취업유발계수분석에서는 1위부터 6위까지 차지하였다. 이는 생산유발효과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분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고,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농수산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산업 전반의 통계표인 산업연관표를 기초자료로 하여 분석한 산업연관효과 분석<sup>4)</sup>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 통계

4) 2013년 산업연관표 해설편(한국은행, 2015.12.)

한 분의 심사위원님께서 생산유발효과는 제조업분야,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서비스업분야에 효과가 큰 것은 국가 전반적인 현상인지, 부산만의 특성인지 여부 등을 비교할 것을 제안하여 국가산업 전체와 각 지자체별 경제적 유발효과분석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부산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유익한 심사의견에 감사드린다.

표인 지역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각 지역별 지역산업연관효과 분석<sup>5)</sup>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지역경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제조업 분야는 생산단계에서의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내 총생산(GRDP) 증대와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 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분야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서비스산업이 다른 산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산업인지, 또는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지의 분석을 위해 산업간 연쇄효과분석인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 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산업 전반에 대한 산업간 연쇄효과분석<sup>6)</sup>에서는 12개 서비스산업 중에서 7개 산업은 감응도계수가 높고 5개 산업은 영향력계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감응도계수가 월등히 높은 부산의 분석결과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산시의 서비스산업 정책수행은 특정산업 위주의 육성정책 추진보다는 서비스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산업에 대해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진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가가치 순이입 효과분석결과, 부산 서비스산업은 지역경제에 대해 부가가치 순이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가가치 순이입의 67%를 서비스산업군이 차지하고 있어 부산 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높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한편, 운수업과 도소매서비스업의 경우, 부가가치 순이입분석에서는 1위, 2위로 부가가치 순이입효과가 큰 업종으로 분석되었으나, 변이할당분석에서는 D유형(열위산업)으로 도출되어 서로 배치된 결과로 비춰진다.

5)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분석편(한국은행, 2015.12.)

6) 2013년 산업연관표 해설편(한국은행, 2015.12.)

이는 부산에서 운수업과 도소매서비스업은 부산시 서비스분야 업체수의 43.2%, 종사자수의 30.8%, 부가가치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 서비스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순이입 차원에서 볼 때, 이 출규모보다는 이입규모가 커 부가가치 순이입이 큰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들 업종은 전통서비스업종으로 낮은 부가가치율과 영세성,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인해 열위산업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우리나라 제1의 수출입물동량을 처리하는 부산항이 있고, 물류중심도시인 점을 고려하여, 항만을 배후로 한 운수업·도소매업 활성화정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항만시설 구축, 최신 물류시스템 도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판매업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4. 부산 서비스산업 대내외 환경 분석(SWOT분석)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부산의 서비스산업 현황 및 부산 서비스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산업별 특화도·성장도 분석 등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의 대내외 환경 분석을 위해서 강점요인(S), 약점요인(W), 기회요인(O), 위협요인(T)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도출된 4가지 요인을 조합하여 기회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강점을 이용하는 강점-기회전략(S-O전략, 활용·공격적 전략),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기회를 활용하는 약점-기회전략(W-O전략, 탐구·국면전환 전략),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이용하는 강점-위협전략(S-T전략, 대응·다각화 전략),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약점-위협전략(W-T전략, 회피·방어적 전략)으로 구분하여 전략을 정리한다. 이 SWOT 분석결과는 부산 서비스산업 중장기 전략을 위한 시사점과 육성방안을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표 3-28> SWOT분석 틀

| 구 분     | 강점요인(S)                                    | 약점요인(W)                                   |
|---------|--|---|
| 기회요인(O) | <u>S-O 전략</u><br>기획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 | <u>W-O 전략</u><br>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
| 위협요인(T) | <u>S-T 전략</u><br>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   | <u>W-T 전략</u><br>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

가. 강점(Strength) 요인

|   |
|---|
| <p><b>&lt;강점 요인&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경기 다음의 전국 3위의 서비스산업 규모 (서비스산업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li> <li>- 부산 타 산업에 비해 강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li> <li>- 타 지역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확보</li> <li>- 잘 갖춰진 교통·물류인프라</li> <li>-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경제권역의 대표 도시로서 기 구축된 규모의 경제 가능</li> <li>- 부산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li> <li>-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보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블록체인 규제자유구역, 금융중심지 지정 등)</li> </ul> |
|---|

부산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강점 요소로는 첫째,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위상이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은 2018년 기준으로 61.2조 원으로 전국 비

중 5.7%를 차지하여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부산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약 249천여 개로 전국의 7.1% 비중을 차지하여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3위 수준이고,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약 111만 7천여 명으로 전국의 6.8% 비중을 점유하여 이 또한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 3위를 달리고 있다. 이처럼 부산은 서비스업의 GRDP,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 서비스산업 기반이 이미 갖춰진 도시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강점요소로는 부산의 서비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앞 절에서 분석한 부산 서비스산업의 산업연관분석결과, 서비스산업 12개 산업 중 9개 산업에서 부가가치 순이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의 서비스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산 서비스산업의 유발계수 산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서비스산업이 1위부터 10위까지 차지하고, 취업유발계수는 1위부터 6위까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어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서비스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내총생산 증대와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분야의 육성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이는 부산 서비스산업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부산 서비스산업의 각각의 업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것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특화도 분석에서 알 수 있다. 부산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특화도는 사업체 수 기준 또는 종사자 수 기준에서 모두 LQ지수가 1 이상을 나타나고 있어 경쟁력 우위산업임을 알 수 있다. LQ지수 기준으로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에서 특화도가 1보다 큰 서비스산업은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지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이들은 경쟁력이 있고 유망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서비스 부문의 수요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일정규모를 갖춘 국제공항과 우리나라 제1의 수출입 항만을 통한 교통·물류 등 기업경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기업의 집적요인을 고루 갖추었고, 이로 인한 서비스산업의 성장 잠재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섯째, 부산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경제의 대표도시로서 지역경제권역로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는 점도 하나의 큰 강점으로 들 수 있다.

여섯째, 부산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큰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 뿐 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한 부산시의 관심과 중앙정부의 활발한 지원정책에 따라 부산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지역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각종 홍보와 지원을 통해 지역과 중앙정부의 지식서비스 지원정책을 알리고 지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서비스 혁신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조례가 제정되었고, 서비스분야 컨트롤타워 기능과 최고의결기구인 ‘부산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 지정(2019년)과 블록체인 규제자유구역 선정(2019년), 금융중심지 지정(2009년), 국제 관광도시 지정(2020년) 등으로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약점(Weakness) 요인

### <약점 요인>

-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청년인재 유출 심화
- 서비스업체의 영세성
- 낮은 노동생산성과 낮은 급여 수준
-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미흡
- 서비스업 전문 인력 부족
- 대기업 부재로 인한 서비스산업 가치사슬 형성이 미흡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의 약점 요소로는 첫째,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청년 인재의 유출 심화를 들 수 있다. 부산은 1995년부터 인구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청년층의 유출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 인재의 유출은 지역내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도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역인재가 계속 유출되는 것은 단지 지역내 생산요소의 약화 뿐 아니라 만성적인 지역인재의 유출은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까지 훼손하게 되어 타 지역에서의 인재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새로운 산업의 유발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약점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업체의 영세성을 들 수 있다. 부산지역의 서비스업 업체당 매출액은 7.6억 원으로 전국 평균인 9.4억 원의 8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산지역 서비스업은 10명 미만인 영세한 기업이 8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 업체당 종사자수는 4.4명으로 전국 평균인 4.6명에 미달하는 등 조직의 규모나 영세성을 엿볼 수 있다.

셋째, 낮은 생산성과 낮은 급여수준을 들 수 있다. 부산 서비스업 종사자의 1인당 매출액은 1.74억 원으로 전국 평균인 2.02억 원의 86% 수준에 머

무르고 있고, 부산 서비스업 업체당 급여총액은 0.97억 원으로서 전국 평균인 1.11억 원의 88%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부산 서비스업의 낮은 급여 수준과 열악한 복지환경 등으로 인해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가 쉽지 않아 중소 서비스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식서비스의 고급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하면 전문 인력 부족은 지역 지식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미래 투자인 업체당 경상연구개발비가 낮다는 것이다. 부산 서비스업 업체당 경상연구개발비는 2백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4.2백만 원의 47%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지식서비스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기업의 성장부진과 전문 인력 부족이 상호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사업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영속성과 안전성이 크게 낮아 일자리 지속가능성이 적고 임시직 등의 증가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특화된 서비스분야 대기업이 부산에 없어 서비스산업 분야의 가치사슬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다. 기회(Opportunity) 요인

##### <기회 요인>

-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인식 확산
- 중앙정부의 강한 서비스 지원정책 추진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서비스분야 확산 가능성
- 지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관심 고조
- 세계 서비스시장의 확대 추세 지속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의 기회요소로는 첫째,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비스경제화, 지식기반 경제화, 전문화 및 아웃소싱의 보편화, 기업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OECD나 EU 등 주요 국제기관이나 선진국들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서비스분야에 대한 강한 지원정책 추진을 들 수 있다. 서비스경제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이후 거의 매년단위로 서비스산업 강화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고, 2019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서비스산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적·제도적 큰 틀이 마련된 만큼 지역 차원에서도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서비스 육성정책 추진은 국가적으로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환경조성,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정책의 수행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서비스R&D 투자, 세제지원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정책자금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외부적 요인 가운데 부산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에 기회의 요인으로 다가오는 것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분야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과 주변 국가들의 서비스산업 육성에 따른 다양한 기회 창출과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다.

넷째, 최근 제조업 부문에서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투입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서비스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대두되면서 제조업을 지원하는 지식서비스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좋은 기회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FTA 등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와 부산경제자유구역의 조성은 지역 지식서비스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FTA 등의 대외개방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내부 규제완화가 점진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해외 직접투자유치, 첨단 지식서비스 기업의 입주 등 해외 및 국내 기업들에 의한 지식서비스 수요확대, 서비스 부문의 경쟁 환경 촉진 등 부산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지역의 서비스산업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첨단도시로 건설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 지정과 항만과 국제공항을 활용한 교통·물류 및 정보를 포함한 기업의 경영과 생활환경의 편의성을 함께 갖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식서비스 기업과 관련 전문가의 집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될 것이다. 부산경제자유구역의 동북아 해양수도조성 정책은 해외의 비즈니스서비스 기업들을 집적시킴으로써 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라. 위협(Threat) 요인

##### <위협 요인>

- 수도권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강화로 서비스분야 경쟁 과열
-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또는 대외 개방으로 인한 시장실패 위험
- 자금 및 전문 인력 확보 애로
- 제조업위주의 정부지원제도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의 외부적 위협요소로는 첫째, 수도권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강화로 서비스분야 경쟁 과열이 위협요소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 경기지역은 서비스산업의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에서 전국 1~2위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강한 수도권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인 부산 지역에서 경쟁의 파고를 뚫고 나가는 것이 힘에 부친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열세인 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직접 대면이 필요하고 공급과 동시에 수요가 발생하는 등 서비스 수요에 있어 지리적인 인접성이 중요하며, 고객기업과의 공동 생산·혁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객기업과 근접지역에 입지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서비스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제조업을 비롯한 지역 업체의 지식서비스 수도권 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서비스의 근거리 활용보다는 서비스의 질적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지역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도권 집중이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업의 시장실패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대외 개방에 의한 경쟁력의 심한 노출은 시장실패에서 기인하는 생산성 정체로 이어져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역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해외 우수기업의 유치로 인해 지역 서비스시장을 고급시장과 저급시장으로 양분하는 시장분절화와 불완전경쟁을 초래할 시장실패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지역 영세 서비스업뿐 아니라 관련 제조업의 생산성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장 분절화는 특히,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기업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중간투입

물을 공공부문이 제공하거나 서비스부문별로 분산된 수요를 집적하는 등 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을 어느 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서비스업의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외국 글로벌 서비스 기업의 대량 진입은 경쟁력이 취약한 인천지역 서비스 기업들의 영세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셋째, 자금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애로를 들 수 있다. 사업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자금 조달과 전문인력의 확보 난을 높은 요인으로 꼽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자금 지원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자금 및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확보하는데 있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전문 인력의 확보가 애로를 겪고 있어 서비스산업분야의 전문 인재양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제조업 위주의 정부지원제도가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서비스업의 특성에 맞는 산업지원정책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재설계함으로써 정책적인 소외감과 애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마. SWOT 전략

이상에서 분석한 내부적 환경인 강점과 약점, 외부적 요인인 기회와 위협을 종합적으로 접목하여 SWOT전략을 정리하였다. 즉, 기회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강점을 이용하는 강점-기회전략(SO),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기회를 활용하는 약점-기회전략(WO),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이용하는 강점-위협전략(ST),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약점-위협전략(WT)으로 구분하여 <표 3-29>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3-29> 부산 서비스산업 SWOT 전략

|   |  |  |
|---|--|--|
| 내부역량<br><br><br><br><br><br><br><br><br><br>외부환경  | <b>강점요인(Strength)</b>  | <b>약점요인(Weakness)</b>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3위의 서비스업 지수</li> <li>·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경쟁력</li> <li>·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기반 기 확보</li> <li>· 타 지역 대비 비교우위</li> <li>· 우수한 교통·물류인프라</li> <li>· 동남경제권의 대표도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인재 유출 심화</li> <li>· 서비스업체의 영세성</li> <li>· 낮은 생산성과 급여수준</li> <li>· 서비스R&amp;D 인식부족 및 R&amp;D 투자 미흡</li> <li>· 전문인력 부족</li> <li>· 대기업 부재로 서비스산업 가치사슬 미형성</li> </ul> |
| <b>기회요인(Opportunity)</b>  | <b>S-O 전략</b>  | <b>W-O 전략</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서비스산업 진흥 가능</li> <li>· 서비스산업 인식 확산</li> <li>· 정부의 서비스정책 강화 및 서비스R&amp;D투자 확대</li> <li>· 지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관심 고조</li> <li>· 세계 서비스산업 시장 확산 추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선정·육성</li> <li>· 동남권지역(부산·울산·경남) 광역서비스산업권 형성</li> <li>·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 지식서비스산업 육성</li> <li>· 서비스정책 강화로 서비스R&amp;D 국비 유치 확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형 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 강화</li> <li>· 정부정책에 부응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강화</li> <li>· 서비스기업의 대형화 추진 및 지원 강화</li> <li>· 유망서비스산업 인력 수급 예측 및 양성</li> </ul>                                 |
| <b>위협요인(Threat)</b>   | <b>S-T 전략</b>  | <b>W-T 전략</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분야 경쟁 과열</li> <li>· 일방적 대외 개방으로 인한 시장실패 위협</li> <li>· 자금 및 전문 인력 확보 애로</li> <li>· 제조업 위주의 정부 지원제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화와 차별화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서비스R&amp;D정책 강화</li> <li>· 강한 서비스 인프라와 서비스R&amp;D 접목으로 혁신인력 양성 강화</li> <li>· 기 보유한 인프라 기반의 특화 틈새시장 발굴·육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산업의 특화 고부가가치분야 정립 및 육성 로드맵 수립</li> <li>· 국내외의 위기상황 돌파를 위한 지역 역량 집중</li> <li>·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추진 및 R&amp;D 투자 확대</li> </ul>  |

## 5. 부산 서비스산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앞부분에서 부산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과 지역산업변관분석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였고, 특화도 및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어느 산업이 특화되었는지와 전국적인 경쟁력 여부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부산 서비스산업 SWOT분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부산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실증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부산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가. 부산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은 지역내총생산(GRDP) 및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 저조한 R&D투자, 미흡한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은 부산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 (1) 규모의 영세성

통계청 경제총조사(2015) 기준, 부산 서비스산업의 업체당 매출액은 7.6억 원으로 전국 평균 9.4억 원의 81% 수준에 불과하고, 업체당 종사자수는 4.4명으로 전국평균 4.6명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규모의 영세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 (2) 낮은 노동생산성

서비스산업은 경제적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아 비효율성이 큰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구나 부산 서비스업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1.74억 원으로 전국 평균 2.02억 원의 86% 수준이고,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은 12.3억 원으로 전국 12.5억 원으로서 부산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국평균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서비스분야에 대한 R&D투자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고, 지식과 인력이 주요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R&D투자가 저조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3) 저조한 R&D 투자

부산 서비스업 업체당 경상연구개발비는 2.0백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백만 원의 47%에 그치는 등 임금수준이 다소 저조하고 R&D투자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는 서비스분야 R&D지원에 대한 범적이고 제도적인 기반 미비로 서비스기업의 R&D투자 활성화에 제약을 받는다는 시각이 강하다.

## (4) 제조업 대비 차별적 대우

기존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 등은 서비스산업으로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과 비교해 불리한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정책금융도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이 갖는 특성을 반영한 금융지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정책금융이 물적인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기계장비, 설비 등을 갖춘 제조업 위주로 금융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5) 높은 유발계수업종의 한계

부산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것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순이고,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은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그러나 지역내 서비스업종 가운데 생산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은 전통서비스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고,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높은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주로 전통서비스업으로서 지식을 창출·가공·유통·활용시키거나 지식기반의 중간재를 생산 활동에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의 특화 서비스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기에는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6)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발달 미흡

2018년 사업체수 기준,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의 특화도를 나타내는 LQ지수는 1.01로 1.0보다 높아 전국 대비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에서 9번째로 전국 상위 도시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생산액과 사업체수에 대한 변이할당분석으로 산업구조요인과 경쟁력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업종은 부동산서비스, 사업지원·임대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보기 어려워 향후 성장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정책적 시사점

### (1)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연결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스마트화로서 사물인터넷과 ICT 융합의 확산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한 스마트화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따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 진흥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단순한 산업간 융합이라기보다는 스마트 서비스업의 관점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선뿐만 아니라 스마트 서비스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인력양성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2) 제조-서비스 융합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4차 산업 혁명이 진전해 감에 따라 서비스가 제조업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융·복합화 현상이 확대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 부산은 제조업의 강한 경쟁력을 토대로 하여 제조업 생산에 서비스업을 중간투입재로 활용할 경우, 서비스산업의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결합 극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융·복합이 활성화되도록 산업분류보다는 상품과 기업의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되, 최근 성장성과 경제성장기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제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하여 제조업의 생산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산업과 융·복합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체질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 (3) 신규 서비스업 창출을 위한 R&D투자 확대

유망업종을 촉진하면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R&D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시장조사를 통한 서비스 수요 발굴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신규 기술을 개발한 벤처기업이 시장수요가 활성화될 때까지 생존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형태가 변화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해 소비형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고령층의 삶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 확대와 고부가가치화 필요 등 인구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와 팬데믹(pandemic)의 영향에 따라 비대면(untact) 소비로의 서비스 소비행태가 변화되면서 온라인 쇼핑, 무인 판

매 등으로 환경이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 (4) 서비스R&D 정책 강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고급 서비스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부산시도 R&D투자에 대해 그간의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에도 투자를 확대하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서비스 자체의 고도화 등을 위해 서비스R&D 추진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서비스R&D가 활성화 되어야 하나, 민간 서비스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고 소규모로서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민간 서비스R&D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고, 서비스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R&D를 전담하는 서비스R&D전담센터 설립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5)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마련

서비스 경제화와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지식서비스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육성전략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유발의 정도, 제조업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유망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을 선정하여 업종별 현황과 특성, 산업발전단계에 맞는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발굴뿐 아니라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사업화 추진, 신산업 창출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사회적 인프라 개선, 구조적인 대내·외 환경변화,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 비전 제시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6) 동남권 서비스산업 권역화 구축**

부산은 제조업 중심의 울산, 경남과 함께 제조업을 통해 파생되는 신규 서비스의 중심지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울산의 자동차와 조선, 창원·거제의 기계공업, 거제의 조선, 사천의 항공산업 등 부산 주변의 제조업 중심의 도시들을 활용한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품 생산을 위한 전후방 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부산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적 강점을 살려 물류,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자동차, 조선 등 동남권의 주력 수출품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서비스 수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7)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 서비스 제공**

부산은 ICT와 영상·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고, 지역의 주력 서비스산업인 관광, 물류 등과 융합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및 스마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ICT 및 영상·콘텐츠산업이 성장하는 센텀 지구를 중심으로 ICT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기존의 주력 서비스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8) 서비스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부산에는 많은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학을 활용하여 지역 서비스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서비스산업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창업을 통해 신규 서비스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IV. 부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토대로 부산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활성화를 위해 <표 4-1>과 같이 발전방안을 정책적 측면, 산업적 측면, 기반구축 측면, 제도개선·지역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4-1> 부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구 분           |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
| 정책적 측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R&amp;D정책 강화</li> <li>· 지식서비스산업 육성</li> <li>· 지적재산(IP) 서비스산업 육성</li> <li>· 유망 서비스산업 인력의 수급 예측 및 양성</li> <li>· 서비스업체의 혁신 유인과 R&amp;D 투자 강화</li> </ul> |
| 산업적 측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구조로 변화</li> <li>· 제조업-서비스업 융·복합 촉진</li> <li>·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li> <li>· 영세 서비스업체의 대형화 추진</li> </ul>                            |
| 기반구축 측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플랫폼 구축</li> <li>· 지식서비스지원센터 설치·운영</li> <li>·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li> </ul>   |
| 제도개선 및 지역적 측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li> <li>· 금융중심지로서 금융서비스업 활성화 필요</li> <li>· 울산·경남 경제권과 광역서비스산업권 형성</li> </ul>   |

## 1. 정책적 측면

### 가. 서비스RD정책 강화

글로벌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단순 서비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지식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모든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신서비스의 개발, 전달체계 개선의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가치사슬 형성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장의 선점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서비스R&D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의 비율은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저조하고,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서비스경제화가 진행 중이나, 서비스업 고도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영세성과 낮은 부가가치 창출로 인해 열악한 산업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임에 따라 부산은 산업구조적으로 서비스R&D를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서비스R&D 기반의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달성과 새로운 서비스산업 발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R&D를 통한 제조-서비스 융합으로 지역 산업의 다양성을 높이고 새로운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여 지역 산업구조 위기 대응의 해법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부산은 그동안 제조업, 산업단지 위주의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최근 제조업 위기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성장 정체로 인하여 경제침체가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소비자 중심의

융합 기술개발을 접목한 서비스R&D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시장 확대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서비스R&D를 서비스산업정책의 우선순위 정책으로 설정하고 관련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비스R&D 전담기관인 (가칭)부산서비스R&D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여 서비스R&D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부산시가 서비스R&D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경우, 부산은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높고 도심형 서비스 콘텐츠 개발의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산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정한 시장규모를 보유하고 있고 해양, 물류, 금융, 관광 등 서비스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서비스R&D정책 수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아주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사이언스, 서비스 엔지니어링, 산업공학, IT/SW 등 신기술 적용 중심의 서비스R&D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전달체계의 개선이 가능하고 부산시의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융합서비스산업 활성화 촉진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R&D 활성화를 통해 기존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여 서비스산업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최근 조선·기계 등 제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서비스기반 산업구조혁신을 선도하고 지역기반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역기반 서비스R&D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산업 혁신 및 공공서

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가능하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국가 서비스경제체계를 혁신하고, 지역 중심의 신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서비스산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chain) 등의 지능정보기술이 지식, 창의성 등과 융·복합되어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인공지능화와 자동화에 의한 산업생태계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은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고, 앞으로는 현재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고부가 지식서비스 산업을 집적화하면서 지식서비스 산업의 토대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산의 산업 고도화와 부산지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부산은 지식서비스 산업의 핵심적인 기반 기술이라 할 수 있는 ICT, SW 등의 지능정보기술 관련 R&D 연구역량과 서비스 자원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기에 SW 중심의 IoT, AI, Big Data 등 새로운 기술과 ICT 관련 R&D, 지식, 창의성 등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산은 2020년 현재 7대 전략산업으로 지능정보 서비스, 스마트 해양, 지능형 기계, 글로벌 관광, 미래수송기기, 라이프 케어, 클린테크 등을 선정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이들 산업을 바탕으로 관광, 영화·영상, 문화, 정보통신 등의 지식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를 구축하여 부산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법률·광고·디자인·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제조업 전반의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줌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많은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시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기하고 더 나아가 부산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다. 유망 서비스산업 인력의 수급 예측 및 양성**

부산 서비스산업의 고용이 도매·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다양화가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더불어 서비스산업에서 전문인력의 수요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하여 필요 인력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미래 유망산업분야의 인력수급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인력수급 전망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하고, 연차별 필요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과 수행이 필요하다. 우수 인력이 바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별 전문 인력양성과정 도입, 업종별 직업 훈련사업 확대, 전문 인력공급시스템 구축 등 지역 서비스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양성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SW·콘텐츠 분야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고급인력 양성과 기존 서비스산업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라. 지적재산(IP) 서비스산업 육성

지적재산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취업 유발계수가 높고 중간 수요율이 높은 산업(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으로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수요(정보·법률·중개·디자인·컨설팅 등)를 지원함으로써 기술수준과 R&D경쟁력, 투자효율성 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부산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15,432건으로 전국의 3.9%를 차지하고, 산업재산권 등록건수는 8,647건으로 전국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대전에 이어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산은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24개의 대학이 포진해 있는 등 지식관련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도시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은 지식재산 관련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지식재산 허브 특화도시로 발전하여 기술사업화 연구성과를 확산함으로써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산업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추진 방안으로 첫째,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각종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관련 지식재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역 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및 신산업 등장에 대응하여 지역 우수 벤처기업이 신기술 표준 및 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부산지식재산진흥원에서는 SW를 포함한 제

조업과 지식재산서비스, 공공행정과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디자인과 연구개발(R&D), 금융과 지식재산서비스, 창업과 지식재산서비스, 지역자원과 비즈니스모델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핵심성장요인으로 융합과 연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 기초연구와 융합연구의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간 정보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이 도입된 이론이나 효과적인 실무, 성공사례 등 세미나, 포럼 등을 지원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 산업, 특허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취업자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 네트워크,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인력 유입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마이스터고 직업교육과 교육훈련 연계 강화를 위해 발명 및 지식재산 관련 내용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전문교과 선택과목으로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발명·특허를 연계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발명·특허 특성화고 교육을 확대하며, 지역 산업계와 연계된 현장중심의 발명·특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술계,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특성화고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저작권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고 창업교육과 발명·특허교육을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해 본다.

#### 마. 서비스업체의 혁신 유인과 RD투자 강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서비스업체 자신의 투자와 혁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 경우, 부산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체 자체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통해 투자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으로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식, 전문서비스 등 제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내의 인력양성과 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분야에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기반 R&D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증형 제조·서비스 융합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제조·서비스 융합 브레인 및 실행 플랫폼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가칭 ‘제조·서비스 융합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조·서비스 융합과 연관성이 높은 기술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부산이 주력산업분야인 해양, 자동차, 조선, 의료, 물류, 관광, MICE 등의 제조·서비스 융합과 연관성이 높은 기술에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업의 R&D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업의 R&D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설비투자 등 공제율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 산업적 측면

###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구조로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은 지식과 정보서비스의 비약적 성장을 가져왔던 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면서 연결과 지능화를 통해 제조업뿐 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도 다양한 혁신적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서비스산업부문에서 예상되는 변화로는 산업간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형 융합서비스가 창출되고,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진전으로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근간이 되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의 비즈니스모델이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융합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비스경제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부가가치 창출력이 생산 중심의 제조업에서 디자인, 마케팅, R&D 등으로 이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갈수록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현재 부산의 서비스산업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높은 고용비중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고 전문·과학, 보건·복지 등 고부가가치형 사업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업종의 고용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유통 등의 고용비중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 기여도나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장래 산업구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속 발굴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사업화, 그리고 새로운 산업 창출 등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사회적 인프라 개선, 기업환경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 나. 제조업 - 서비스업 융·복합 촉진

서비스 경쟁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제조업의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조 지원·융합 서비스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함은 물론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지원정책의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은 새로운 혁신 기술과 결합하여 산업형태를 탈바꿈시킬 것으로 전망되므로 신기술 발전 예측을 기반으로 혁신기술의 기술력 축적 및 응용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 공유경제, 개방적 혁신과 디지털 혁신의 확산 등이 주목되고 있고 새로운 핵심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조·서비스 융합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더구나 부산지역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은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선순환 구조의 형성이 필수이지만, 부산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아 서비스업부문의 구조고도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융복합화 비즈니스모델이 일반화되고, 디지털 사회가 갈수록 향상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은 혁신기술과 결합하여 산업형태를 변화시킬 전망이다. 제조와 서비스의 산업간 및 기술간 융복합, 신기술,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향후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에도 대응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첫째, 부산은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산

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되, 특히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제조업 생산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부문의 ICT, 의료, 연구개발 등 사업서비스업, 교육·문화 등 창조형 지식서비스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선순환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의 역량을 로봇, 의료, 정보통신 등 제조지원 서비스 분야에 연계시켜 지식집약형 융합 서비스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산은 주요 선진국이나 수도권과 비교하여 금융, 보건·복지, 전문·과학·기술 등의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업종에 대한 산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핀테크(Fintech) 및 ICT, IoT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R&D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혁신형의 제조기반 서비스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업 개발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기술혁신형 서비스 정책을 개발하여 부산의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IoT, 빅데이터, AI 등 핵심기술을 적용해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의 지원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산업경쟁기반을 강화하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융합형 고부가가치형 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제조와 함께 서비스를 개발·육성하는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제조업 위주 기술·제품 개발과 이를 지원할 자금, 인력 등 중심의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 영역까지 포함하고, 각 업종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인력을 활용하는 지원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오픈형 비즈니스모델 운영이 필요하다.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스타트업과 전통적인 제조업을 연결하는 오픈형 비즈니스모델을 운영하여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고, 제조업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기술혁신형 스타트업 발굴을 통해 부산의 전통 제조업체와 연결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을 공유해 사업화하는 오픈형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제조·서비스 융합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융합기술 개발, 서비스화 플랫폼 구축 등 제조·서비스 융합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 **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부산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산업에 특화된 산업특성을 가진 가운데, 서비스업 내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운수,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부산 지역경제의 성장을 선도하지 못하고, 성장엔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특히 서비스산업의 저조한 생산성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산업의 지역발전 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부산 서비스산업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화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통계청 경제총조사(2015)에 따르면, 부산 서비스산업의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1.74억 원으로 전국평균 2.02억 원의 86%에 불과한 실정임에 따라 부산의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대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제조업의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은 제조업 경쟁력 확보마저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식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등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되 특히, 부산지역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제조업 생산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서비스 등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 산업구조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라. 영세 서비스업체의 대형화 추진**

통계청 경제총조사(2015)에 따르면, 부산 서비스산업의 업체당 매출액은 7.6억 원으로 전국평균 9.4억 원의 81%에 불과한 아주 영세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의 서비스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 중·소서비스업체들의 높은 자영업주 비율과 낮은 생산성 중심의 산업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대형화에 대한 과급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대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있고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지식서비스 및 비즈니스서비스 기업을 발굴하여 부산형 모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기업에 대한 컨설팅, 인증 지원을 통해 지식서비스산업과 관련 중소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대외적인 위상이 강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사업지원서비스 사업체들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인력개발의 체계화를 통해 필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대외개방을 허용함으로써 종사자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토록 해야 할 것이다.

### 3. 기반구축 측면

#### 가. 온라인 플랫폼 구축

최근 코로나19와 팬데믹(pandemic) 영향으로 소비의 형태가 비대면(untact)에 의한 수요로 증가하면서 인적 이동은 감소한 반면, 온라인 쇼핑 등 사물의 이동은 증가하는 등 모빌리티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고, 자동화공장(smart factory)의 확산으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모빌리티의 무인화가 확대되고 자율주행, 배송 효율화, 차량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소비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나홀로족을 위한 상품·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모바일 쇼핑 확대로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위기와 기회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등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O2O(Online to Offline)의 확산은 융합경제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유경제 확산과 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태계 조성 및 오픈마켓을 활용한 관련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이 이러한 유통환경변화에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기술과 새로운 플랫폼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변형, 개방과 협력 등을 통해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지식서비스지원센터 설치·운영

제조업 지원뿐만 아니라 유관산업의 기반조성, 역량강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형 지식서비스산업 육성과 제조업과의 융·복합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구심체가 필요하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이끌어내고 기업간, 산업간 융합사업의 활성화 도모와 시너지 효과의 창출, 지식서비스와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식서비스지원센터가 필요하고, 동 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산시는 (가칭)부산지식서비스지원센터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동 센터가 설치될 경우, 부산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고, 서비스산업 통계·분석, 융·복합 및 네트워크 구축, 신서비스 조사·발굴, 유망업종 선정 및 육성, 지식서비스산업 선정지표 개발, 분야별 직업훈련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산업의 추세가 기존 기업간 경쟁에서 서비스 플랫폼간 글로벌 경쟁으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동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창업할 때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의 기술동향 정보와 성공 사례 등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4. 제도개선 및 지역적 측면

### 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현재 공유경제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규제에 가로 막혀 확산이 느려지고 있는 상황으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계기로 신규서비스 테스트베드 지구를 최대한 선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점검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규제 개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산은 교통·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보유한 도시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사업의 테스트베드화 한다면 국내뿐 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공백 문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진입·행위규제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탄력적인 규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기술의 산업화와 상용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 공백에 대한 조기 해소를 통해 융합 서비스의 조기 출시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규제개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나. 금융중심지로서 금융서비스업 활성화

부산은 정부에서 지정한 금융중심지로서 문현 금융단지를 중심으로 금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핀테크,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신규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문현 금융단지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관련 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향후 명실상부한 금융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핀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들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금융 및 보험기업의 본사를 부산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 다. 울산·경남과의 광역서비스산업권 구축

서비스산업 중심의 부산지역과 제조업 중심의 울산·경남지역과의 산업적 연계·보완성 강화를 위해 경제협력을 통한 산업별 분업체계의 진행이 중요하다. 부산의 지식기반 과학기술 및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중심의 울산·경남과의 연계협력으로 광역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동남경제권내 원활한 산업순환과 지역간 교류협력 및 거래를 촉진하는 생산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상호 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광역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개 광역지자체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광역 지식기반 복합서비스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공동 첨단기술 관련 벤처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기업의 창업 촉진과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지식기반 복합 서비스산업 생태계와 동남권 서비

스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대대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체를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식기반서비스와 교육·의료·쇼핑서비스 등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복합서비스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충분한 인프라가 갖추어진 저렴한 산업 용지의 확보와 공급, 편리한 대중교통망의 설치,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 장치들을 마련하고, 인력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포함한 적절한 전문인력과 현장인력 공급체계를 확보하되 이를 부산·울산·경남 광역권으로 통합하여 마련하는 것이 3개 광역지자체의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울산·경남권 비(非)서비스산업이 필요로 하는 부산의 정보, 법률, 경영컨설팅, 공공관계, 과학기술, 전문디자인, MICE, 광고·홍보, 창작·예술 등 지식기반형 사업지원서비스산업들과 교육, 의료, 쇼핑 등 정주여건 개선형 서비스산업들의 창업과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부산지역 서비스산업들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전국 대비 산업 비중을 높이는 방안, SOC와 제조업 등 비(非)서비스산업이 필요로 하는 회계, 경영 컨설팅, 법률, MICE, 디자인, 광고, 홍보 등 지식기반형 사업지원서비스산업들과 교육서비스업, 의료서비스업, 쇼핑 등 정주여건 개선형 서비스산업들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남권의 산업적 분업체계의 진행과 연계·보완성의 강화는 이들 지역 모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 체계를 통한 동반성장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V. 결 론

### 1. 연구 요약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출산율 감소와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서비스분야에 새로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산업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가가치생산과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은 실정에 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경제성장률 둔화와 같은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통계청에서 매년 공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와 국민소득계정 등을 활용, 2010 ~ 2018년까지 9년 간 부산의 서비스산업에 대해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3개 기준으로 입지계수를 분석하여 부산 서비스산업의 지역 특화도를 분석하였고, 서비스산업 성장과 변화를 전국과의 관계에서 부산의 위치를 파악하는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부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부산의 서비스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화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준연도(2010년)와 비교연도(2018년), 2개년 모두 LQ지수 > 1.2가 나타난 업종을 조사한 결과, 운수, 도소매, 금융·보험, 부동산, 보건 및 사회복지, 숙박·음식점, 교육서비스 업종으로 조사되었고, 2010년에 비해 2018년의 LQ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성장업종은 부동산,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난 9년간 부산시는 이들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 활동의 집적지로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변이할당분석결과, 성장유망산업은 부동산, 사업지원·임대, 공공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 부동산,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부산 서비스산업의 지역경제기여도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부산 서비스산업과 서비스산업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산 서비스산업의 유발계수 산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가 서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생산유발계수는 가장 높은 산업과 가장 낮은 산업 간 약 2배의 차이가 있고, 부가가치유발계수에서는 약 3배, 취업유발계수는 약 8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산의 산업은 생산유발계수분석에서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이 하위그룹에 속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에서는 서비스산업이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어 생산유발효과는 서비스산업보다는 제조업분야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서비스산업이 농수산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분야에서는 생산단계의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내총생산(GRDP) 증대와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육성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산업간 연쇄효과분석,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측정한 결과, 부산의 서비스산업은 대체적으로 타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부산시의 서비스산업 정

책수행에 있어 특정산업에만 중점을 두기 보다는 해당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도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산업진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 순이입 효과분석에서는 부산의 서비스산업이 지역경제에 부가가치 순이입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부가가치 순이입 효과 중 서비스산업군에서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은 서비스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셋째, 부산서비스산업의 SWOT 분석을 통해 부산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부산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 방향과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부산 서비스산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부산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정책적 측면, 산업적 측면, 기반구축 측면, 제도개선·지역적 측면 등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총 15개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연구의 시사점

그간 수행되었던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서비스산업의 한 축인 지식서비스산업이나 비즈니스서비스산업, 그리고 서비스산업 한 분야인 관광서비스업, 의료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주로 분석했다. 지역 서비스산업 전반이 국가 경제 또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전체 서비스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순이입을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적이 없었다.

부산지역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은 전체 산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산광역시에서 서비스산업 진흥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서비스산업의 지역경제 과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분석과 특화도(LQ분석), 성장도(변이할당분석) 등 다양한 분석틀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한 선행사례도 없었다. 따라서 부산 서비스산업이 지역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수행한 실증분석, 특히 지역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 순이입을 통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가 서비스산업분야에 부가가치 순이입 분석을 도입함으로써 서비스분야 연구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부산 서비스산업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육성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부산시의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기초자료 또는 정책 자료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부산 서비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20년 5월 현재까지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제공한 지역산업연관표는 2015년에 발표한 2013년도 지역산업연관표로서 5년 전에 발표한 데이터를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최근 데이터로 분석하지 못한 아쉬운 면이 있었다. 또한 동 분석에서 2013년 이후에 세종특별자치시 신설 등 새로운 지역행정체제로 개편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둘째, 지역성장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변이할당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변이

할당분석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경제적·지역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부산지역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으로 제시된 많은 사업들의 수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즉 부산시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법률적·행정적 규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법률적·행정적·재정적 권한의 이양이 선행되어야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근본적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밝힌다.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발전방안이 향후 부산 서비스산업 육성과 진흥에 반영되어 부산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역산업연관표가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2010년, 2015년, 2020년에 각각 발표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시계열적인 효과분석 등 추가적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1. 국내 문헌

- 강봉준·성현구 (2014), 충남지역 고용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충남 : 한국은행 충남지역본부.
- 강혜규 (2007), 한국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복건복지포럼 3월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강형욱 (2011),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변화양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승준·유승훈·장정인 (2002),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해양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해양정책연구, 17(1): 1-31.
- 관계부처 합동 (2016),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세종 : 관계부처 합동.
- 관계부처 합동 (2019),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세종 : 관계부처 합동.
- 김건수 (2012), 컨벤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기희 (2016), 대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현황과 융합촉진을 위한 산업현황 분석, 대전지역연구회, 발표자료(2016.8.24.)
- 김기희 (2018), 대전 서비스산업 구조고도화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2018-41.
- 김명희 (2014),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방룡·김영은 (2014),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정보통신학회지, 18(4): 771-778.
- 김성록·이종상 (2014).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한 충청남도 금강권 산업구조 특성 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 20(1): 127-134.
- 김수은 (2012), 서비스무역이 총요소 생산성과 실질임금에 미치는 영향: 생산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금성근 (2008), 생산자 서비스업의 권역별, 입지요인분석 : 수요측면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종욱·주수현 (2013), 부산지역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 부산 : 부산발전연구원.
- 대한민국 국회 (2012.7.20), 의안번호 78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모수원·최동오·이광배 (2016), 부산과 경남의 산업경쟁력: 입지계수와 변이할당분석, 무역연구, 12(5): 309-323.
- 박경아 (2013), 의료서비스의 감성만족요소와 고객 접점 분석을 통한 전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율 (2019),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부산 해양산업의 지역경제기여도 분석”,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수·김홍석·조현승·김천곤·김숙경·이상호 (2013),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창조성 활용 전략
- 박정일·김석필·정상기 (2011), 서비스산업 특성 분석을 통한 유형화에 관한 연구 :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4(4): 2029-2051.
- 박현숙 (2012),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호텔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내 특급호텔의 의료관광 상품개발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비스산업총연합회 (2020. 02. 16. 최종 접속) <http://www.fsi.or.kr/main/>

- 설명훈 (2017),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충북 ICT 산업의 구조적 특성 분석, 충북 : 충북연구원.
- 부산광역시 (2015), 2020 부산 서비스산업 육성계획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www.busan.go.kr (2020. 05. 10. 최종 접속)
- 부산광역시의회 (2018),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018). 서비스신산업 창출을 위한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연구
- 양인선·안성진·김영순 (2015), 경남서비스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경제학회지, 31(-): 5-26.
- 옥소연 (2019),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한 (2016), 충북의 서비스산업 현황과 특화 발전 방향, 충북연구원: 기본과제-18.
- 이동희·구진경·박지혜 (2014),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 지식집약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이동희·박지혜 (2013), 국내 지식집약서비스업의 입지패턴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 이데 마사히로 (2011), Excel을 활용한 산업연관분석 입문. 제주도: 제주대학교출판부.
- 이민규 (2017), 지역별 수산업의 부가가치 순이입 분석, 한국혁신학회지, 12(2): 139-155.
- 이민규·이기열 (2016), 항만물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부산, 인천, 울산을 대상으로, 해운물류연구, 32(2): 299-320.
- 이상민·김동한·김학준 (2014), 관광산업의 지역특화 및 성장 특성 비교분석 연구, 한국관광연구학회, 28(5): 63-78.

- 이상훈 (2011), 5대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경기개발연구원
- 이영우 (2019), 대전지역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장효과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상수·배준형 (2019), 서비스산업 중 지방재정 투입 업종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21(3): 111-136.
- 장병렬 (2009).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연구개발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9-20
- 장병렬 (2015), 제조업의 서비스화 R&D 혁신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174호, 2015.
- 조인택 (2012), 지식집약형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비교분석과 발전 모델 유형화 연구, e-비즈니스 연구, 13(4): 121-146.
- 정경선 (2013), 물류기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 체계와 성과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옥균·이민규 (2020), 부산 서비스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23(1): 111-139.
- 정윤석 (2012),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성·김한수 (2013), 입지계수분석을 통한 도시관광과 소매업 개발의 관계 연구, 관광경영연구, 17(4): 357-372.
- 지귀정 (2012), 유통업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직무성과와 고객서비스 제공수준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20),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 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 한국은행 (2015), 산업연관분석해설, 서울 : 한국은행.

- 한국은행 (2015), 산업연관표 : 2013 지역표, 서울 : 한국은행.
- 현민철·조부연·김재영 (2016),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지식집약비즈니스 서비스 분석,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6(1): 255-271.
- 홍성수 (2011), 금융서비스 품질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 해외 문헌

- Emmanuel M., David D.. (2009). What we should know about knowledge-intensive business services, 64-72.
- Ghosh A. (1958). Input-Output Approach to an Allocative Aystem, *Economica* 25: 58-64.
- Kildow J. T., Macllgorm A. (2009), The importance of estimating the contribution of the oceans to national economies, *Marine Policy*, Vol. 34, No. 3, pp367-374.
- Katia P, Bruce S. Tether. (2016). Towards understanding variety in 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s by distinguishing their knowledge bases, 401-413.
- Krajewski, L. Larry, J. Lizman, P. (1999), *Operations Management*, Addison Wesley, 5th ed.
- Leontief, W. (1966), *Input-Output 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s-Verdu, F., Domingo R. and Salvador R. D. (2010), Government policies and services: an approach to the international context,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Vol. 30,

No. 1, pp. 1-10

McCafferty, Ian (2014), The UK Productivity Puzzle - A Sectoral Perspective, Speech, Market News, London, Bank of England, 19 Jun 2014.

Miller, R. E. and Blair, P. D. (2009),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 seco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ECD (1999), The knowledge economy: a set of facts and figures.

OECD (1999), Boosting Innovation: The Cluster Approach. OECD Proceedings.

Schettkat R., Yocarir L. (2005), The shift to services employ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17, No. 2, pp127-147.

Stone, K. E., (1988). The Effect of Wal-Mart Stores on Businesses in Host Towns and Surrounding Towns in Iowa.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Iowa State University.

UK Parliament (2018), Financial services: contribution to the UK economy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

HM Government (2017), Industry Strategy Building a Britain fit for the future

UK Research and Innovation (2018), 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 <https://www.ukri.org/innovation/>

Jun, W. K. Lee, M. K. Choi, J. Y. (2018) Impact of the smart port industry on the Korean national economy using input-output analysi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118, pp480-493.

- Xing, W., Ye, X., & Kui, L. (2011), “Measuring convergence of China’s ICT industry: An Input-output Analysis”, *Telecommunications Policy*, 35(4), pp. 301-313
- Yamawaki, H. (2002), “The Evolution and Structure of Industrial Clusters in Japan,” *Small Business Economics* , vol.18, pp. 121-140
- 독일 산업표준화협회 (2015) : <https://www.bmwi.de/>
- 독일연방통계청 : <https://www.destatis.de>
- 연방경제에너지부 서비스산업 개황 (2018) : <https://www.bmwi.de>
-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부 : <http://www.most.gov.cn>
-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 : <http://data.stats.gov.cn>

